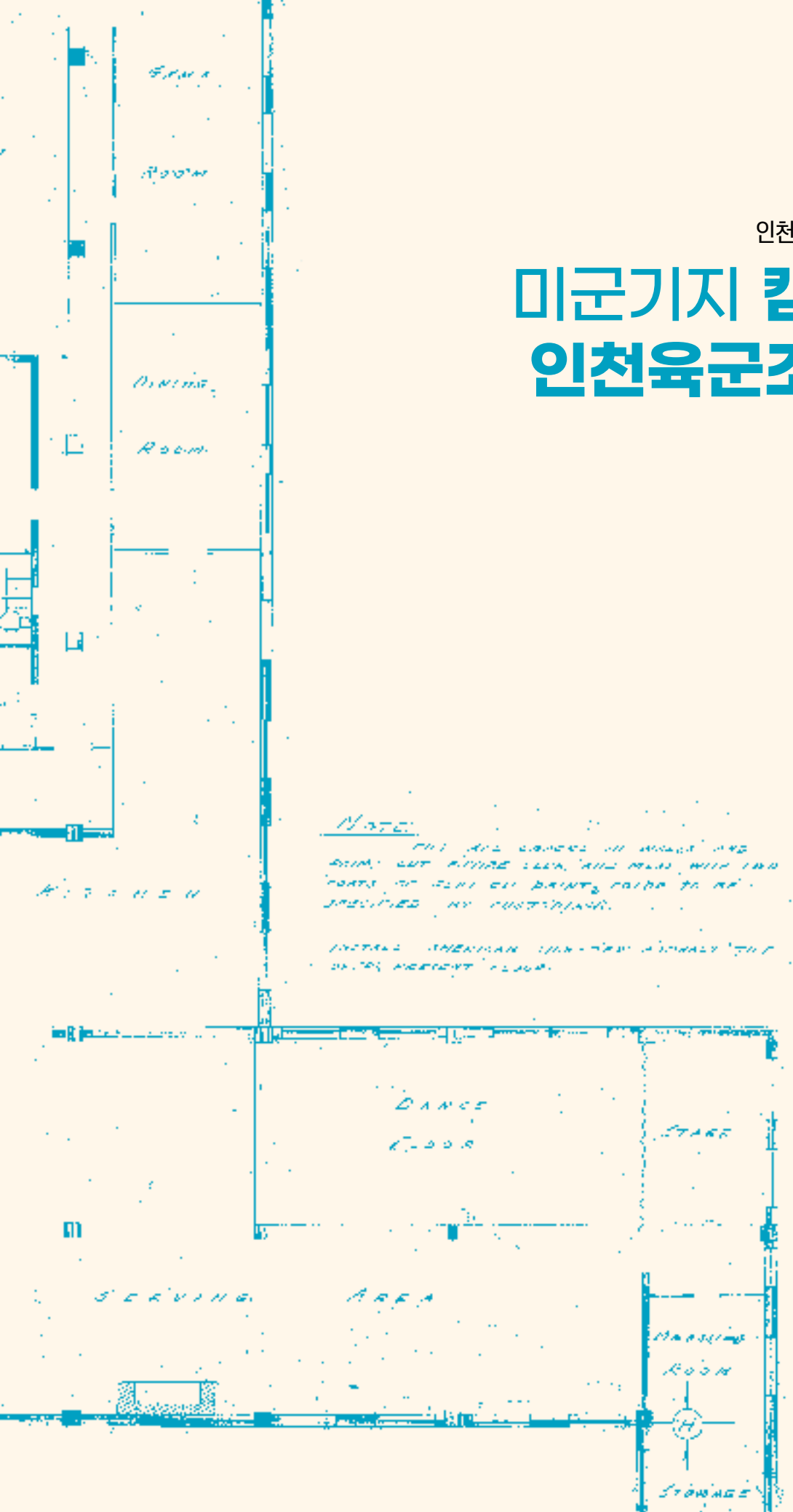


#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 Contents

## 1. 조사개요

1. 조사배경	6
2. 조사대상 및 방법	7

## 2. 땅의 계보와 공간 서사

: 부평연습장, 조병창, 애스컴 시티

1. 일제강점기 부평지역 군용지 활용과 부평연습장	12
2. 인천육군조병창의 건설과 부평지역의 변화	21
3. 광복과 미군기지의 건설	28

## 3. 일본육군조병창에서 주한미군 캠프 마켓까지

: 건축과 배치

1. 배치 및 영역별 구성	40
2. 영역별 건축 현황	48

## 4. 조사화보

72

부록 캠프 마켓 주요 연표

9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미군기지캠프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유적

Chapter

1

## 조사개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 조사배경

2.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배경

부평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마켓 일원은 오랜 세월 인천 사람들에게 존재하되 실체를 알 수 없는 땅이었다. 제국주의 일본이 인천육군조병창을 설치한 이후 약 80년간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 말기 일본은 식민지 공업화 정책에 따라 지금의 캠프 마켓 부지에 인천육군조병창을 설치하는 한편 그 일대에 미쓰비시 제강 등 15개 군수공장을 운영하며 아시아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를 조성하였다.<sup>1</sup> 너른 부평평야는 출입과 거주가 제한된, 빼앗긴 땅이 되었다. 광복 후 남겨진 병참기지는 주한미군의 보급부대가 주둔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최근까지 에스컴시티, 캠프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되었다. 주한미군기지 역시 한국인 종사원을 제외한다면 부평 사람들 누구에게나 담장 너머의 땅이었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찾아온 국제정세의 해빙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지고, 부평 미군기지도 점차 그 역할을 축소해나갔다. 이미 기능을 잃은 캠프 마켓에 대한 반환운동이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던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수립에 따라 전국 28개 기지와 함께 반환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1년부터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규정에 따라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과 책임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12월 11일 SOFA 200차 합동위원회에서 마침내 즉시 반환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sup>2</sup> 현재 인천광역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함께 반환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오늘날 인천의 모습이 근대 시기 개항과 도시화에서 비롯되었음에 주목하여 다양한 근·현대 도시유적과 생활문화사를 조사해왔다. 박물관은 캠프 마켓 반환 과정 중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건축물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당 부지의 건축물과 그 연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철거 대상인 건축물이 인천의 중요 근·현대 도시유적이자 생활문화사의 현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캠프 마켓의 건축물 중 조병창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들은 그동안 고립됨으로써 보존될 수 있었던 일제강점 시기 인천의 도시유적이자 전쟁유적이다. 조선, 구체적으로는 인천 부평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초기지 및 군수도시로 활용됐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생산관계 유적이다. 또한 국내 강제동원 피해의 직접적 현장으로 그동안의 증언을 실증할 수 있다. 미군이 만든 기지건축물 또한 중요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평의 중심지에 입지함으로써 도시 구조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주한미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부평 주민의 생계를 지

1 정혜경, 「국내 소재 아시아태평양 전쟁유적의 현황과 활용」, 2021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회의 자료집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인천 육군조병창 유적』, 2021, 26쪽.

2 「우정 200,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다-제 200차 소파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2019.

탱하며 특유의 생활문화를 탄생시켰다.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땅을 두고 여러 가지 계획과 열망이 교차하고 있다. 박물관은 그 속에서 캠프 마켓 부지가 가진 근·현대 도시유적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러 조사방향 중 우선 멸실 위기에 처한 건축물에 주목했다. 건축학적 조사를 통해 중첩된 시간의 층위가 건물에 남긴 흔적을 이해하는 한편 강제동원의 현장과 미군기지라는 장소성에서 비롯된 사료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 2.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반환이라는 행정적 절차와 학술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여러 제약이 따랐다. 박물관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캠프마켓과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협조를 받으며 반환의 과정을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 조사의 일정과 범위가 변경되기도 했다.

조사대상은 캠프 마켓 반환 부지 일원의 건축물과 시설물이다. 2011년 문화재청이 수행한 『주한미군 주둔지 문화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체 조사지역의 개괄을 파악하고 인천시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캠프 마켓은 현재 용도별 및 기능별로 A·B·C·D구역으로 구분한다. 오수정화조 부지인 C구역은 2019년 8월 조기 반환 절차를 거쳐 부평구가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 기록화 조사와 철거를 마쳤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B구역은 2019년 1단계로 반환되었고, D구역은 2021년 중 2단계 반환 예정이었으나 제빵-공장 이전이 지연되며 2022년으로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장조사와 일부 문헌조사는 출입이 가능한 A·B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지 전체를 조사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남았다.

전체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 학예인력 뿐만 아니라 외부 조사단을 꾸려 원고를 집필하였다. 필요시 마다 건축사 및 주한미군사 등 분야별 자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캠프 마켓을 중심으로 그 일원의 연혁을 조사하여 통시적으로 정리하였다. 관련 문헌을 발굴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작업이었다. 국내·외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사료를 검색하고 선별했다. 주로 인천육군조병창 설치의 연원을 밝히기 위하여 일본이 부평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활용해나갔는지를 파악하였다.

3장은 캠프 마켓 부지의 배치와 주요 건축물에 중점을 두고 건축사적 관점에서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인천육군조병창의 건물의 실체를 둘러싸고 부평주민 간 그리고 학자 간 다양한 증언과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주로 공장, 본부, 병원 등에 대한 추정이 이어졌다. 본 장에서는 관련 문헌과 개방된 현장을 함께 조사하며 건축사 및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주요 건축물의 용도와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단이 주목한 주요 자료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인천시에 제공한 ‘캠프 마켓 건축도서’이다. 본 자료는 주한미군이 부평미군기지에서 생산한 건축도면 1,002매와 부대자산카드 74부로 구성되어 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프로젝트 별로 분류하여 해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애스컴 시기를 거쳐 캠프 마켓 시기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부평 주한미군의 주둔 특성을 개괄하고, 캠프 마켓 부지 내 구역별·건물별 기능의 변천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은 별책 『캠프 마켓 1단계 반환구역 건축도면 해제집』에 상세히 담았다.

한편, 반환 과정 중 이루어진 철거도 기록하였다. 주요 건축물의 철거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남은 부자재 중 특징적인 것은 수집하여 보관하였다. 비록 과편화된 흔적이지만 온전히 기억해야 할 역사를 담은 유물로서 보전할 것이다.

조 사 지 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한미군기지 캠프 마켓 부지 일원	
조 사 기 간	2020. 2. ~ 2021. 10.	
조 사 · 집 필	총 관	유동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기 획	신은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강해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자 문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전갑생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원고집필	김태형 (재단법인 목천 문화재단 연구원) 김현석 (생태역사공간연구소 공동대표) 이연경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원고편집	강해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재섭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원)
	자료정리	강해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재섭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원) 김태형 (재단법인 목천 문화재단 연구원)
조 사 협 조	인천광역시 캠프마켓과	
	재단법인 목천 문화재단	

---

인 천 광 역 시 립 박 물 관 조 사 보 고 3 4 집

미 군 기 지 캠프 마 켓 과

인 천 육 군 조 병 창 유 적

---

Chapter

2

---

## 땅의 계보와 공간 서사

: 부평연습장, 조병창, 애스컴 시티

---

김현석 생태역사공간연구소 공동대표

- 
1. 일제강점기 부평지역 군용지 활용과 부평연습장
  2. 인천육군조병창의 건설과 부평지역의 변화
  3. 광복과 미군기지의 건설

## 1. 일제강점기 부평지역 군용지 활용과 부평연습장

1923년 2월 8일, 일본 육군대신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이 접수됐다. 관련 부서에서 정리해 제출한 문건의 건명은 ‘부평 부근 소연습장 부지 매수의 건’이다.<sup>1</sup> 당시 육군대신이었던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는 이 서류를 검토한 후 ‘1월 31일 조정영(朝經營) 203호의 건은 신청한 대로 (진행하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조정영 203호’는 조선군 경리부장이 발송한 네 장짜리 공문이다. 제목은 ‘용산 부대를 위한 부평 부근 소연습장(小演習場) 매수의 건 신청’으로 되어 있다. 이 공문은 부평 지역의 연습장 부지 매입 사례와 관련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렇다.

인천육군조병창과 관련해 그 이전부터 활용되어 온 군용지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 육군이 조병창 건설을 위해 토지를 확보할 때 ‘부평연습장’을 중심에 놓고 주변 땅을 매입해 갔기 때문이다. 부평연습장의 북쪽, 동쪽, 남쪽 지역이 매입 대상이었다. 부평연습장은 일본군이 군사 훈련을 하던 장소다. 현재까지 인천육군조병창 부지를 표시한 도면 등 직접적인 자료는 극히 일부만 확인된다. 따라서, 부지의 면적이나 건물 배치, 운영 사례 등은 근무자들의 증언, 미군 생산 문서, 잔존 유물 및 유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부평연습장 역시 인천육군조병창의 실체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검토 대상 중 하나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일본군이 운용하는 연습장이 본연습장과 소연습장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부평연습장’과 ‘부평소연습장’은 일본 육군 규정상 다른 형태의 훈련장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러니 위의 공문에서 언급한 소연습장이 이후의 자료들에서 계속 등장하는 ‘부평연습장’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평소연습장’이 ‘부평연습장’으로 변화되었을 수도 있고, 두 연습장이 공존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부평소연습장의 형태로 계속 유지되었을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일단, 인천육군조병창 조성 이전부터 부평지역이 군사훈련장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천육군조병창<sup>2</sup>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지금의 부평역 북서쪽 일대를 점유했던 일본 육군의 군사시설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과 부평동 일대에 걸쳐 있었고, 초기 계획 부지는 약 117만 평, 386만 7,000㎡에 달했다. 인천육군조병창 부지 내 시설들은 1973년, 미군기지인 애스컴 지역사령부가 해체된 후 대부분 사라졌다. 현재는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안에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다. 반환공여구역의 면적은 약 44만㎡이다. 아직 정밀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확신하는 건 어렵지만, 인천육군조병창 부지로 추정되는 산곡동 소재 우리



[그림 1] 인천육군조병창의 남쪽 경계  
(출처 :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Ref.C13070032500, 地図(防衛省防衛研究所).)

육군 보급단 안에도 ‘땅굴’ 등 당시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시설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흔적들과 미군기지의 점유 구역, 그리고 사진 자료 등을 참고할 때, 인천육군조병창은 대략 북쪽의 산곡동 영단주택, 남쪽의 원통이 고개, 서쪽의 함봉산과 장고개, 동쪽의 굴포천을 경계로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부평에 인천육군조병창이 건설된 이유는 경인선 철도나 경인시가가지계획 등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부평지역의 지형 조건 또한 고려사항에 들어 있겠지만, 이와 함께 부평연습장의 존재 역시 무시하지 못할 부지 선정 요건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미 군사훈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이니 민유지를 별도로 매입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관리나 시설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평지역은 소연습장 조성 계획이 있기 이전에 이미 군용지로 토지가 확보되어 있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1916년에 군용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평지역의 60만 평 토지를 확보했다.<sup>3</sup> 그리고 곧바로 이곳에서 일본군의 군사 훈련이 진행됐다.

용산 보병 제78연대 전부는 수원에 숙영하고 11일부터 12일까지 경부선[경인선의 오기로 보임: 필자 주] 부평 부근에서 전투 사격 연습을 행하는데 이케우찌(池内) 대좌 이하 연대 간부도 동지(同地)에 출장하였더라.<sup>4</sup>

<sup>1</sup>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03011787500, 富平附近小演習場敷地買収の件(防衛省防衛研究所)」.

<sup>2</sup> 정식 명칭은 ‘인천육군조병창(仁川陸軍造兵廠)’이고, 줄여서 ‘인조(仁造)’라고 불렸다. 건설 계획 초기에는 ‘조선공창(朝鮮工廠)’으로 부르기도 했다. 조선에 처음, 그리고 유일하게 만든 조병창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인천육군조병창, 혹은 조병창이란 용어를 경우에 따라 섞어서 사용하였다.

<sup>3</sup> 『동아일보』, 1925. 2. 22.

<sup>4</sup> 『매일신보』, 1916. 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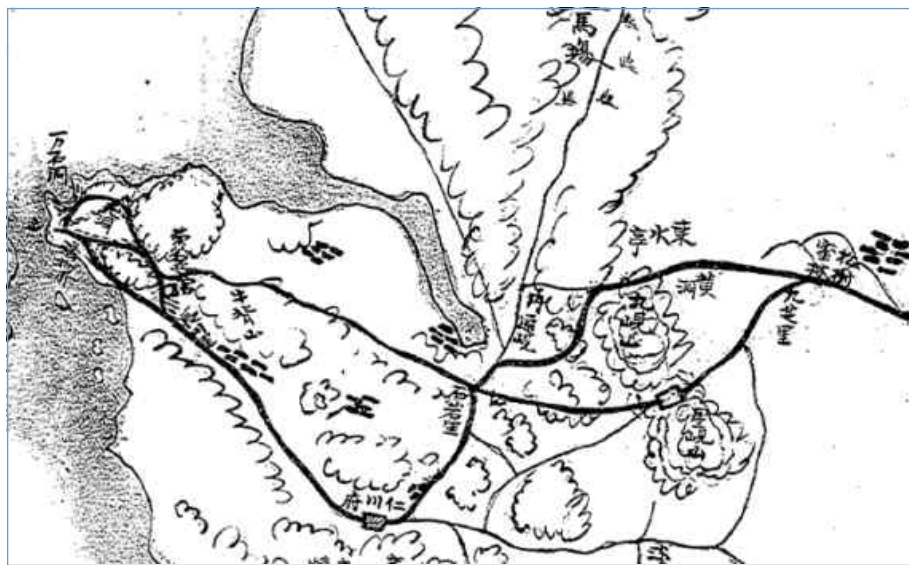


보병 제78연대에서는 15일부터 2일간 경인선 부평 부근에서 사격 연습을 거행 중 인데 제19사단 참모장 오카모토(岡本) 대좌는 16일에 차(此)를 검열하기 위하여 부평에 출장하였더라.<sup>5</sup>

본래 조선주차군은 1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것이 제19사단이다. 그러던 것을 2개 사단이 상주하는 것으로 바꾸며 제20사단을 새로 창설했다. 조선주차군사령부는 1918년 조선군사령부로 이름을 고쳤고,<sup>6</sup> 일본군 제20사단은 1919년 용산에서 사령부 개청식을 하며 신설되었다.<sup>7</sup> 제20사단의 신설과 동시에 경성에 있던 제19사단 사령부가 함경도 나남으로 이동하고, 제20사단이 용산에 주둔하게 되었다.<sup>8</sup>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평지역을 훈련장으로 사용한 부대도 제19사단에서 제20사단으로 바뀌어 갔을 것인데, 그건 달리 말하면 어떤 사단이 되었던 간에 경성에 주둔하던 부대의 훈련장으로 부평지역이 활용됐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총독부의 군용지 확보, 경성 부대의 군사훈련장 활용, 소연습장 조성, 인천 육군조병창 건설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일본이 판단한 부평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를 따져보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1894년 1월에 있었던 다나카(田中) 대위 일행의 ‘경인간 도로 시찰’이다.

1894년 1월 16일, 쓰쿠바(筑波) 함을 타고 제물포에 도착한 다나카 대위 등 일본군 3명은 서울까지 이어진 도로를 정탐한 후 ‘인천경성간도로시찰보고서’<sup>9</sup>를 작성해 일본 해군대신에게 제출했다.<sup>10</sup> 포대의 이동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파악



[그림 2] ‘인천경성간도로시찰보고서’ 첨부 지도

5 『매일신보』, 1916. 9. 17.

6 『朝鮮軍概要史』, 3쪽, 朝鮮軍殘務整理部.

7 『매일신보』, 1919. 6. 6.

8 『매일신보』, 1919. 6. 5.

9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10125477300, 27年3月1日 筑波艦仁川京城間道路視察報告外の件(防衛省防衛研究所)」.

10 이와 관련된 내용은 『도시마을생활사(주안동)』(인천광역시 남구, 2017), 83-87쪽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하기 위한 도로 조사였다. 이들은 제물포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경로를 모두 세 개로 파악하고 있었다.

제1로는 석암리, 구현산, 구지리, 오류동을 거치는 길이고, 제2로는 석암리, 부평, 양화진을 거쳐 가는 길이며 제3로는 인천부 읍치와 중림현, 노량진을 통해 가는 길이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석암리(石巖里)’ 즉, 지금의 석바위시장 부근에서 대로는 제1로와 제2로의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제1로는 성현(星峴)을 넘어가는 길이다. 고갯길이기 때문에 포병이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길은 ‘구로(舊路)’라고 불렸다. 흔히 옛 경인로라고 부르는 곳이다. 성현을 지나면 솔밭에 닿았는데, 이곳이 지금의 송내동이고 그 당시에는 구지리(九芝里)라고 불렸다. 제2로는 길이 좋았지만 우회하는 길이었다. 제1로와 제2로, 어느 곳을 택해서 걸어도 구현산 너머 구지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었다.

다나카 일행이 정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이 청일전쟁 전야에 제물포에 상륙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에 침입해 들어가 경복궁 점령사건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은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구현산에 포대를 설치했다. 이곳을 인천과 한양 사이의 요지로 파악한 것이다.<sup>11</sup>

구현산(九峴山)은 지금의 광학산 일대를 가리킨다.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훗날 구현산 주변에 군수시설이 들어서게 된 셈인데, 구현산과 인접한 동쪽 기슭에는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이 조성됐고, 북쪽 기슭 넓은 황무지에는 인천육군조병창이 건설됐다. 그렇게 볼 때, 일본군은 일찌감치 구현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1894년부터 일본군이 일부 점유했던 구현산 인근의 토지는 군용지 매수와 연습장 건설을 거쳐 1939년에 인천육군조병창 부지로 흡수됐다. 부평연습장을 인천육군조병창 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명기된 문건은 일본 육군조병창 장관인 고스다(小須田勝造)가 육군대신 앞으로 보낸 1939년 8월 9일자 ‘육조비(陸造秘) 제2048호’ 공문이다. ‘토지 매수의 건 신청’이란 제목이 달린 이 공문은 ‘밀수(密受) 제1371호 토지매수에 관한 건’이란 건명으로 편철돼 육군성에 보관됐는데,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작성돼 있다.

군수동원 실시에 따라 조선공창(가칭) 신설이 필요하므로 별지에 도시(圖示)한 바와 같이 제20사단 경리부 소관 부평연습장 72만 8천여 평을 이관 받는 외에 주서(朱書) 구역을 대략 좌기(左記)에 보이는 대로 임시군사비 축조비영달예산 내에서 토지 매수하고자 하므로 청하는 바임.<sup>12</sup>

11 ‘帝國軍隊 朝鮮에 上陸 및 清韓兩 政府로부터 撤兵 要請의 事’, 1894. 6. 6.(일제의 한국침략사료 총서 3).

12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01004619300, 土地買收に関する件(防衛省防衛研究所)」.

제20사단 경리부가 관할하고 있던 부평연습장을 이관 받고, 여기에 더해 추가로 토지를 매수할 테니 예산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공문이다. 이때 일본 육군조병창이 제20사단으로부터 이관 받은 부평연습장 부지는 72만 8천여 평이라고 밝혔다. 인천육군조병창 전체 계획 부지인 117만 평 중 약 6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사실상 부평연습장이 인천육군조병창으로 용도 변경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 추가 매입 대상지로 신청된 토지는 부평연습장의 동방 약 24만 평, 북방 약 15만 평, 남방 약 4만 평이다.

이때 매입한 토지를 제외한 구역이 부평연습장 부지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평연습장의 정확한 경계와 ‘형상(形狀)’, 부지 선정 근거 등을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기존의 자료들을 참고해 유추해 볼 수는 있을 텐데, 우선 앞서 본 ‘조경영(朝經營) 203호’ 공문이 도움이 된다. 1923년도에 작성된 ‘조경영 203호’ 공문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용산 부대를 위해 용산에서 1일 행정(一日 行程)에 있는 부평 부근을 별도(別圖)와

같이 총독부에서 매수한 뒤 인도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니 인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소연습장 희망 구획은 도시(圖示)한 바와 같으나 이 중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그 일(一) 소부분(小部分)이라도 차제에 군용지로 편입시킨다고 하는 당(當) 군사령관과 제20사단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평 토지 매수 가격 등은 아직 조사 중이나, 대략 평당 20전(錢) 안팎이니 약 25만 평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도상(圖上) 주색(朱色)의 대부분에는 약 4, 5만 평의 국유 임야가 존재할 예정이어서 그 대부분을 군용지에 편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소연습장 부지에 대해 ‘부평 부근’이란 표현을 쓰는 한편, 예산에 맞춰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을 25만 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유 임야’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국유지를 포함해서 소연습장 건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1923년 시점의 임야 소유권을 확인하는 데에는 임야조사부가 참고가 된다. 1916년 무렵부터 1924년까지 진행된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물이다. 이 자료에는 ‘국유 사유 구분’란에 ‘국(國)’ 또는 ‘사(私)’가 표기돼 있고,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해당 인물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돼 있다. 흔히 임야조사사업 과정을 거친 후 사유림의 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1926년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을 통해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sup>13</sup> 이 때 명기된 임야의 소유권 문제는 현재까지도 법적 해석에 있어 다툼의 여지를 안고 있다.<sup>14</sup> 그만큼 임야조사부에 표시된 소유권은 향후 변동될 가능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23년 부평소연습장 부지를 매입하는 시

13 최병택, 「일제 하 임야조사사업의 시행목적과 성격」, 『한국문화』 37,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14 조상희, 「일제하 임야조사부에서의 연고자의 권리」, 『일감 부동산 법학』 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5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14010383100, 26. 陸軍建築事務規程附錄(陸軍建築設計要領改正案)/分割1(防衛省防衛研究所)」.

16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01007190100, 土地建造物管轄換の件(防衛省防衛研究所)」.

점에서 국유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임야조사부의 기록이 큰 오차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아직 임야조사사업이 진행 중이고, 소유자의 불복 신청이나 조선총독부의 변화된 삼림정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육군조병창이 건설된 지금의 산곡동 일대는 당시 임야조사부 중 국유림의 면적이 수십만 평에 달한다. ‘4, 5만 평의 국유 임야’를 포함시키기에 충분한 면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국유림의 포함 여부가 아니라 산지 지형이 형성된 곳에 연습장이 설치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군이 연습장 설치 규정에 ‘통척(通則)’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다.

일본군 군용 연습장의 규정은 일본 육군성에서 발간한 ‘육군건축사무규정부록(陸軍建築事務規程附錄)’<sup>15</sup>에 잘 나와 있다. 먼저 이 규정에는 ‘연습장(演習場)’을 ‘교육제장(教育諸場)’ 안에 분류해 놓았다. 같은 분류 안에 포함된 것으로는, 사격장, 연병장, 작업장, 비행장, 폭격장, 제설비 등이 있다. 연습장은 ‘사단 제부대(師團諸部隊)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본연습장(本演習場)과 소연습장(小演習場)으로 구분된다.

연습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위무지에 가능한 한 근접해 있어서 군대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토지가 광활하고 지형의 변화가 다양하며, 배수가 양호한 지역, 그리고 가급적 산간지를 선정하도록 ‘통척’에 규정해 두었다. 연습장 이외에 소연습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본연습장이 위무지(衛戍地)로부터 현저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군대의 이용이 불편할 때’다. 그런 상황에서 ‘위무지 근방에 보병 1연대를 기준으로 하는 소부대가 야외 연습을 행할 수 있는 소연습장을 다시 설비’한다고 하였다. 본연습장의 지리적 불편함을 고려해 소규모 훈련을 할 수 있는 연습장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소연습장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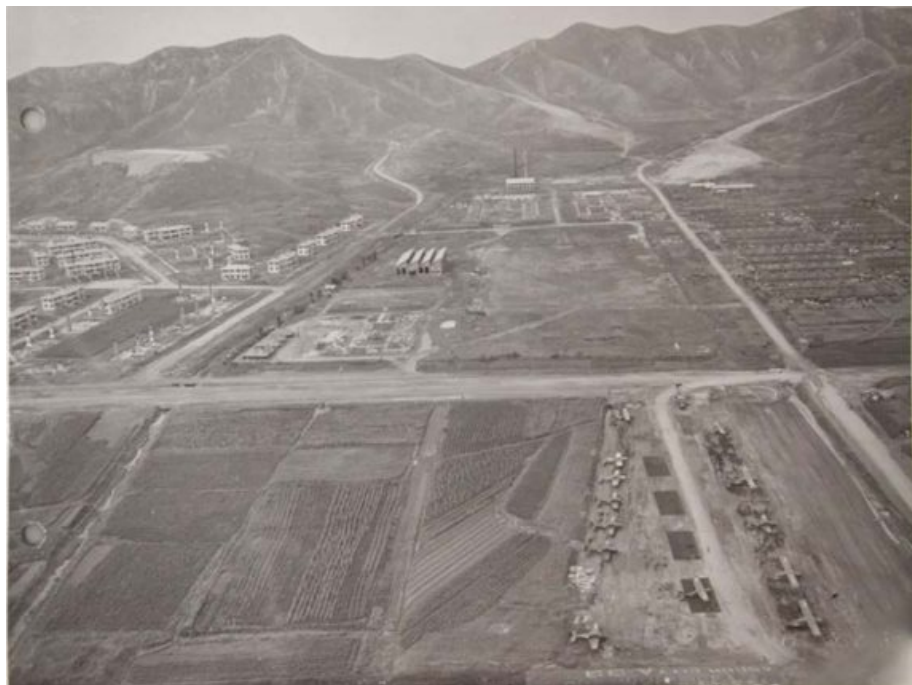
부평연습장에는 건조물도 설비되어 있었다. 이 건조물들은 ‘조선공창’ 신설이 결정된 직후인 1939년 10월 무렵에 육군조병창 재산으로 이관되었다.<sup>16</sup> 조병창에서 이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연습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역시 ‘육군건축사무규정부록’에 명시되어 있는데, 관측소, 감적소(監的所), 동적색인설비(動的索引設備) 등이다. 관측소는 철골 구조로 만든 전망대와 같은 것을 말하고, 감적소는 콘크리트나 벽돌로 제작한 2m 정도 높이의 관측용 구조물이며, 동적색인설비는 이동하는 표적류를 가리킨다.

부평연습장의 대략적인 경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39년 토지 이관 당시 추가 토지 매입 계획을 밝혀 놓아서 어느 정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거기다가 연습장이 대개 산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위치는 대략 장고개와 미군기지 사이, 다시 말해 현재 육군 보급단과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산곡동 일대로 파악된다.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가 서쪽 지역은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구역을 일본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해 1918년에 발행한 ‘1:50,000 조선지형도’ 안에서 찾아보면, 농경지인 곳은 거의 없고, 주로 왜송지(矮松地)나 황지(荒地)로 표시된 곳이다. 지형도에 사용된 기호는 일본 육지측량부에서 만든 『지형측도법식(地形測図法式)』에 설명이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황지’는 ‘토지의 비옥도에 상관없이, 개간하지 않았거나 개간했더라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토지이고, ‘왜송지’는 ‘왜송(矮松)이 무리를 이루어 자라는 토지’이다.<sup>17</sup> 말 뜻대로 이해하면 낮은 구릉 위에 작은 소나무들이 듽성듬성 자라고 있거나 잡초로 뒤덮여 있는 경관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지 안에 하천이 위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것이 산곡천이고,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지금의 북개된 굴포천이다.

부평연습장 추정 부지를 가운데에 두고 인천육군조병창 조성을 위해 추가로 매입한 토지의 위치를 맞춰 보면, 대략 동방 약 24만 평은 미군기지인 캠프 마켓의 동쪽 일부를 포함하면서 부평여자고등학교와 부평동아2단지아파트에 걸쳐 있는 지역이고, 북방 약 15만 평은 명신여자고등학교와 산곡고등학교를 잇는 선에서 보급단 부지와 만나는 지점 사이에 위치하며, 남방 약 4만 평은 백운역 일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인천육군조병창의 북쪽 경계

Sgt. Machon, 1952.08.30.~1952.08.30., Aerial view of the Real estate adjacent to the 79th Ordnance Battalion, 8th Army [미8군 제79병참대대],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가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09\_48\_00V0000\_001, 원문 P.1).

<sup>17</sup> 『地形測図法式』, 陸地測量部, 1900, 60~61쪽.

이 중에서 북방 약 15만 평의 토지는 1952년에 미군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인천육군조병창 조성 당시의 모습을 원형에 가깝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미 제79병참대대(79th Ord Bn) 인근과 활주로(Landing strips area)의 일부를 담고 있는 이 사진은 조병창이 현재의 원적로를 경계로 하여 조성됐다는 걸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부평연습장은 현재의 육군 보급단과 현대아파트 부지를 중심 구역으로 하여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천육군조병창이 등장하기 이전에 부평에는 이미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평연습장, 혹은 부평소연습장 등의 군사훈련장이 조성돼 주로 용산 주둔 부대의 훈련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부평연습장은 1922년에는 연합 훈련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고,<sup>18</sup> 1925년에는 부평에 헌병분주소(憲兵分駐所)를 설치할 정도로 상시적으로 활용되는 훈련장이었다. 연습이 있을 때마다 헌병들이 출장을 받고 와야 하기 때문에 경비를 절약시키기 위해서 헌병분주소를 설치했기 때문이다.<sup>19</sup>

예년에 의하여 금년의 육군기동연습도 불원간 부평광야를 중심으로 하고 예년에 비하여 더욱 대규모로 금년에는 제20사단이 연습을 할 계획이라는데 인천도 그 구역에 들어갈 모양이므로 차제(此際) 군대 보충상에 요(要)하는 물자는 인천에 구할 터인 바, 방금 부 당국에서는 조사중이라더라.<sup>20</sup>

소위 육군기동연습을 27일부터 내월(來月) 5일까지 부평광야를 중심으로 하여 열리는 동시 내월 3일에는 약 5천 명의 군인이 인천에서 일박하게 됨으로 일본사람의 집으로는 도저히 다 채우지 못한다. 하여 조선사람의 완만한 집은 모두 몇 명씩 명령덕으로 채우게 되어 일부 민간에 불평이 적지 않으며 또 평화로운 인천으로 하여 금 전쟁터를 이루게 할 터임으로 더욱 비난의 소리가 높다는데 그와 동시에 상공에 비행기도 뜬다더라.<sup>21</sup>

내(來) 11월 3일에는 제20사단 약 5천 명의 군대가 안온하던 인천시가에 헤매게 되며 비행기가 상공에 비상하리라 한다. 그리고 부평광야에는 예년에 의한 육군기동연습을 거행한다는데 금년은 전보다 일층 규모를 넓히어 그 구역으로는 인천까지 포함되었다 하며, 군대 연습시의 행로라고 부천군 신천리, 은고리, 안현리 등 순차로 수원까지 통하는 3등 도로를 부근 거주 농민으로 하여금 수선을 부당케 하였다. 그 령지 않아도 매년 차(此) 구역 재주 농민들은 미숙한 농작물이 무참하게도 날뛰는 말뚝 아래 결단남을 원통히 여기는 터이며 ‘마른 하늘에 벼락’이란 격으로 순박하던 농촌은 문득 인심이 불안할 뿐아니라 심하여서는 산모의 낙태하는 일까지 있었

<sup>18</sup> 『매일신보』, 1922. 4. 12.

<sup>19</sup> 『조선일보』, 1925. 5. 27.

<sup>20</sup> 『동아일보』, 1923. 10. 2.

<sup>21</sup> 『동아일보』, 1923. 10. 30.



다 한다. 일년의 생계와 일가의 산아가 뜻하지 않은 불행을 피함도 적년의 숙원이었던 하물며 금년에는 백성을 끌어내어 행군도로 수선을 관력으로 부담케 하며 관도를 넓히어 인천으로 하여금 한 때 반만군대(半萬軍隊)의 숙고 시정 등에 자못 살풍(殺風)이 떠돌아 민민의 불평을 기(起)케 함은 당국의 일고려처(一考慮處)가 아닐는지.<sup>22</sup>

‘통척’에는 훈련 중 ‘부락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근 민가에 끼치는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위의 자료만 보더라도 훈련 중에 민가를 강제로 수용해 군인들의 숙소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인을 동원해 군부대가 이동하는 도로를 정비시키고 있다. 게다가 행군 시 농토를 무단으로 지나가는 탓에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하고, 심지어는 산모가 낙태하는 일까지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부평광야’라고 표현한 곳에서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부평지역에서 벌어졌을 상황이 예상되는 장면이다. 부평연습장에서의 훈련은 인천육군조병창 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1939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용산 보병대대에서는 금일까지 사흘동안 부평광야(富平廣野)에서 실탄 사격 연습을 행한다고, 공연한 총소리에 소동되는 것은 순후한 농촌.<sup>23</sup>

지난 7월 말경에 부평연습장에서 보병포(步兵砲)와 산포(山砲)의 사격 연습이 있었는데 당시 산포사격에 불발탄 한 개가 떨어져서 사격 부대에서는 백방으로 수색을 하였으나 종시 발견되지 않았다 한다. 그래서 그 불발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떨어진 그 구역에 표지를 하여 놓고 지방 인민에게 그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천경찰서에서는 경고를 하였다 하며 혹은 표지를 하여 놓은 그 구역 밖에 떨어졌는지도 모른 즉, 만일 발견되는 때는 발견인은 그 불발탄이 떨어진 그대로 두고 그 연습장 감시인 부천군 부내면 산곡리 206번지 복전구이(福田久二)에게로 통지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sup>24</sup>

30일 정오부터 10월 2일 정오에 이르기까지 용산 78연대에서는 경인선 부평역 사격장에서 실탄이 든 각종 전구(戰具)를 사용하며 연습하리라는데 일반 주민과 통행인은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하며 당일은 소형 탱크와 경전차 등이 참가키로 되어 일대 장관을 이루리라 한다.<sup>25</sup>

제1기의 맹훈련을 마친 특별지원병은 의기발자한 바 많아 제국군인으로 장래 활

<sup>22</sup> 『동아일보』, 1923. 10. 31.

<sup>23</sup> 『동아일보』, 1924. 4. 30.

<sup>24</sup> 『조선일보』, 1933. 8. 24.

<sup>25</sup> 『조선일보』, 1936. 10. 2.

약을 약속코 있거니와 지난번 거행한 서촌부대(西村部隊) 부평의 야외연습에서 꽃을 피인 감격의 에피소드가 있다.

이는 지난달 중순 일주일간에 궁하여 거행된 맹연습에 특별지원병 중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출신의 박병열(21) 군도 있었는데 만사 실전을 기준하여 연습은 상당히 격렬하게 되어 박군은 모든 피로를 억제코 칙후와 전영을 지원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로가 정도를 벗어났음인지 연습을 마치고 귀영하여 목욕을 하고 나와 그만 반내(斑內)에서 졸도되어 인사불성에 이르러 즉시 반장급 전우의 손으로 입원 응급수당을 받았다. 입원중에는 중대장도 달려가 간호한 결과 현재는 건강도 회복되고 하루라도 빨리 귀대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sup>26</sup>

부평연습장은 1년에 한 차례 연합기동훈련과 같은 대규모 훈련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연중 훈련이 없는 기간도 꽤 있었을 텐데 부천군에서 그런 기간 동안 토지를 불하 받아 방축(放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시도하기도 했다.<sup>27</sup> 부평연습장은 이런 시기를 거쳐 1939년 인천육군조병창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했다.

## 2. 인천육군조병창의 건설과 부평지역의 변화

인천육군조병창 건립 목적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 1939년 8월 10일에 작성된 병기국(兵器局)의 설명 자료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 육군조병창 장관 고스다(小須田勝造)의 1939년 8월 9일자 토지 매입 예산 요청 공문과 이에 대한 육군 대신의 지령을 묶어 편철한 ‘밀수(密受) 제1371호’ 문건에 포함돼 있다.<sup>28</sup> 이 자료는 ‘조선에서의 제조소 증설의 설명 개요’란 제목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선(滿鮮) 북지(北支)에 수송의 신속, 안전과 조선 병기 공업력의 비약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 경성 근방에 총기류의 생산을 주임무로 하는 일(一) 제조소를 설치한다. 본 제조소는 일단 고쿠라 공창장(小倉工廠長)의 예하에 두지만 소화 15년도[1940년: 필자 주]에는 평양병기제조소와 함께 새로 설립될 조선공창(朝鮮工廠)에 속하도록 한다.

<sup>26</sup> 『동아일보』, 1939. 5. 3.

<sup>27</sup> 『조선일보』, 1937. 3. 10.

<sup>28</sup>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01004619300, 土地買収に関する件(防衛省防衛研究所)』.

### 1. 설비능력

일(一). 제조소의 설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소총 월제(月製) 2만 정

경기관총 월제(月製) 100정

중기관총 월제(月製) 100정
총검 월제(月製) 2만 정
군도(軍刀) 월제(月製) 1천 정

## 2. 부지는 약 백만 평

단, 장래 공창(工廠) 본부 및 실포류(實包類)의 생산을 주임무로 하는 일(一) 제조소를 본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성과 가까운 곳에 건설할 제조소는 총기류와 실포류, 즉 총기류에 사용되는 실탄을 주로 생산할 예정이었다. 제조소는 건설 초기에는 고쿠라 공창(小倉工廠)의 관리 하에 두지만, 후에 조선공창이 완성되면 평양제조소를 포함해 모두 이곳에 이관되도록 하였다. 조선공창 내에는 공창 본부와 두 개의 제조소를 설립한다는 구상이었다.

고쿠라 공창은 일본 육군조병창 예하 공창 중 하나로 후쿠오카 현(福岡県) 고쿠라 시(小倉市)에 있었다. 일본 육군조병창은 194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 내에 도쿄(東京) 제1, 도쿄 제2, 사가미(相模),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고쿠라(小倉) 조병창 등이 있었고, 해외에 인천육군조병창과 중국 봉천의 남만(南滿) 조병창이 설치돼 있었다.<sup>29</sup> 인천육군조병창은 조선 내에 설치된 유일한 조병창이었다.

일본 육군조병창 장관 고스다는 1939년 8월 무렵부터 토지 매수 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선공창 건립 사업에 착수했다. 첫 작업은 제조소를 신설하기 위해 공사감독사무소를 현장에 설치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고쿠라 공창에서 감독 요원을 파견시켜야 했는데, 이들이 머물러 있을 숙소를 건설하는 일이 시급했다. 육군조병창 장관이 숙소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 숙소 마련을 위한 임대료 지출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1939년 9월 30일이다.<sup>30</sup> 앞서 9월 1일에 토지 매수 예산에 대한 허가가 승인된 후 한 달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때부터 시작된 작업은 개창식까지 약 1년 6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치게 된다.

약 1년 반 가량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인들이 대거 공사장에 투입돼 강제로 일을 하였다. 이 무렵 부평지역의 공사장은 인천육군조병창 부지만은 아니었다. 부평 각처에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줄을 이었다. ‘건축자재 운반에 동원된 5백 달구지의 대오도 정연한 진군’<sup>31</sup>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평지역 일대는 거대한 토목공사장이었다.

김포군에서는 각 면에 있는 근로보국단을 지난 소화 13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양서면 해리 토목공사장으로 총출동을 시키어 보국작업에 봉공케

하였던 바, 이제 그 출동 인원을 보건대 1회에 1백 53명씩으로, 10회에 공하여 시로 6만 8천 8백 50명이라는 큰 숫자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적에 이르러서도 예기 이상에 호결과를 보였다 한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오는 6월 1일부터 명년 6월까지 15개월 동안 부평역전에 있는 육군 관계 토목공사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회에 백 명씩 출동기로 되었다 한다.<sup>32</sup>

인천육군조병창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작업장에 동원시키기 위해 방침이 마련되기도 했다. 1944년 3월 7일, 일본정부는 학도동원실시요강을 결정해 발표했다.<sup>33</sup> 이후 곧바로 문부성에서 학교별 학도 동원 기준을 작성하고 학도 동원 본부를 설치해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학도 동원은 학교와 공장을 연결해 학생들을 작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sup>34</sup> 공장이나 토목공사장은 물론, 광산에도 동원 계획이 세워지고 초등학교들도 그 대상이 되었다.<sup>35</sup>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제1차 학도 동원 작업장으로 선정된 곳이 인천육군조병창이었다.<sup>36</sup> 이에 따라 1944년 5월 8일, 인천중학교, 인천상업학교, 인천공업학교, 인천고등여학교, 인천소화고등학교, 경성공업학교 학생 360여 명이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입창식을 가졌다. 이들 중 일부는 조병창 내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 일과에 맞춰 병기 생산 작업에 투입됐다. 이들이 머물던 숙소를 아오바료(青葉寮)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8일 입창식을 마치고 경성공업생 44명은 바로 동 조병창 숙사인 아오바료(青葉寮)에 들고 인천중학, 인천공업, 인천상업생은 통근으로서 모두 9일 아침부터 통원 동원의 공장생활이 시작되었다. 소화고녀, 인천고녀 생도(도합 120명)만은 일감을 받아다가 학교에서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남학도들의 하루 생활은 규율 있는 일과 밑에 행하여 지는 것이다. 이들의 일과표를 보면 오전 5시 50분 기상 점호, 그리고 체조를 하고 동 오전 6시 10분 아침을 먹고 7시 반부터 각과로 배치되어 작업을 개시한다. 그리하여 오후 5시 반이면 그날 일을 마치고 오후 6시에 입욕을 하고 저녁을 먹은 후는 아오바료에 들어 훈화를 듣고 공부를 하고 밤 10시 반에 취침, 다음날을 위하여 밤 휴식에 든다.<sup>37</sup>

인천육군조병창의 개창식은 육군성 전비과(戰備課) 소속 곤도(近藤) 소좌가 보고서에 언급해 두었다. 그는 1941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조선 각지의 공장들을 돌아본 후 「조선시찰보고(朝鮮視察報告)」<sup>38</sup>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곤도는 1941년 5월 5일에 인천육군조병창의 개창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총검공장과 견습공 연습공장만 완성된 상태라고 설명을 덧붙

<sup>29</sup>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12121068000, 官衙(技術研究所)・官衙(造兵廠)・官衙(兵器補給廠)・官衙(航空技術研究所)・官衙(航空廠航空補給廠)・官衙(連隊区司令部兵事部)(防衛省防衛研究所)」.

<sup>30</sup>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01007190800, 宿舍借上に関する件(防衛省防衛研究所)」.

<sup>31</sup> 『동아일보』, 1940. 5. 12.

<sup>32</sup> 『매일신보』, 1940. 5. 25.

<sup>33</sup> 『매일신보』, 1944. 3. 9.

<sup>34</sup> 『매일신보』, 1944. 5. 7.

<sup>35</sup> 『매일신보』, 1944. 5. 24.

<sup>36</sup> 『매일신보』, 1944. 5. 7.

<sup>37</sup> 『매일신보』, 1944. 5. 10.

<sup>38</sup>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13021433900, 第1 京仁地区/5 日本車輛仁川工場, 6 仁川陸軍造兵廠(防衛省防衛研究所)」.

였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1940년 12월에 인천육군조병창은 조선군에 편성되고 있다.<sup>39</sup> 개창식은 1941년에 있었으나 편제상 인천육군조병창은 1940년 말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있던 셈이다.

개창식을 연 이후에도 조병창 건설 공사는 지지부진했던 모양이다. 1940년 6월 16일에 작성된 육군성의 「조선군수산업지도요령(결정안)」<sup>40</sup>에는 ‘중앙제조수리 및 보급기관의 추진강화’란 항목에 ‘조선조병창 인천제조소의 건설을 촉진한다’는 방침이 기재되어 있다. 육군성이 바라보기에든 조선의 조병창 건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평양병기보급창을 언급하면서 ‘경인방면(상황에 따라 해주 부근)에 병기보급창 설치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의 건설 계획이 아직 이 시기까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인천육군조병창이 부평지역에 건설된 건, 조선 군수산업의 재배치 문제와 연결돼 있다. 그동안 조선에는 일본군이 운용하는 병참 관련 시설이 주로 평양지역에 몰려 있었다. 193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육군조병창 평양병기제조소, 육군병기본창 평양출장소, 육군항공본창 평양항공지창, 해군연료창 평양광업부 등이 대표적이다.<sup>41</sup> 「조선군수산업지도요령(결정안)」에서는 조선 북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군수산업 시설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보여주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중공업 : 경성, 인천, 평양, 신의주를 포함하는 서선지대(西鮮地帶)

경공업 : 중부이남, 남선지구(南鮮地區)

이러한 방침 아래에서 인천육군조병창은 조병창 본부, 제1제조소, 평양제조소, 경성감독반, 부산감독반, 성진감독반으로 구성된 체제를 완성하며 군수 업무를 담당해 갔다.<sup>42</sup>

[표 1] 인천육군조병창의 편제 및 업무

명칭	주요 업무	당시 위치
본부	-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
제1제조소	소총, 총검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
평양제조소	탄환, 항공탄약, 차량 기구	평안남도 평양부
경성감독반	감독 검사	경성부 광화문통 경기도청 내
부산감독반	감독 검사	경상남도 부산부 수정가(水晶街)
성진감독반	감독 검사	함경북도 성진부 쌍포정(雙浦町) 일본고주파공업 성진공장 내

39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13020876000, 朝鮮軍管区部隊(防衛省防衛研究所)」.

40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13120913800, 第2章 中央製造修理及補給機關ノ推進強化(防衛省防衛研究所)」.

41 『동아일보』, 1938. 6. 23.

42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15120162600, 陸軍兵器行政本部直轄出張所並造兵部常置員現況表等(防衛省防衛研究所)」.

43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14010934900, 満918作機第36号/造兵廠現有設備能力概見表 昭和17年11月 陸軍兵器行政本部(防衛省防衛研究所)」.

44 『삶의 터전 부평시장』 1, 부평역사박물관, 2020, 87쪽.

45 「인천부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비 계속비 설정의 건 인천부회 회의록」, 1941.(국가기록원 소장본).

조병창 시설의 최종 완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늦어도 1940년 말부터는 병기 생산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의 주력 제품은 소총과 총검이었다. 1942년 3월 기준 제1제조소의 총기 생산 능력은 2,000정, 수리 능력은 8,000정이었다. 총검의 경우 9,000개를 제작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인천육군조병창이 관할하는 평양제조소의 주요 생산품은 탄환이었다. 1942년 3월 기준 소구경 탄환 4만 6천 개, 중구경 탄환 4천 개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인천육군조병창은 탄환의 경우 민간 공장에서 별도로 납품을 받기도 했다.<sup>43</sup> 1942년 4월 15일에는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이 설립됐다. 이곳에서는 병기를 포함해 전차, 자동차 등을 생산했다.

1943년 10월, 군수회사법이 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군수회사로 지정되면 조선총독부가 관리하는 생산책임자가 지목되어 군수물자의 생산을 담당하게 됐다. 조선총독부가 사실상 기업 운영에 개입,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였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육군조병창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부평에는 인천육군조병창 설립 계획이 본격적으로 구상되기 직전부터 일본 대자본에 기반한 기업들의 진출이 조금씩 속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과 이것의 후신인 미쓰비시제강(株) 인천제작소, 조선베아링공장, 도쿄자동차공업, 도쿄제강, 디젤자동차공업, 국산자동차, 오사카섬유공장, 부평요업, 일본고주파공업, 경성공작, 고요(光洋)정공 등이 이때 부평에 들어온 공장들이다.

군사훈련장으로 주목 받던 부평지역이 1930년대 말 인천육군조병창의 등장과 함께 ‘공도(工都)’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건, 1937년의 인천시가지계획령 공포, 1938년 경인메트로폴리탄시티 구상과 미나미(南次郎) 총독의 조선 대륙 병참 기지화 방침 발표, 1939년 경인시가지계획의 결정 등, 부평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정책들과 연관이 있다. 1938년, 경기도는 부평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부평을 한가운데에 두고 경성과 인천을 한데 묶는 경인메트로폴리탄시티 건설 계획을 추진하기도 한다. 두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통합해 전시 경영을 위한 합리성을 추구하자는 의도였다.

1941년부터는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昭和土地區劃定理事業)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광복으로 인해 완결을 보지 못했는데, 1960년대에 ‘부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어져 1970년도에 비로소 끝을 맺었다.<sup>44</sup> 이 사업 구획은 현재 부평시장 일대에 해당한다. 인천육군조병창과 인접해 있는 구역이다.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는 경인시가지계획 하의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결정된 구역이었다. 이곳을 사업 구획으로 선정한 이유는 앞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부평공업용지구역’이나 ‘육군 공창(工廠)용 건축물’, ‘현업종인 육군용지’ 등과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sup>45</sup> 인천육군조병창 등이 주위에 들어설 예정이니 이러한 대공



장들이 들어서게 되면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 등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 대비해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곳이 '상공업자의 가옥 건축 부지'로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인천육군조병창은 1944년 송도육군공제병원(松島陸軍共濟病院) 건설 업무를 맡기도 했다.<sup>46</sup> 이 병원은 '선만(鮮滿) 재주(在駐) 육군공제조합원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송도임해토지주택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송도관광주식회사 소유의 시설 등을 매수해 건설할 예정이었다.<sup>4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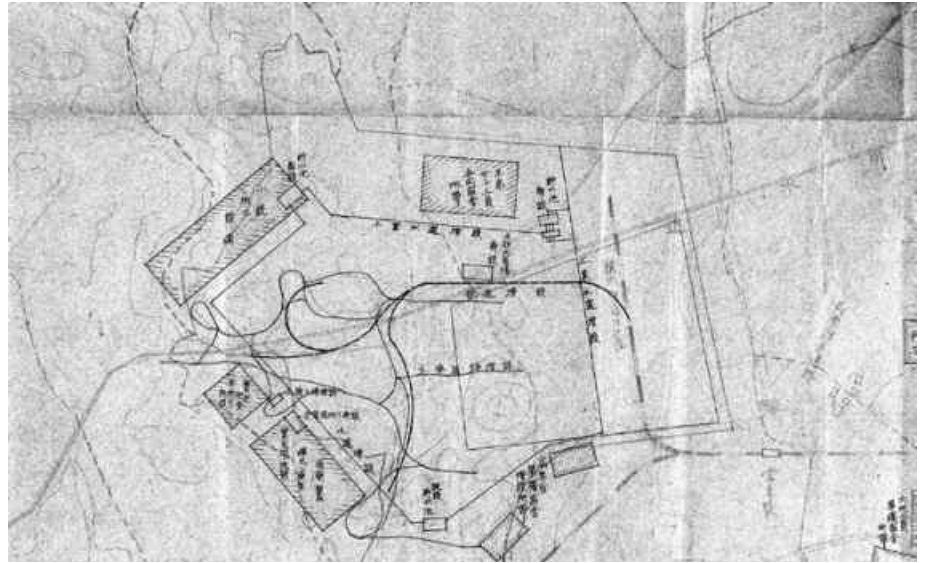
인천육군조병창은 1945년이 되면서 증설 계획을 세운다. 그 내용은 '실포소총이설분산방호전개도(実包小銃移設分散防護展開図)'<sup>48</sup>에 잘 나와 있다. 이 지도에 설명되어 있는 시설 정비 계획을 살펴보면, '내지공원(内地工員) 단독숙사 지대'가 남부역 인근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에 각각 한 곳씩 지정되어 있고, 현재의 보급단 자리에는 '반도(半島) 여자공원(女子工員) 합동숙사 지대'가 표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미 제79병참대대(79th Ord Bn) 인근을 촬영한 사진 속 건물들이 위치한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경인선 철도와 연결된 철도 증설 계획도 밝혀 놓았다. 현재 남아 있는 철도 지선과 일치한다. 신촌 일대에는 '고등관(高等官) 단독숙사 증설 지대'가 표기되어 있다. 두 구역으로 나누어 조성 계획이 세워졌다.

이 지도에서 주목할 곳은 '반지하 설비', 혹은 '지하 설비'라고 표기해 놓은 곳들이다. 함봉산 일대에는 '실포(實包) 지금(地金) 반지하 설비'와 '전약(塡藥) 제품, 탄환 실포(實包) 지하시설' 두 구역이 기재되어 있고, 부근에 '와사(瓦斯) 공장 신설', '수전장(受電場) 지하설비'란 표기도 보인다. 장고개 북쪽 지역, 즉 지금의 보급단 내에는 '소총 지하 설비' 구역이 명기되었다. 모두 산의 중턱에 그 위치가 표시되었다. 함봉산 구역은 그동안 '부평 토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곳으로 추정되며, '소총 지하 설비'는 보급단 안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땅굴'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밖에 도로나 수도의 증설 노선이 적혀 있고, 희망촌 일대에는 '회계(會計) 분산(分散) 창고 지대'란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육군조병창이 이러한 증설 계획을 세운 것은 이른바 '선내(鮮内) 자급자전(自給自戰)'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병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식량 문제에도 미쳐서 경작이나 축산 등의 방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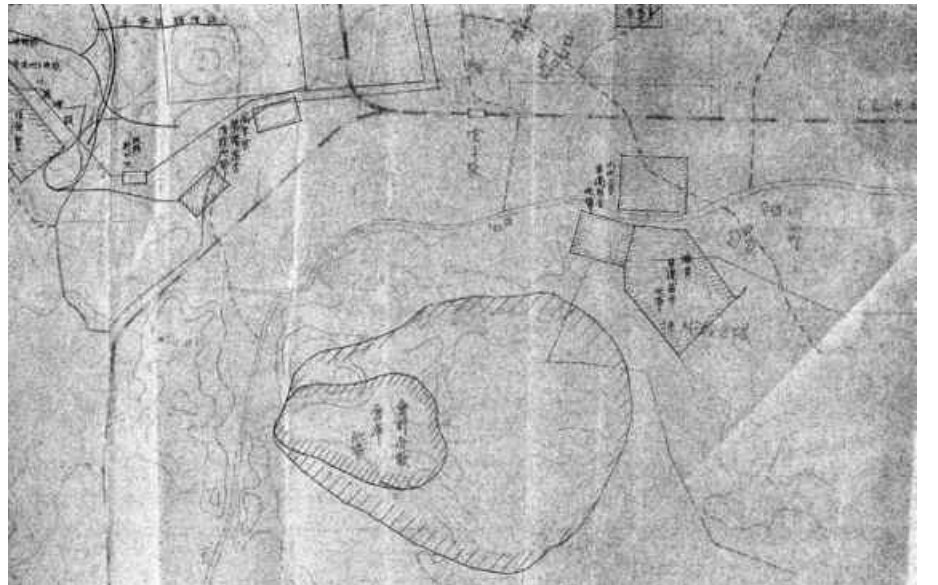
광복 직후 인천육군조병창은 한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제1공장장을 맡았던 조선인 공장장이 부평치안대 대장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 제1공장장 ○○○ 소좌(반도 출신)는 정세가 급변한 이래 지구의 특수성에서 군민으로부터 요망되는 소속 창장의 인가를 얻어 부평지구



[그림 4] '부평토굴'에 해당하는 '반지하 설비'와 '지하 설비'

(출처: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Ref.C14010849300, 昭和20年3月隷下部隊長会同の際状況報告 昭和20年3月1日 仁川陸軍造兵廠(3)(防衛省防衛研究所).』)



[그림 5] 희망촌에 있던 '회계(會計) 분산(分散) 창고 지대'

(출처: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Ref.C14010849300, 昭和20年3月隷下部隊長会同の際状況報告 昭和20年3月1日 仁川陸軍造兵廠(3)(防衛省防衛研究所).』)

<sup>46</sup>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Ref.C13070032600, 会第1754号 松島土地買収に関する件通牒 昭和19年11月29日(防衛省防衛研究所).』

<sup>47</sup>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Ref.C13070032800, 松島買収並使用に関する覚書(防衛省防衛研究所).』

<sup>48</sup>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Ref.C14010849300, 昭和20年3月隷下部隊長会同の際状況報告 昭和20年3月1日 仁川陸軍造兵廠(3)(防衛省防衛研究所).』

치안대와 협력, 창(廠) 측 반도인 공원(工員)에 대한 지도에 전념하였던 바, 8월 26일 부평치안대의 요청에 의해 다시 현직 부평치안대장에 취임하였다(소속 창장(廠長)이 묵인하였다).<sup>49</sup>

인천육군조병창은 조선군의 직할부대이면서 일본의 병기행정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임무를 부여받은 단일 부대였다. 그만큼 일본군 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광복 후 20일 정도가 지난 1945년 9월 8일 인천항을 통해 상륙한 미군이 인천육군조병창을 접수하며 이때부터 이곳은 미군기지인 애스컴 시티로 변모해가기 시작한다.

### 3. 광복과 미군기지의 건설

미군은 1945년 9월 8일, 미 제24군단이 작전명 ‘베이커-포티(Baker Forty)’에 따라 한반도에 상륙했다.<sup>50</sup> 한반도 점령 임무는 본래 미 제10군에 부여되어 있었지만, 미 제24군단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신속히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명령이 수정되었다. ‘베이커-포티’ 작전은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각지를 점령해 군사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곧바로 각 지역에 전투부대를 보내 점령 작업을 완료했다. 당시 인천 점령 책임을 맡았던 부대가 미 제24군수지원사령부(ASCOM 24)였다. 이어 1945년 9월 11일, 제2임시군정팀이 들어오고, 같은 해 11월 15일, 제39군정중대로 교체되며 본격적인 군정이 시작됐다.

미 제24군수지원사령부는 부평에 있던 인천육군조병창을 점령해 그대로 군수기지로 활용했다. 그리고 그 아래 병기기지창(OBD: Ordnance Base Depot) 등을 배치했다. 기지가 구축되고 난 뒤 일본 오키나와에서 군수 물자들이 부평으로 운송되어 오기 시작했다. 미군은 이곳을 곧 애스컴 시티(ASCOM City)로 명명했다.

현재 남아 있는 캠프 마켓이 애스컴 시티의 메인 구역이었고, 그것은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캠프 애스컴(Camp ASCOM)이란 용어도 함께 사용되었다. 이곳의 미군 군사우편주소는 ‘APO 901’, ‘APO 20’ 등이었다.

인천육군조병창에 있던 시설들은 1973년 부평에 있던 미군기지가 축소되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캠프 마켓 내에 일부 건물들만 잔존해 있는 상태이다. 캠프 마켓에 있는 건축물은 미국이 발행하는 『기지구조보고서(Base Structure Report)』에 의하면 모두 106개로 확인된다. 문화재청에서 2011년에 조사한 바에

<sup>49</sup>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13070014400, 治安情報(12号) 3. 富平地区(憲兵報)(防衛省防衛研究所).』

<sup>50</sup> 부평미군기지의 건설과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김현석,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와 기지 ‘반환’의 성격」, 『박물관지』 16, 인하대학교박물관, 2014.; 김현석, 「부평미군기지의 역사 : 캠프 마켓과 애스컴 시티」, 『헬로우 애스컴 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 부평역사박물관, 2020.)를 주로 인용하였다.

따르면, 이들 건물 중 인천육군조병창 때의 건물일 가능성이 큰 것, 즉 1952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은 모두 34개다. 이들 건물들은 대개 조적조로 구성되어 있다.

미군이 초기에 사용한 조병창 시설 중 눈에 띄는 것이 ‘1780’ 건물이다. 조적조로 된 단층짜리 건물인데, 일본군은 이곳을 병원으로 사용했고, 미군 역시 일본군이 남겨 놓고 간 의료 시설들을 사용해 그대로 병원 건물로 활용했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원형에 비해 많이 파손된 상태이다. 1946년 4월 27일, 이 건물에 미 제382 위수병원(382nd Station Hospital)이 들어왔다. 400병상 규모의 병원이었다.<sup>51</sup> 미 제382 위수병원은 오키나와에 있다가 부산을 거쳐 부평으로 이동했다. 이 병원이 들어오기 전에 애스컴에는 미 제227 위수병원(227th Station Hospital)이 있었다. 미 제382 위수병원의 도착과 동시에 임무를 인계하고 해산했다. 미군은 일본군이 사용하던 의료 시설 일부를 그대로 사용했다.

미 제382 위수병원은 1949년 6월에 해산했다. 미군이 이 건물에서 나간 후 우리나라 육군제1병원이 건물을 차지했다. 1948년 5월 1일에 서울에서 창설된 군병원이었다. 국방부의 전신인 통위부가 관할하던 최초의 군 전담 병원이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상이군인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관련 인사들이 자주 방문하며 주목을 받던 곳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직후까지 부평에 있다가 후에 대구로 이동하였다.

미 제382 위수병원의 역할은 위수 지역 내의 군인들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지만, 한국군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일종의 군의료 교육기관의 임무도 맡았던 셈이다. 1949년 8월에 우리 군의 군의학교가 설립되는데,<sup>52</sup> 그 이전에 간호장교 후보생 등이 교육을 받았던 곳도 이 병원이었다.<sup>53</sup>

이 병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은 깊다. 무엇보다 인천육군조병창 내에서 운용되던 병원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병창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놓여 있었다. 특히 10대의 어린 아이들의 경우가 더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병창 병원은 부상을 당한 조선인 노동자들이 수없이 들락거렸던 장소이기도 하다.

2013년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한 주한미군 출신 퇴역 군인은 1968년 3월부터 1969년 3월까지 애스컴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건물이 일본 육군이 있던 시절 본부 건물로 활용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sup>54</sup> 아직 인천육군조병창 본부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들의 정확한 위치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미 제382 위수병원의 경우 미군이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본부와 병원 건물이 한 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별도의 건물로 운용됐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 퇴역 군인은 조병창 본부였던 이 건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으

<sup>51</sup> 382 위수병원의 연혁에 대해서는, Report of Medical Department Activities(Headquarters 382nd Station Hospital APO 901, 1947. 4. 29.), Final Historical Report, 1 January 1949 to 22 June 1949(HEADQUARTERS 382ND STATION HOSPITAL APO 235 UNIT 1, 1949. 6. 22.) 등을 참고하였다.

<sup>52</sup>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https://army.mil.kr).

<sup>53</sup> 제1육군병원과 간호장교 후보생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6.25전쟁 여군 참전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288-297쪽을 참고하였다.

<sup>54</sup> 김현석,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와 기지 ‘반환’의 성격」, 『박물관지』 16, 인하대학교박물관, 2013.



로 알고 있었다.

1780 건물은 본래 하얀색 외벽의 2층짜리 건물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 제55 병참창(55th Quartermaster Depot) 장교 클럽과 독신 장교 숙소(BOQ)로 바뀌었다.

애스컴 시티에 위치한 미 제836부대에 간호장교 교육대가 설치된 건 1948년 8월 27일이었다. 제1기 간호장교 후보생들은 이곳에서 군사훈련 등 제반 교육을 받고, 미 제382 위수병원에서 미군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의 업무를 도와주며 실무 교육을 받았다. 4기와 5기 후보생들은 군의학교로 옮겨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1949년 8월에는 병기학교가 설립되고, 1950년 4월에는 육군위생재료창이 설치되는 등 부평은 건군 초기 각 부대들이 창설돼 자리를 잡아가는 군사 도시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후 곧바로 철수를 시작했다. 1948년 9월부터 진행된 철수 작업은 1949년 6월에 완료됐다. 500여 명의 주한미군 군사고문단만 한국에 남았다.<sup>55</sup> 그 중 60여 명이 애스컴 시티에 머물렀다.<sup>56</sup>

1951년 봄에 애스컴 시티는 다시 미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애스컴 시티는 미 육군지원사령부(Army Support Command)의 집합처가 됐다. 천막을 쳐서 장비와 보급품들을 저장했고, 켄셋 막사와 같은 임시 구조물들도 이 시기에 다수 건설했다. 미 제195 병기중대(195th Ordnance Company), 미 제330 병기중대(330th Ordnance Company), 미 제74 병기대대(74th Ordnance Battalion) 등, 부대들이 차례로 애스컴 시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미 해병대 제1사단(1st Marine Division)을 지원하던 미 해병대 지원사령부(Marine Support Command)가 애스컴 시티의 메인 구역에 들어왔다. 인천 보충대(Inchon Replacement Center)도 이 무렵 부평으로 이전했다. 인천 보충대는 본래 인천항 근처에 있었는데, 부평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명칭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인천 보충대가 있던 자리에는 1955년 6월, 미 제121 후송병원(121st Evacuation Hospital)이 배치됐고, 1955년 11월, 미 제6 의무창(6th Medical Depot)이 설치됐다.

미 해병대 지원사령부의 뒤를 이어 1955년 3월에 미 제443 병참기지창이 같은 장소로 이동해 왔다. 그러나 곧 1955년 3월에 미 제55 병참창(55th Quartermaster Depot)으로 교체됐고, 동시에 미 제181 통신중대 건설도 시작돼 6월과 7월에 걸쳐 이동해 왔다.

미 제55 병참창이 애스컴 시티로 이동해 온 것은 병참 업무를 애스컴 시티에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각 부대들이 재배치되면서 미 제55 병참창에 소속되며

애스컴 시티에 정착했다. 미 제55 병참창은 미 제295·293·130·508·540·564·505·537·539 병참중대 등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받으면서 애스컴 시티에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1955년에는 애스컴 시티 지역사령부(ASCOM City Area Command)가 설립됐다. 이어서 10월 11일에는 애스컴 시티 예하 지역사령부(Sub-Area Command)가 설립됐다. 1970년대 애스컴 시티가 해체되기 이전까지 부평미군기지의 기본 골격이 이때 완성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구축된 부평의 미군기지를 ‘부평지구사령부’, ‘부평기지사령부’, ‘애스컴지구사령부’ 등으로 불렀고, 부평의 인근 주민들은 ‘애스컴 데포(Depot)’, ‘55부대’, ‘8057부대’ 등으로 부르곤 했다. ‘55부대’는 미 제55 병참창, 즉 애스컴 시티의 메인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지금의 캠프마켓 일대다. ‘8057부대’는 현재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다. 역시 미 제8057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애스컴 시티 지역사령부가 구축되면서 1955년과 1956년을 거치며 아래의 부대들이 속속 배치되어 갔다.

1 재무출납부(1st Finance Disbursing Section), 55 병참창(55th Quartermaster Depot), 70 수송대대(70th Transportaion Battalion), 74 병기대대(74th Ordnance Battalion), 6 의무보급창(6th Medical Depot), 121 후송병원(121st Evacuation Hospital), 181 통신중대(181st Signal Company(Depot)), 185 공병대대(185th Engineer Battalion), 304 통신대대(304th Signal Battalion), 565 공병대대(565th Engineer Battalion), 630 공병중대(630th Engineer Company), 8057부대(8057th AU), 인천 보충대(Inchon Replacement Depot), 728 헌병대 D중대(Company D, 728th Military Police Battalion), 68 방공포대대(68th Antiaircraft Artillery Gun Battalion), 8216 부대화학창(8216th AU Chemical Depot)

그 후 애스컴이 해체되는 1970년대 초까지 다음의 부대들이 부평을 거쳐갔다.

21 재무중대(21st Finance Company), 249 헌병과견대(249th MP Detachment), 503 헌병중대(503rd MP Co), 30 병기중대(30th Ordnance Co), 195 병기중대(195th Ordnance Co), 330 병기중대(330th Ordnance Co), 182 병기과견대(182nd Ordnance Det), 44 공병대(44th Engineer Bn), 37 정비대대(37th Maintenance Co), 335 정비대대(335th Maintenance Bn), 512 중장비중대(512th Heavy Equipment Maintenance Co), 505 병기과견대(505 Ordnance Det)

<sup>55</sup>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47~50 쪽.

<sup>56</sup>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62, p.51.



1966년, 미 육군 애스컴 지구 제20 일반지원단이 애스컴 지구사령부(the US Army ASCOM District Command) 자산을 활용해 편성됐다. 이때의 조치는 미 육군 제8군 사령부 일반명령 제159호(1965. 9. 27.)와 일반명령 제160호(1965. 9. 29.)에 의한 코스타 2(COSTA II)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결과였다.

한편, 현재의 부영공원 자리는 한국전쟁 중 반공포로수용소가 있던 곳으로 유명하다. 제10 부평포로수용소가 있었다. 이곳은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조치가 내려졌을 때 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수용된 포로들이 탈출하면서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했다.

부평 포로수용소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약 1시간 20분간에 걸쳐 북한 출신 반공포로 8백여 명이 태극기와 유엔기를 들고 통일 없는 휴전 반대와 반공포로 즉시 석방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수용소 내를 시위하는 것을 유엔 경비원들이 극력 제지하였으나 불응하여 부득이 최루탄을 사용하여 2명의 경상자를 낸 후 무사히 진압하였다는데 동 수용소 중군목사 김연호 씨의 말에 의하면 전기 반공포로들은 대개가 평안남북도 혹은 황해도 출신으로 6.25전란시 반공협의로 지목되어 방공호 속과 산속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적군들에게 체포되어 강제의용군에 편입된 반 공산주의자들이다.<sup>57</sup>

9일 부평포로수용소에서 미해병대원들이 북한 포로들과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동 소식통에 의하면 8명 내지 10명의 북한 포로들이 살해되고 90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한다. 부평수용소에서의 포로들의 탈출 기도는 18일 하오 7시에 취하여진 것인 바 이는 미군이 한국군의 포로감시임무를 해제한 후 2시간이나 경과된 때이었다.<sup>58</sup>

부평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8백 50명의 반공포로가 4일 상오 4시를 기하여 미군 부대에 의하여 이동되었다고 한다.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에서 서울지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기 850명의 반공포로들을 논산 방면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미군부대에서는 열차편으로 그들을 수송하였다 한다.<sup>59</sup>

부평지구 제10포로수용소는 부평지구 미군기지 내의 미 제44공병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수용인원은 1천 4백 86명이었다. 원래 이 수용소는 한국군 헌병 1개 중대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미군기지 내에 있음으로써 헌병 총사령부에서 파견한 밀사를 접촉할 수가 없었다.

<sup>57</sup> 『조선일보』, 1953. 6. 18.

<sup>58</sup> 『동아일보』, 1953. 6. 20.

<sup>59</sup> 『조선일보』, 1953. 7. 6.

그리하여 18일 수용소 내의 포로들은 이날 아침의 반공포로 석방 소식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정오 영내 확성기를 통해 뉴스를 듣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 정오부터 총사령부의 김길수 대령, 고윤석 해군 소령, 제1경비대대장 박종대 소령, 헌병중대 선임장교 이영현 중위가 모여 뒤늦게 석방을 밀의하였다.

한편 미군측에서는 포로 석방 전모를 알고 하오에는 작업도 내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포로들은 더욱 불안한 가운데 간부들끼리 모여 탈출을 의논했다.

18일 하오 3시경 이영현 중위는 김 대령 등과 협의한 대로 밤 9시에 탈출시키기 위해 수용소 외곽 철조망 근처를 순시하는 채 하면서 경비 헌병을 주의 주는 것처럼 가장한 포로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다른 수용소는 모두 탈출했다. 여기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밤 9시에 탈출하라”고 외쳤다.

이렇게 하여 이 중위의 의사는 포로들에게 전달되었다. 따라서 포로들은 밤 9시에 탈출을 감행하기로 간부들간에 합의가 됐다. 행동은 각 대대별로 50명 단위로 조 편성을 해서 각개돌파로 하되 탈출시 돌을 던져 외등을 깨뜨리기로 했다.

밤 9시 우리 헌병들은 수용소 내의 전선을 끊는 데 성공했다. 포로들은 조편성한 대로 스크럼을 짜고 정문으로 몰려가 철조망 위에 담요를 걸치고 뛰어넘었다. 정문을 지키던 미군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치고 말았다.

미군들은 정전과 동시에 포로들의 탈출을 알고 미 해병대원들이 증원되고 저지사격을 가하는 바람에 1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수용인원 1,486명, 탈출한 포로 538명, 탈출 후 피해 39명, 탈출 수 802명, 사망 47명, 부상 60명.<sup>60</sup>

부평미군기지는 또한 외국기관노동조합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무처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3,500여 명에 달했는데, 1970년대 들어와 미군이 일부 철수하고 재배치되며 부평에서 이전하자 일자리를 잃거나 미군부대들을 따라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기도 했다.

외기노조 부평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71회계연도의 미8군 예산이 현 8군 종업원 46%를 감원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되어 있다고 전하고 기지 폐쇄 기구 축소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는 부분적 감원만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같은 대량 감원이 단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8군의 이같은 예산 사정 때문에 외기노조 부평지부의 경우는 미 20일반지원단과 55기지창 등에 종사하는 총당 종업원 3,500명 중 1,600명이 오는 6월 말까지는 불가피하게 실직할 것인데 노조의 한 실무자는 1만 6천 명이 감원될 경우 매달 5억 6천만 원의 외화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고 추산했다.<sup>61</sup>

<sup>60</sup> 『경향신문』, 1973. 7. 20.

<sup>61</sup> 『동아일보』, 1971. 1. 20.

전국외기노조는 21일 주한미군 당국이 올 들어 20일 동안 감원을 통보한 숫자는 파주 3백 20명, 부평 3백 81명 등 총 1천 8백 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 위원장은 이같은 숫자는 윤천 기지 철수 이후 작년 11-12월 두 달 동안 해고된 숫자인 7백 50여 명의 2배가 넘는 것이라고 밝히고 미군 당국과 이들의 구제책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sup>62</sup>

애스컴 지역 사령부는 1973년 해체됐다. 이후 캠프 마켓만 부평에 잔류했다. 미 군기지의 대부분이 반환된 후 부평지역은 기지였던 부지를 개발하면서 한 차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일부는 한국군이 주둔하면서 여전히 군용지로 이어지기도 했다. 산곡동의 보급단이나 현대아파트 자리에 있던 9공수부대가 대표적이다. 현재 캠프 마켓 역시 반환 과정에 있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해 간다.

캠프 마켓 내의 건물들은 그 자체로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공간 자체도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장소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캠프 마켓을 관통하는 도로들은 인천육군조병창 등장 당시부터 조성돼 있던 길이다. 길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이 길들은 부평의 도심지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일부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조선시대의 길을 활용한 곳도 있을 것이다. 캠프 마켓 전 구역이 반환된 후 기지 활용 문제가 논의를 거듭해 가고 있다. 건물에 담긴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 길과 건물 사이의 행간에 담겨 있는 당시 조선인들의 모습이 이 공간의 역사를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강제동원 당한 노동자들은 각자의 사연을 품은 채 이곳에서 일을 하였고, 학생들을 포함해 일부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들이 생산한 총기를 들고 전장으로 나간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사례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그리고 현재의 캠프 마켓으로 이어진 공간의 역사를 재구성해 내야 할 것이다.

62 『경향신문』, 1971. 1. 21.

## 참고문헌

1. 陸地測量部, 『地形測図法式』, 1900.
2.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軍概要史』.
3. Report of Medical Department Activities(Headquarters 382nd Station Hospital APO 901, 1947. 4. 29.), Final Historical Report, 1 January 1949 to 22 June 1949(HEADQUARTERS 382D STATION HOSPITAL APO 235 UNIT 1, 1949. 6. 22.).
4. Sgt. Machon, Aerial view of the Real estate adjacent to the 79th Ordnance Battalion, 8th Army [미8군 제79병참대대], 1952.08.30.~1952.08.30.,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09\_48\_00V0000\_001).
5. 「官衙(技術研究所)·官衙(造兵廠)·官衙(兵器補給廠)·官衙(航空技術研究所)·官衙(航空廠航空補給廠)·官衙(連隊区司令部兵事部)(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2121068000).
6. 「満918作機第36号/造兵廠現有設備能力概見表 昭和17年11月 陸軍兵器行政本部(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4010934900).
7. 「富平附近小演習場敷地買収の件(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03011787500).
8. 「昭和20年3月 隷下部隊長会同の際状況報告 昭和20年3月1日 仁川陸軍造兵廠(3)(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4010849300).
9. 「松島買収並使用に関する覚書(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3070032800).
10. 「宿舎借上に関する件(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01007190800).
11. 「陸軍兵器行政本部直轄出張所並造兵部常置員現況表等(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5120162600).
12. 「第1 京仁地区/5 日本車輛仁川工場, 6 仁川陸軍造兵廠(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3021433900).
13. 「第2章 中央製造修理及補給機関ノ推進強化(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3120913800).
14. 「朝鮮軍管区部隊(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3020876000).
15. 「地図(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3070032500).
16. 「筑波艦仁川京城間道路視察報告外の件(防衛省防衛研究所)」, 27年3月1日,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0125477300).
17. 「治安情報(12号) 3. 富平地区(憲兵報)(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3070014400).
18. 「土地建造物管轄換の件(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01007190100).
19. 「土地買収に関する件(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01004619300).
20. 「会第1754号 松島土地買収に関する件通牒 昭和19年11月29日(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3070032600).
21. 「26. 陸軍建築事務規程附録(陸軍建築設計要領改正案)/分割1(防衛省防衛研究所)」,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14010383100).
22. 「인천부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비 계속비 설정의 건 인천부회 회의록」, 1941.(국가기록원 소장본).

23. '帝國軍隊 朝鮮에 上陸 및 淸韓 兩 政府로부터 撤兵 要請의 事', 「東學黨 變亂時 韓國保護에 관한 日淸 交涉關係 一件(交涉始末) 第三卷」, 1894. 6. 6., (출처: 공훈전자사료관, 일제의 한국침략총서).

24. 『경향신문』, 1971.01.21.; 1973.07.20.

25. 『동아일보』, 1923.10.02.; 1923.10.30.; 1923.10.31.; 1924.04.30.; 1925.02.22.; 1939.05.03.; 1940.05.12.; 1953.06.20.; 1971.01.20.

26. 『매일신보』, 1916.09.13.; 1916.09.17.; 1919.06.05.; 1919.06.06.; 1922.04.12.; 1940.05.25.; 1944.03.09.; 1944.05.07.; 1944.05.10.; 1944.05.24.

27. 『조선일보』, 1925.05.27.; 1933.08.24.; 1936.10.02.; 1937.03.10.; 1953.06.18.; 1953.07.06.

28.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62.

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여군 참전사』, 2012.

30.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31. 부평역사박물관, 『삶의 터전 부평시장』 1, 2020.

32.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마을생활사 : 주안동 편』, 2017.

33. 김현석,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와 기지 '반환' 의 성격」, 『박물관지』 16, 인하대학교박물관, 2014.

34. 김현석, 「부평미군기지의 역사 : 캠프 마켓과 애스컴 시티」, 『헬로우 애스컴 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 부평 역사박물관, 2020.

35. 조상희, 「일제하 임야조사부에서의 연고자의 권리」, 『일감 부동산법학』 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6. 최병택, 「일제 하 임야조사사업의 시행목적과 성격」, 『한국문화』 37,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37.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https://www.army.mil.kr>).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미군기지 캠프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유적

Chapter

3

## 일본육군조병창에서 주한미군 캠프마켓까지 : 건축과 배치

이연경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배치 및 영역별 구성

2. 영역별 건축 현황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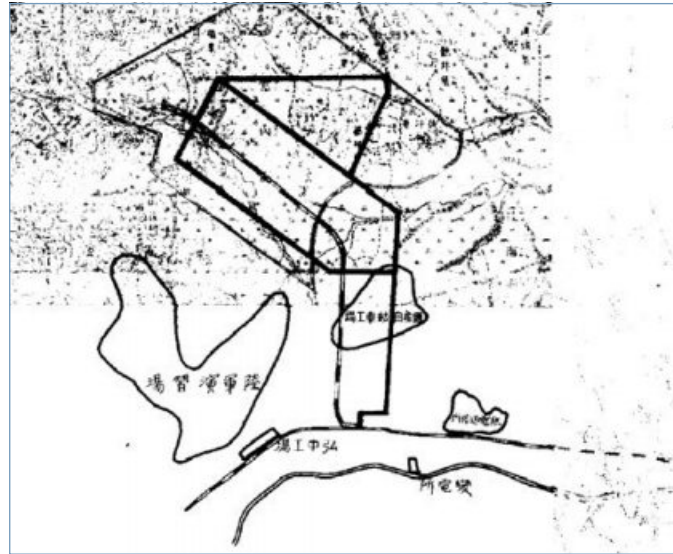
- 본 고는 A·B구역에 대한 현지 조사 및 도면 등 자료 조사만 시행된 시점에서 작성된 내용으로, 미반환구역인 D구역을 포함한 전체 기지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도면 및 건물현황사진은 인천광역시가 제공한 「캠프마켓 건축도서」를 참고하였다.

## 1. 배치 및 영역별 구성

### 1) 일본육군조병창 당시

부평에 위치한 일본육군인천조병창 제1제조소는 1939년 일본군 제20사단이 관할하던 부평연습장 72만 8,000여 평을 우선 이관받기로 하고 인접한 토지들을 매수하기 시작하며 건설이 시작되었다. 1939년 8월 9일 매수를 신청한 토지는 산곡리 및 대정리 일대 약 33만 평으로, 부평연습장의 동측으로 약 24만 평, 북측으로 약 15만 평, 남측으로 약 4만 평이었다.<sup>1</sup> 인천조병창은 동쪽은 원통천, 서쪽 함봉산 산줄기, 남쪽 경인선 철도, 북쪽은 백마장 입구에서 관통도로를 경계로 한 약 100만 평의 넓은 부지를 수용한 부지에 1940년 6월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1941년 5월 5일 개창식을 가졌다. 당시 공사는 일본 건설업체인 다마보구미(玉操組), 다다구미(多田組), 간또구미(關東組), 하사마구미(間組), 시미즈구미(清水組) 5개 업체에서 담당하였으며, 이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은 인근의 경기도 김포와 강화를 비롯하여, 조선의 전 지역에서 시, 군 단위의 근로보국대 형식으로 청장년들을 동원하여 투입하였다.<sup>2</sup>

현재 반환되는 캠프 마켓의 부지 면적이 479,622㎡(약 145,086평)인 것과 비교해보면, 현재보다 조병창의 면적은 약 7배 가량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조병창의 영역은 1954년 항공사진 및 1960년대 ASCOM City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의 산곡동의 영역에서 원적으로 북측 일대와 서측 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 동아아파트, 대림아파트가 위치한 영역을 포함시킨 정도에 해당한다. ASCOM 당시 캠프 마켓, 캠프 하에스, 캠프 그랜트가 위치한 영역이 일제강점기 일본육군조병창의 영역에 해당된다. 캠프 마켓은 일본육군조병창의 무기제조소와 본부, 병원 등이 위치한 중심 지역으로, ASCOM City의 설치 이후 55th Quartermaster Depot, 181st Signal Company(Depot), Ordinance Main Army Depot(74th Ordnance Battalion)이 위치하였다.<sup>3</sup> 캠프 하에스가 위치한 곳은 캠프 마켓과 접한 서측으로 1948년 Norb Faye가 촬영한 사진에서 볼 때 이곳은 공지와 일부 가건물(막사 등)이 설치되어 있다. 캠프 그랜트가 위치한 함봉산 동측 일대는 조병창의 공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중간에 상당한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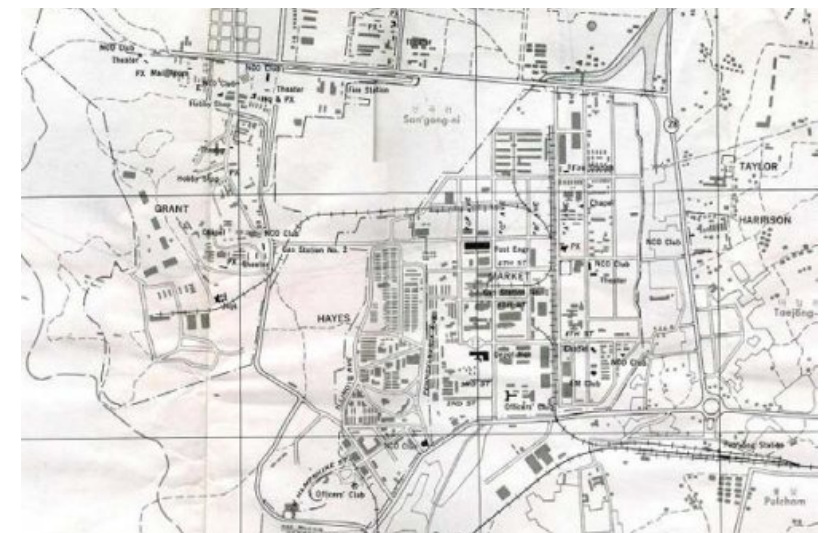
[그림 1] 조병창 건설 이전 육군연습장의 위치  
(출처: 공업용지조성비계속비변경의건, 1939,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3722)

- 1 「土地買収に関する件」.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01004619300)
- 2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2016, 170쪽.
- 3 Ascom City, Korea, 1956.05.15. ~ 1957.05.29.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1956.)

가 있다. 이 공지의 경우 조병창에서 군속으로 일한 장화두 구술자가 언급한 연병장<sup>4</sup>, 혹은 조병창에서 군속으로 일한 김상현 구술자가 언급한 형무원들이 노역을 하던 지역으로 판단된다.<sup>5</sup> 공통적으로 공지를 지나 서측에 위치한 곳은 기능자양성소 및 기숙사라 언급하고 있어 1952년 사진에서 함봉산 바로 아래 쪽, 산곡동 조병창 노무자주택 바로 서측에 기능자양성소가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2년 사진에서 이 일대의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비행기와 활주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952년 사진 속 굴뚝이 있는 건물은 김상현 구술자의 구술로 미루어보아 벽돌공장일 가능성이 있다.<sup>6</sup>



[그림 2] 1954년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조병창의 영역



[그림 3] 1960년대 ASCOM CITY 지도에서 보이는 조병창 일대

- 4 이상의 면담 해제·국사편찬위원회 편,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역사비평사, 2019, 242쪽.
- 5 이상의, 앞의 책, 2019, 294쪽, 294-295쪽.
- 6 이상의, 앞의 책, 2019, 301-30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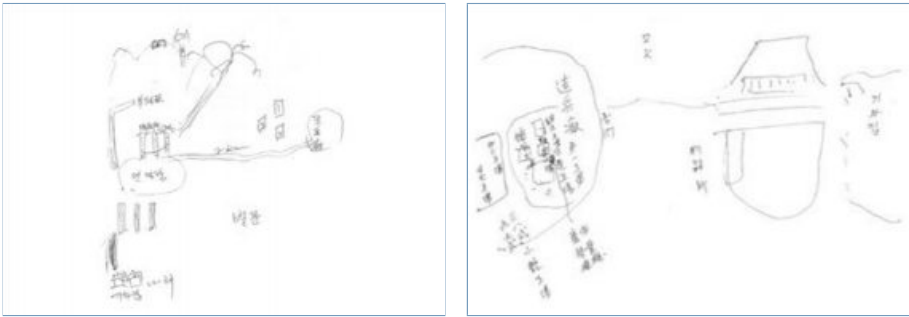




[그림 4] 1948년 Norb Faye가 촬영한 사진에서 본 조병창 영역  
(출처: <https://flic.kr/s/aHsjnAP1Ba>, 캠프 마켓-캠프 하에스 위치 사진 위에 필자 표기)



[그림 5] 1952년 촬영된 사진에서 본 조병창 영역(캠프 그랜트 위치)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009\_48\_00V0000\_001)



[그림 6] 장화두 구술자가 그린 인천조병창  
기능자양성소 주변 상세도  
(출처: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2019.)

[그림 7] 김상현 구술자가 그린 인천조병창  
기능자양성소 주변과 제1공장 세부도  
(출처: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2019.)

한편 조병창으로 사용 당시 영역별 성격을 1948년 항공사진에 표시해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조병창은 크게 공장이 있는 북측 영역과 병원 및 본부 등 행정시설이 있는 남측 영역, 현재의 동아아파트가 있는 부영로 동측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북측 영역은 내부의 남북도로를 중심으로 공장이 있는 서측 영역과 창고 및 부대시설이 있는 동측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내부의 주요 남북도로는 현재 철길과 평행하는, 캠프 마켓의 동쪽 경계인 부영로와 부평역 쪽으로 난 정문에서 병원과 본부 영역(추정) 사이를 지나 공장 동측으로 향하는 도로이며, 주요 동서도로는 동아아파트 쪽으로 난 동쪽 출입구에서 본부 영역(추정)으로 향하는 도로와 산곡동 쪽 서측 출입구를 지나 제1공장, 2공장 사이를 향하는 도로라 할 수 있다.



[그림 8] 1948년 사진에서 본 조병창 모습 (출처: <https://flic.kr/s/aHsjnAP1Ba> 사진 위에 필자 표기)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장영역은 현재 가장 먼저 반환된 부지인 A구역 및 아직 반환되지 않은 D구역 일부를 포함한다. 조병창은 당장 및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남쪽에 정문이 있고 동쪽과 북쪽에는 나무로 된 샛문이 있



었다. 산곡동에 살았던 조병창의 노무자들은 아마도 산곡동 방향인 북쪽의 샛문을 통해 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sup>7</sup> 조병창 제1공장(현재의 '1924'건물과 그 주변)에서 작업반으로 일했던 김상현 씨의 구술에 따르면, 제1공장은 단조(鍛造)<sup>8</sup>-판금(板金)-조질(調質)<sup>9</sup>-목조<sup>10</sup> 공장으로 별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제2공장은 선반(旋盤)<sup>11</sup>공장으로 내부에 기둥이 여러 열이 있고 지붕이 여러 개 이어지는 대규모 공장이었다. 제3공장은 제2공장에서 나온 부속들을 가져다가 조립하여 총과 칼을 완성했다. 제3공장에서 완성된 총과 칼은 지하병커에 있는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외부로 반출되었는데, 지하병커는 다른 굴(방공호)들과 달리 콘크리트로 된 건물로 내부에서는 책상에 총을 올려두고 그것을 쏘아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곳이었다. 공장 및 지하병커는 자료의 부족 및 D구역의 미반환으로 인한 조사 불가로 현재까지 그 위치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남측의 병원 및 행정시설 영역은 최근 반환된 B구역과 아직 반환되지 않은 D구역의 남쪽 일대를 포함하는데, 조병창의 남쪽 경계에서 동측 문에서 본부로 추정되는 건물이 있는 영역, 즉 자동차 드랍오프존(drop off zone)이 있는 지역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도로 부근까지의 영역이다. 정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동측에는 조병창 병원 건물이, 서측으로는 공지가 있고 그 북측에 본부로 추정되는 건물군이 도로를 마주보고 서 있다. 병원의 북측, 본부 영역의 동측에는 플랜트로 추정되는 건물을 비롯하여 부대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지금도 남아 있다. 현재의 부영로 동측으로는 나가야 타입의 숙소들이 연속되어 있는데, 이는 1948년 Norb Faye가 촬영한 사진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림 9] 동측에서 바라본 조병창 모습 (출처: <https://flic.kr/s/aHsjnAP1Ba>)

- 7 김상현 구술자는 이 문을 후문이 라 불렀다.
- 8 고체인 금속재료를 해머 등으로 두들기거나 가압하는 기계적 방법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
- 9 강의 결정립을 미세하게 하여 재질을 균질화 하여 연성이나 인성을 향상시키는 작업
- 10 나무가 뒤틀리지 않도록 폭 써서 숨을 완전히 죽이는 작업
- 11 금속, 나무, 돌 따위를 회전시켜서 갈거나 파내거나 도려내는 데 쓰는 기계

## 2) 캠프 마켓 당시

해방 이후 미군이 접수한 조병창은 1949년 이후 한국정부에 다시 귀속되었으나, 한국전쟁 중인 1950년 7월에서 9월까지의 북한군에 접수되었다. 1950년 인천상륙작전 이후 다시 미군이 조병창을 접수하였으나, 1951년 1월 또 다시 북한군에 접수되었다. 1951년 봄 UN연합군은 다시 조병창을 탈환하였고 이후 군수지원 시설로 사용되었다. 400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조병창 내의 382 병원<sup>12</sup> 역시 1949년 이후 한국 제1 의무부대가 사용하였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폭격 등으로 멸실된 건물은 소수였으나 많은 수가 엉망이 되었고 또한 기초만 남기도 하였다. 1953년 이후 조병창의 복구가 시작되며 565 공병자재창(the 565th Engineer bn depot)가 이곳에 자리잡았고, 1955년 이후 제55 보급창(55th QM depot)이 점유하였다.<sup>13</sup>

제55 보급창이 자리잡았던 1960년대의 배치도를 살펴보면, 조병창 시절부터 사용되던 병원이 미군 클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병창의 행정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제55 보급창의 본부 건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2 병원을 대신하여 캠프 하에스의 남서측, 즉 현재의 현대아파트 3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121 후송병원이 들어섰다. 조병창 시기 병원 및 행정시설로 사용되던 남측 영역은 미군부대 당시에도 그 성격이 이어졌으나, 동측의 숙소지역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미육군보급창의 창고 등의 성격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병창 당시 사용하던 건물들 중 상당수가 남아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철로를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던 숙소들은 모두 철거되고 대형 창고 건물들이 들어섰

- 12 Ascom City, Korea, 1956.05.15. ~ 1957.05.29.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1956.) 문서에 따르면 1956년 당시 클럽(QM Depot Officer's Club) 및 숙소(Bachelor Officer Quarters)로 사용 중이던 건물(현재의 '1780', '1776' 건물)인 382 병원은 400병상을 갖추고 있었으며, 1946년부터 1949년까지 미군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 13 Ascom City, Korea, 1956.05.15. ~ 1957.05.29.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1956.)



[그림 10] 1960년대 캠프 마켓 배치도 (출처: 인천에스컴지도(Incheon Ascom Road Map), 부평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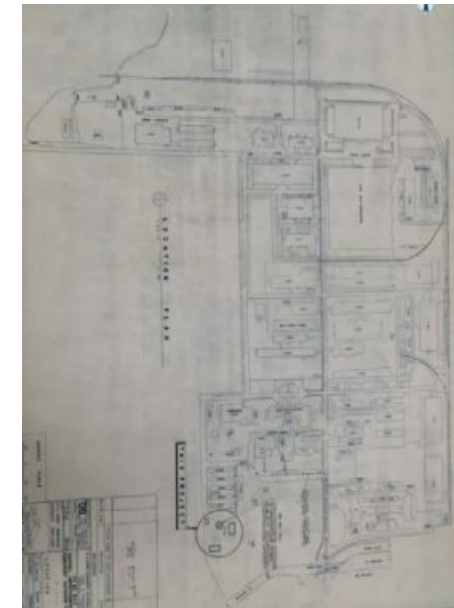


[그림 11] 1979년 캠프 마켓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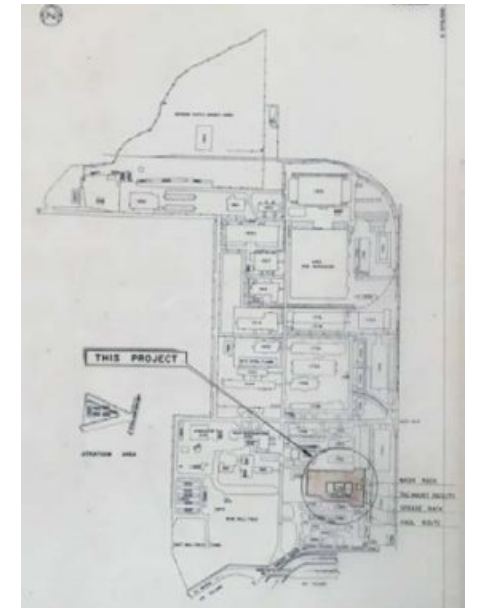
[그림 12] 1960년대 캠프 마켓 일대의 모습 (출처: <http://nandupressfocus.blogspot.com>)

음을 1960년대 애스컴 시티 전경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1973년 애스컴 시티(ASCOM City)의 해체 이후 미군기지의 영역은 현재 규모인 캠프 마켓 일원으로 축소되었다. 가장 큰 변화로는 대지 중앙에 말굽형으로 돌아 들어오는 철로와 주유소 공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최근까지 빵공장으로 사용한 대규모 공장 건물이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55 보급창 본부 건물 남측에 소방서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대지의 남서측 하단은 야구장이 생기면서 스포츠레저시설이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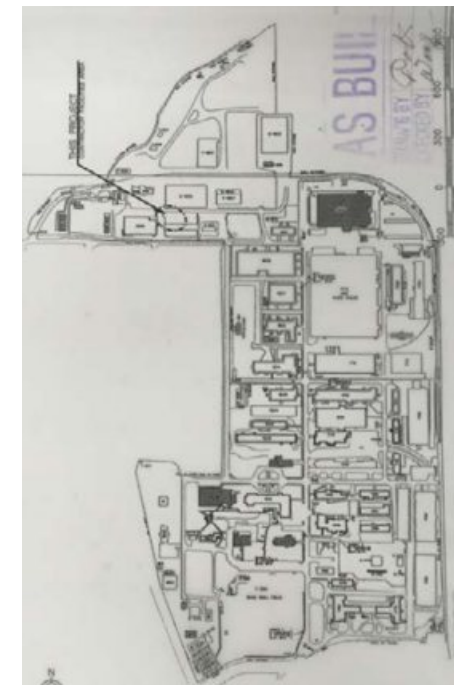
1980년대에도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남서측 스포츠시설 영역군에 실내수영장 및 샤워실 등이 설치되었고 미군 클럽 북측의 공지에 차량정비고 및 세차장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섰다. 영역별 성격을 구분해보면, 부영로 쪽 동측 입구에서 본부 건물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기준으로 남측의 행정시설, 북측의 창고시설로 나뉘어진다. 창고시설 중 일부는 숙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현황조사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 남측의 서쪽 영역은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군이 자리잡은 영역이다. 2003년에 이르면 현재와 거의 비슷한 모습의 미군기지가 완성되었다. 2019년 12월 이후 캠프 마켓은 차례로 반환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군수품 재활용센터(DRMO)로 사용되던 A구역(109,957㎡)과 조병창 병원이 포함된 행정사무 영역인 B구역 113,053㎡, 그리고 캠프 마켓 부지 외부의 하수처리장 C구역 5,783㎡이 현재까지 반환되어 토지정화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림 13] 1982년 캠프 마켓 배치도



[그림 14] 1986년 캠프 마켓 배치도



[그림 15] 2003년 캠프 마켓 배치도



[그림 16] 2019년 캠프 마켓 배치도



2. 영역별 건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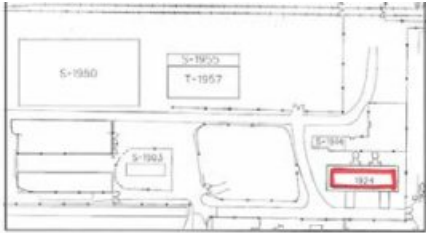
1) A영역

A영역은 일본육군조병창 시기에 건축된 제1공장이 속한 영역으로, 부평역에서 분기하여 조병창으로 들어오는 철도선로의 종착점이기도 하다. 제1공장으로 사용된 층고가 높고, 굴뚝이 2개가 있는 ‘1924’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건축된 ‘1950’ 건물이 남아 있다. 그 외의 건물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나, 병커와 철도 플랫폼 등은 일본육군조병창 및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건물들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임시시설 혹은 창고로 그 건축적 가치가 크게 높지 않아 A영역 반환 후 대부분 철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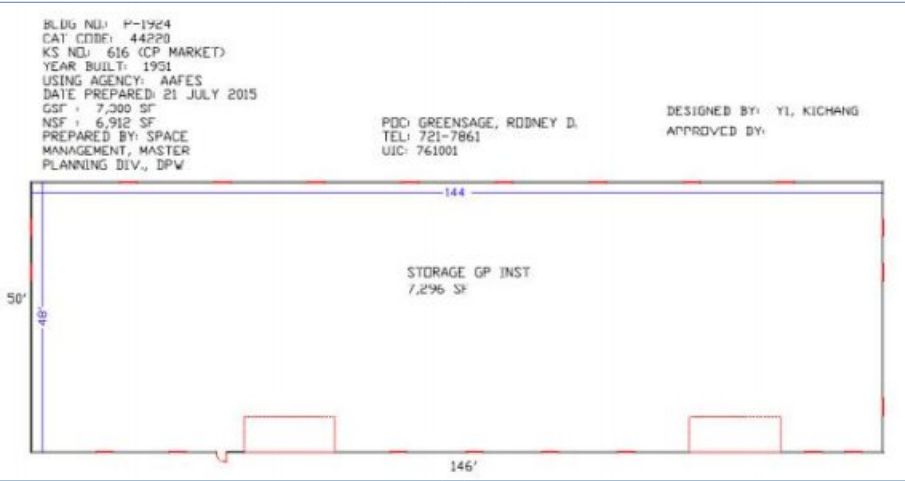
[1924] 일본육군조병창 제1공장



[그림 17] 전경 (©이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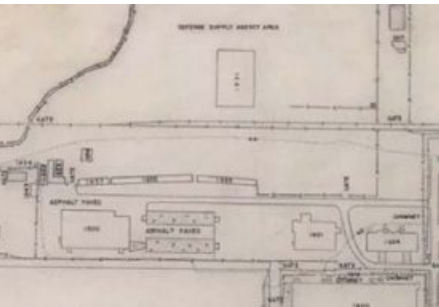
[그림 18] 부지 내에서의 위치



[그림 19] 1924 건물의 현재 평면



[그림 20] 1967년 항공사진 속 1924 건물



[그림 21] 1979년 배치도 속 1924 건물



[그림 22] 1948년 사진에서 보이는 1924 건물



[그림 23] 1948년 사진에서 보이는 1924 건물



[그림 24] 서측 입면 (©이연경)



[그림 25] 굴뚝과 건물의 연결부(연도) (©이연경)



[그림 26] 내부 모습 (©이연경)



[그림 27] 현재는 폐쇄된 연도로의 연결부 (©이연경)





[그림 28] 서측면 및 남측면 (©이연경)



[그림 29] 서측면의 낮은 출입구 (©이연경)



[그림 30] 동측면의 출입구 캐노피 (©이연경)



[그림 31] 남측면의 폐쇄된 출입구 (©이연경)



[그림 32] 노출된 조적벽체 (©이연경)



[그림 33] 원형 창호 (©이연경)

1924 건물은 일제강점기 일본육군조병창의 제1공장, 즉 주물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로 외부에 높은 굴뚝이 두 개 솟아 있으며, 굴뚝과 건물은 연도(煙道)로 연결되어 있다. 단층의 건물은 2층 이상의 높은 층고를 가지며 창호는 상부에만 있으나, 굴뚝이 있는 연도와 연결된 북측면에는 아래 부분에 연도로 뚫려 있는 개구부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제1공장에서 일했던 김상현 씨의 구술에 따르면 제1공장은 단조(鍛造)-판금(板金)-조질(調質)-목조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여 공장 건물이 여러 동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남아 있는 공장은 불을 사용하는 공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현 씨를 비롯한 조병창 노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1공장의 단조공장에서는 높은 곳에서 쇳덩이가 떨어지면 불과 함께 두드려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판금공장에서는 프레스 기계가 있어 프레스로 10mm 철판을 찍어내는 공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조질공장에서는 쇠를 숯불에 오랫동안 식혀서 물러지게 한 다음에 빨강계 달궈서 물에 담그고 하면서 쇠를 강하게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공장의 높이 및 불의 사용, 작업의 공정, 그리고 김상현 씨의 그림으로 미루어보아 1924 건물은 단조공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폐쇄되어 있지만 동측에 출입구가 있었으며, 서측에는 낮은 지붕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 레일 등으로 공장 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다음 공장(현재는 멸실된 1924 건물 옆 공장건물)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벽체는 현재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으나, 일부 이전 벽체가 노출된 부분에 붉은 벽돌이 있어 구조체는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지만, 벽은 조적벽체에 시멘트몰탈 마감을 한 건물로 추정된다. 지붕은 1983년 수선 당시 전체적으로 교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남측면의 경우 하부에 출입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1개를 제외하고 폐쇄된 상황이다.



[그림 34] 참고자료 - 단조작업  
(출처: [https://tanaka-katsutekko.com/skill\\_no\\_compromise](https://tanaka-katsutekko.com/skill_no_compromise))



[그림 35] 참고자료 - 조질작업  
(출처: <https://www.nc-net.or.jp/company/92061/product/detail/72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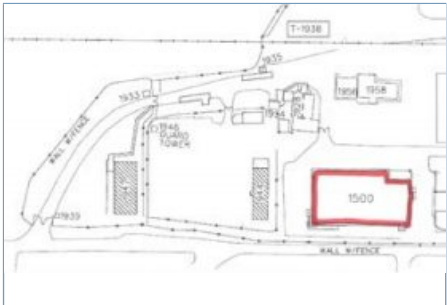
[1500] 일본육군조병창 건물

일본육군조병창 제1공장의 서측에 위치한 건물로, 1952년 이전 즉 인천육군조병창의 건물로 건축됐을 가능성이 높은 건물이다. 인천육군조병창 당시 건물의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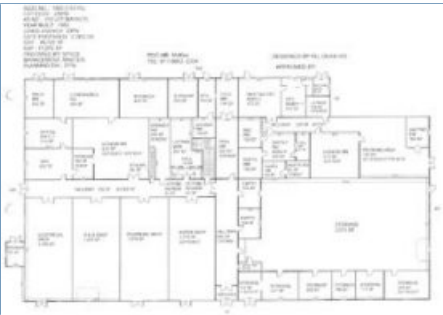
도는 알 수 없으며, 미군이 사용할 당시에는 1층은 각종 수리 정비소 및 창고, 2층은 숙소로 사용하였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순한 형태로, 중간 부분만 2층이다. 현재는 A구역 정화를 위해 철거되었다.



[그림 36] 전경



[그림 37] 부지 내에서의 위치



[그림 38] 현황 평면도(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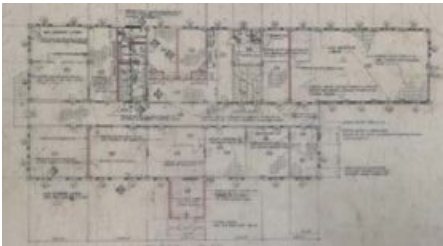
[그림 39] 현황 평면도(2층)



[그림 40] 1968년 당시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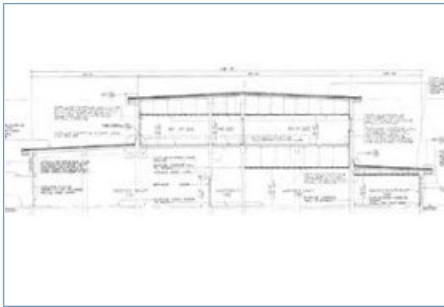
[그림 41] 1977년 당시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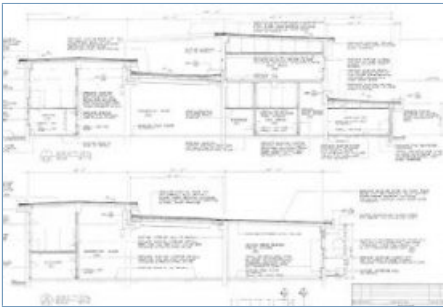
[그림 42] 1978년 당시 2층 평면도



[그림 43] 1967년 항공사진



[그림 44]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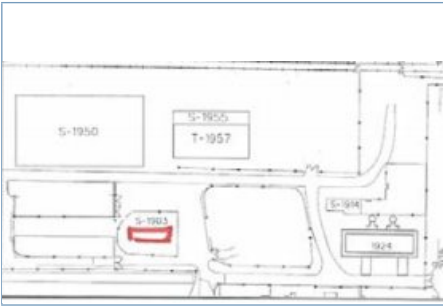
[그림 45] 종단면도

[S-1903] 병커(1985년)

일본육군조병창 제1공장의 서측에 위치한 병커는 1985년 신축한 탄환 보관고 및 병커 건물로 천정을 자연스러운 경사면으로 처리하고 위에 잔디를 심었다. 병커가 위치한 곳은 제1공장 영역의 바로 서측으로, 1967년 항공사진에서는 공지임을 알 수 있다. 일본육군조병창 당시의 건물은 아니지만 미군 기지에서 건축한 병커로 군대시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물이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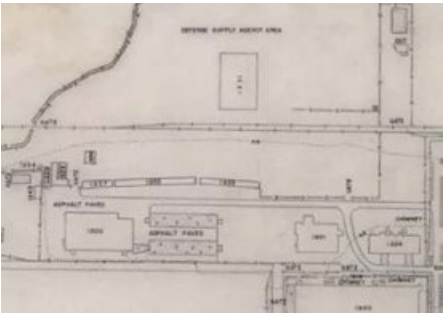
[그림 46] 전경 (©이연경)



[그림 47] 전체 배치에서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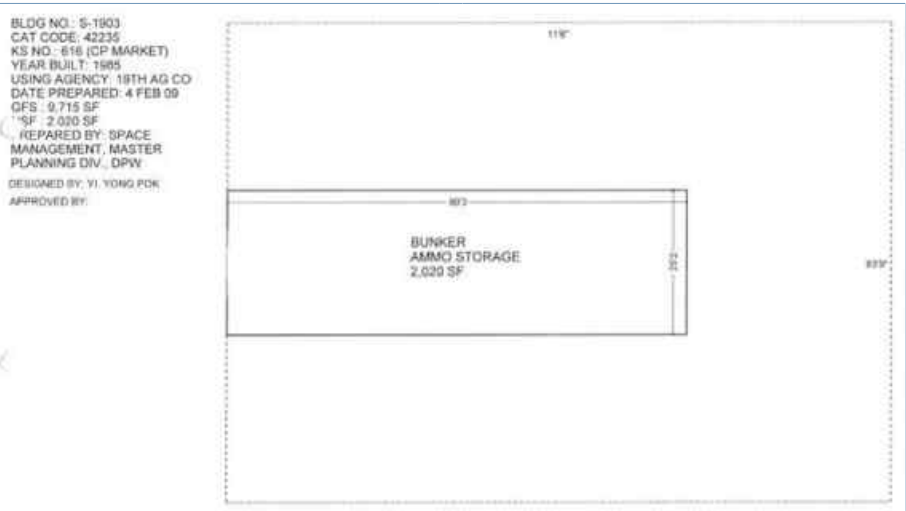


[그림 48] 1967년 항공사진 속 1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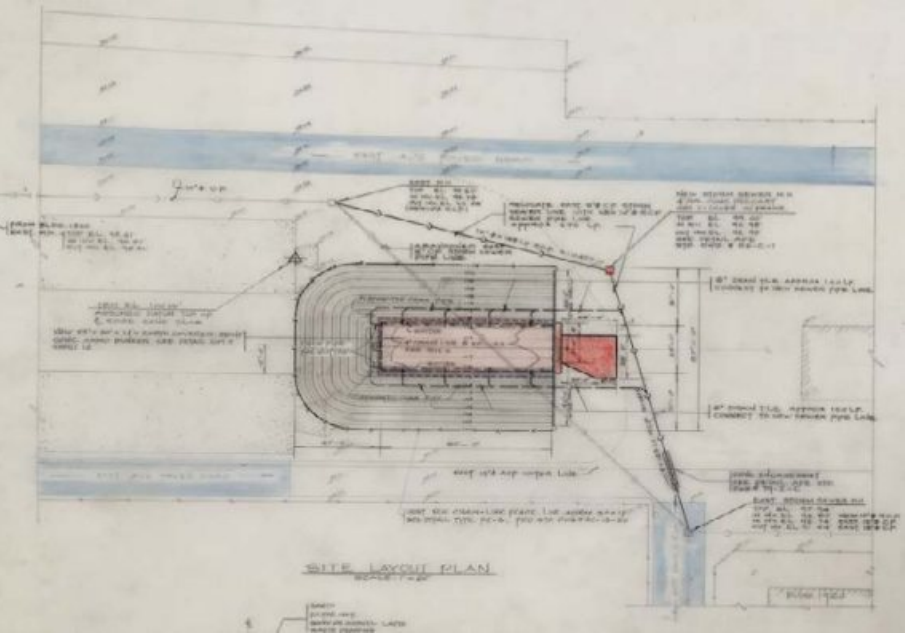


[그림 49] 1979년 배치도 속 1903





[그림 50] 평면도



[그림 51] 1985년 신축 당시 배치도



[그림 52] 측면 (©이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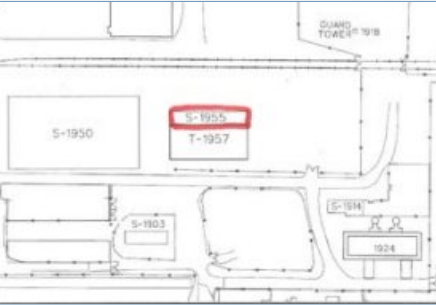
[그림 53] 내부 (©이연경)

[S1955] 철도 플랫폼

1998년 건축된 철도의 종착 플랫폼으로 이전에는 철도가 캠프 마켓을 지나 캠프 그랜트까지 이어졌다. 1998년에 철도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것이 S1955 구조물이며, 플랫폼 자체는 크게 오래되지 않았으나 일제강점기 일본육군조병창 시기에 건설된 철도와 연관있는 구조물로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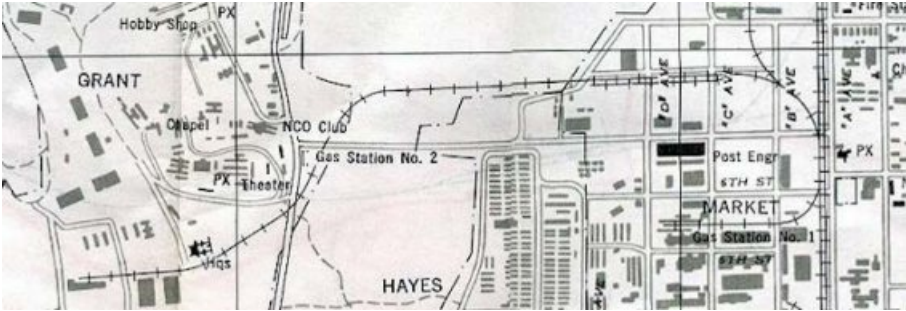
[그림 54] 전경



[그림 55]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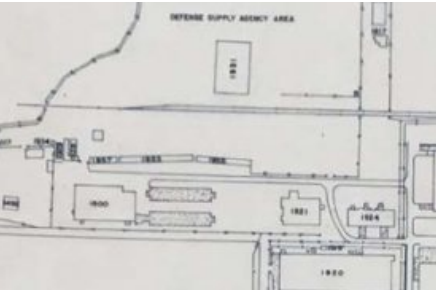


[그림 56]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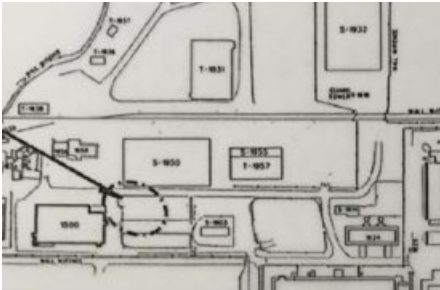


[그림 57] 1960년대 지도에서 본 철도  
(출처: 인천에스컴지도(Incheon Ascom Road Map), 부평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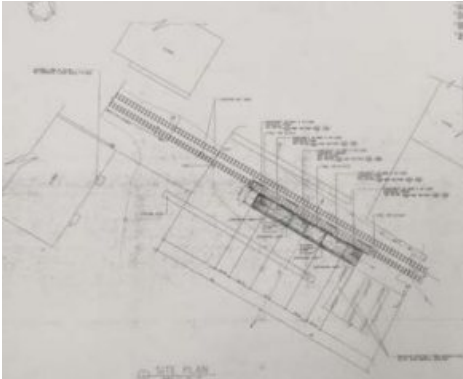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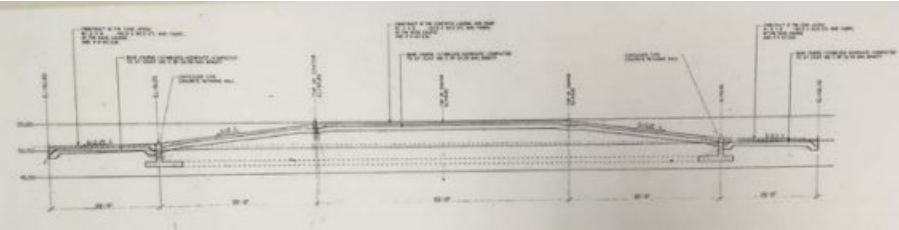
[그림 58] 1986년 배치도



[그림 59] 2003년 배치도



[그림 60] 플랫폼 배치



[그림 61] 플랫폼 단면

2) B영역

B영역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설치된 조병창의 병원 등이 위치한 영역으로, 캠프마켓의 남쪽 일대이다. B구역은 전체 캠프마켓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도로에 의해 서측 일대와 동측 일대로 나누어지는데, 서측 일대에는 병원 건물 및 숙소, 자동차 정비소 등이 동측에 위치하고 동측 일대에는 야구장과 수영장, 멀티코트, 체육관 등 체육시설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 가장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일제강점기 일본육군조병창의 병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애스컴 시티 당시에는 장교 숙소 및 클럽으로 사용된 1780-1776 건물이며, 그 북측에 위치한 '1778' 건물 역시 동시기 건축된 숙소 건물이다. 영역의 동남측 끝부분에는 1952년에 건축된 소규모 주택이 남아 있었는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조

병창으로 사용 당시 동측에 있었던 숙소들 중 하나였거나 혹은 미군의 주둔 초기 건축한 주택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측 영역의 '1544' 건물은 원셋 구조의 건물인 것으로 추정되어 미군 주둔 초기 건축된 건물일 것으로 판단된다.

[1780-1776] 일본육군조병창 병원 및 미군정기 382 병원

1780과 1776 건물은 일제강점기 조병창의 병원으로 건축된 건축물로 원래는 하나의 건물이었다. 조병창 당시 병원 근무자인 지영례 씨의 구술 기록(사진자료 포함) 및 미군정 이후의 사진 자료(출처: NARA, 1948년)로 미루어보아 병원으로 사용된 건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병창 노무자들의 구술에 따르면 이 병원에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다양한 전문과<sup>14</sup>를 갖추고 있었으며 중앙의 입구로 들어가면 복도 옆으로 진료실들과 입원실들이 쭉 늘어선 형태의 큰 규모의 병원이었다. 지영례 씨의 구술을 통해 병원에는 수술실과 식당, 방공호 등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NARA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History of Ascom City, 1957.)에 따르면 이 병원은 1945년 이후 미군의 400병상 규모의 382 병원으로 사용하다가 1949년 이후 한국 제1 의무부대가 사용하였다. 1951년 미군이 다시 조병창을 탈환한 이후에 이 건물은 미군 숙소 및 클럽으로 사용되었으며, 382 병원을 대신하여 캠프 하에스의 남서측, 즉 현재의 현대아파트 3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121 후송병원이 들어섰다.

“병원이 이렇게 쪽쪽, 건물이 한 채씩 있으면 한 채가 다 병원이에요. 그래가지구 거기 입원실이 있구, 서무과 있구, 병실마다 다 따루따루 있구, 저길 있는데, 거기 간호하는 간호원들이 있구, 우리 저기, 우케스케(접수)라구, 손님들 오면 이름 쓰구, 내과 외과 해서 우리는 그런 거 했구, (중략) 한 채가 길다란, 저 건물 하나에 다 병원이에요. 칸칸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되어, 과마다 따로 있지. 입원실이 있구. (중략) 1층 건물이었어요? (중략) 의사가 그 때, 일곱 여덟 명 됐을 거예요. 아마. 병원이 컸거든. 그래 가지구, 거기 공장에, 공장이 있으니깐 거기서 일하다 다치든, 팔 떨어진 놈, 어디 다리 부러진 놈 오지,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별 거 다 와요. 병원에 있으믄, (중략) 네, 거기(병원) 식당이 있었어. (중략) 그러니깐 인제 팔은 팔대루 따로 오구,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 그대루 가서 수술실로 가서, 팔 맞히는 사람은 맞히구, 그것두 안 되는 사람은 또 못하구 (중략) 환자들은 환자대로 들어가는 저, 병원 방공호가 있어요. 그 간호원들이 구루마에다 태워갖구 다 거기 들어가. 병원 방공호는 또 병원 앞에 방공호가 따로 있구, (중략) 병원 현관 건물이야. 여기 들어가면 저 복도로 쪼끔 들어가면, 이 이 뒤에 쪽으로 (서무과가) 있어. 서무과 옆에는 거기서부터 진료실이지. 칸칸이

14 지영례 씨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센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던 윤용관 씨는 피부과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있어가지구, 진료실이 죄다 내과 외과 따로 있잖아요. 칸칸이.”<sup>15</sup>

“During the period from 1946 until its deactivation in 1949, the 382nd station hospital, which was a 400-bed hospital, was located where the 55th QM depot officers club and Bachelor Officer Quarters now stand.”<sup>16</sup>

1944년 3월 8일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朝鮮看護婦規則ニ依リ仁川陸軍造兵廠仁川病院看護婦養成所指定(三六四)”라는 내용이 있어 인천육군조병창인천병원 내 간호부양성소를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1944년 5월 졸업하는 학생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인천육군조병창 내 병원에는 간호부양성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병창은 기계작업 중 다치는 외상환자가 많았으므로, 차로 환자를 빨리 실어나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였으며, 수술실과 외상처치실, 입원실들이 포함된 규모의 병원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2] 조선총독부관보 제5126호 (1939.03.08.)

조병창 당시 병원 서무과에서 일했던 지영례 씨는 이 건물이 1층이었다고 언급하였으나, 미군정기에 촬영된 사진에는 2층 건물이어서 지영례 씨의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혹은 미군정기에 2층을 증축하여 400병상 규모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1948년의 사진과 1960년대의 사진을 비교해볼 때 2층의 일부 및 중앙부가 전쟁으로 인해 멸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주출입구가 있던 중앙부와 2층이 피해를 입어 양쪽으로 T자형의 건물만 남았는데, 1960년대 이후 1780은 미군 클럽으로, 1776은 숙소로 사용되었다. 1776 건물은 2001년 리노베이션 당시 동서로 긴 2층 부분을 새로 건축한 것으로, 그 전에도 동서로 긴 부분은 2층이었다. 남북으로 긴 매스는 기존의 단층 매스를 2001년 콘크리트 슬라브를 교체하는 등 개축하였다. 1780 건물 역시 클럽으로 사용하면서 70-80년대에 여러 번의 증개축이 있었다. 1780 건물은 T자형 단부인 1층 부분의 지붕은 목조이나, 중앙부인 2층은 콘크리트 슬라브 천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중앙부를 이후에 다시 지으면서 콘크리트 슬라브로 교체한 것으로 여러 번의 증개축을 통해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내부에는 클럽으로

15 병원 서무과에서 일했던 지영례 씨의 구술 중 병원 구조와 규모 등에 언급한 부분을 별도로 발췌하였다. - 이상의, 앞의 책, 2019, 78-100쪽.

16 Ascom City, Korea, 1956.05.15.-1957.05.29.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1956.)

사용하면서 만든 장식들이 아직 남아 있으며, 부속공간들이 증축되었다. 병원 앞 방공호는 확인되지 않으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 정밀조사를 통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3] 건물 측면 입구 (©이연경)



[그림 64] 건물 단층부 남측 입면 (©이연경)



[그림 65] 1776 건물 전경 (©이연경)



[그림 66] 사라진 중앙부의 흔적 (©이연경)



[그림 67] 1780 건물 내부 (©이연경)



[그림 68] 1780 건물 내부 (©이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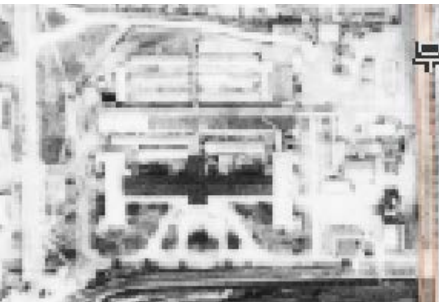


[그림 69] 1780 건물 지붕 구조 (©이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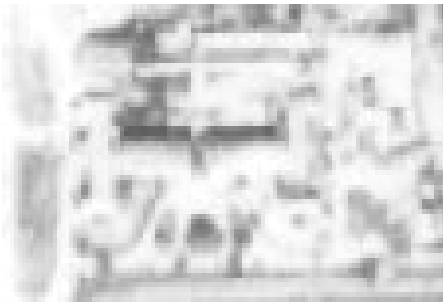


[그림 70] 1780 건물 지붕 구조 (©이연경)





[그림 71] 1947년 항공사진 속 모습



[그림 72] 1954년 항공사진 속 모습



[그림 73] 1967년 항공사진 속 모습



[그림 74] 조병창 병원 현관 사진  
(출처: 이상의, 앞의 책, 2019.)



[그림 75] 1948년 당시 병원 모습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 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05\_06\_03V0000\_063, 1948.)



[그림 76] 1948년 사진 설명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 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05\_06\_03V0000\_063,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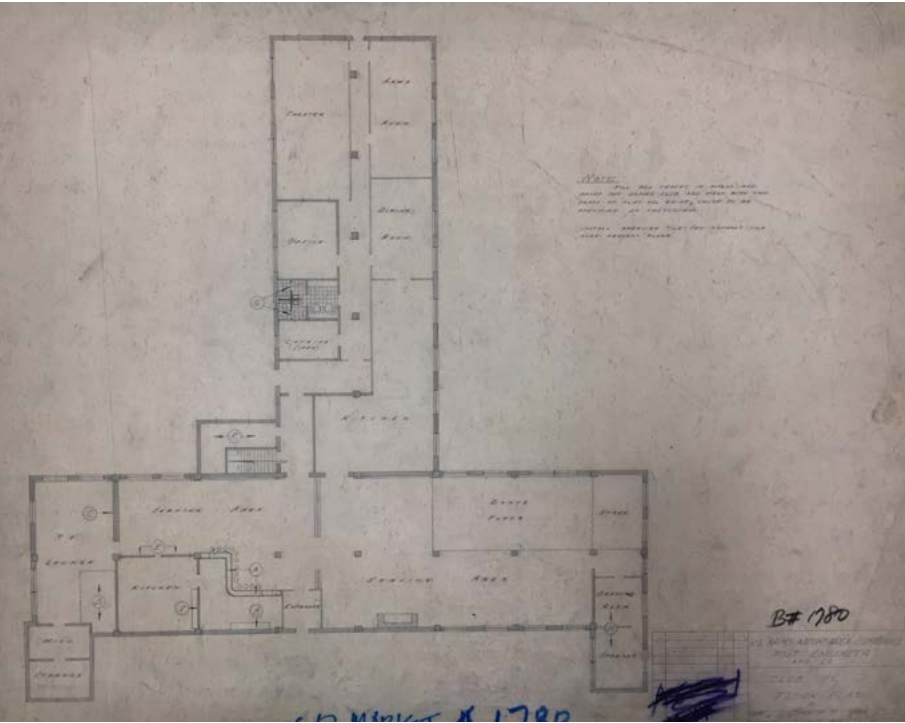


[그림 77] 1948년 Norb Faye가 촬영한 병원 건물 모습 (출처: <https://flic.kr/s/aHsjnAP1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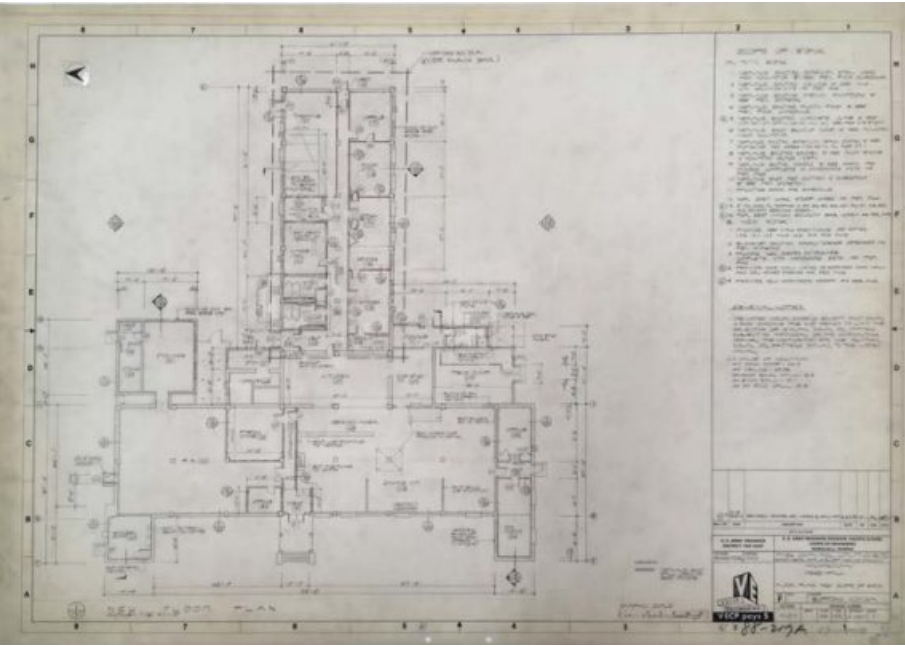


[그림 78] 1960년대 사진 속 병원 건물 모습 (출처: <http://nandupressfocus.blogspo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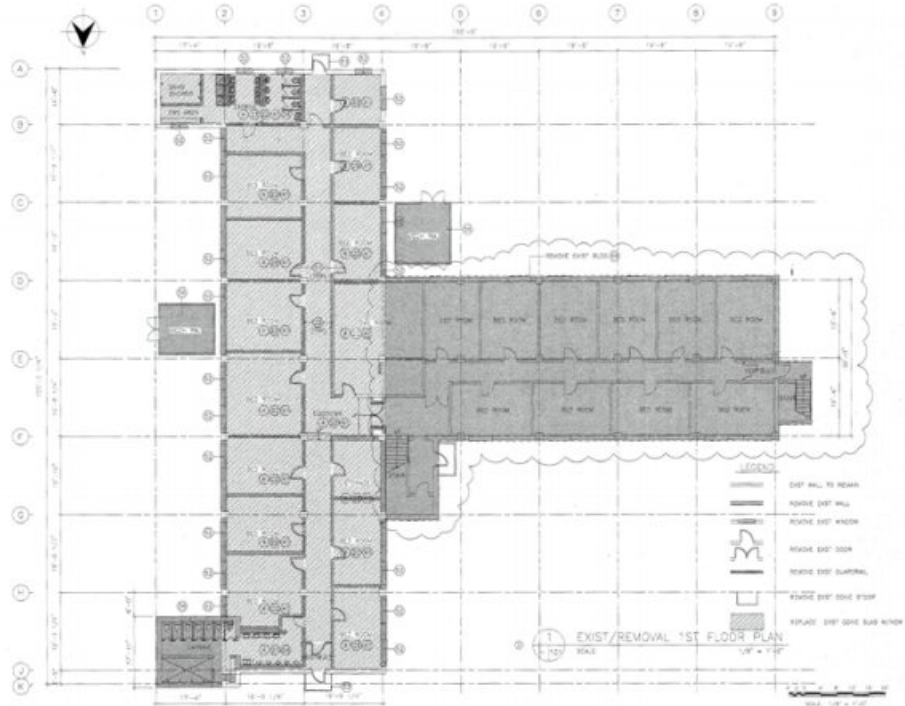




[그림 79] 1780 건물의 1950년대 도면



[그림 80] 1780 건물의 1988년 개축 당시 도면



[그림 81] 2001년 개축 당시 1776 건물 평면 (진한 회색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부분, 연한 회색은 콘크리트 슬라브 교체)

[1778] 숙소(사병급 독신자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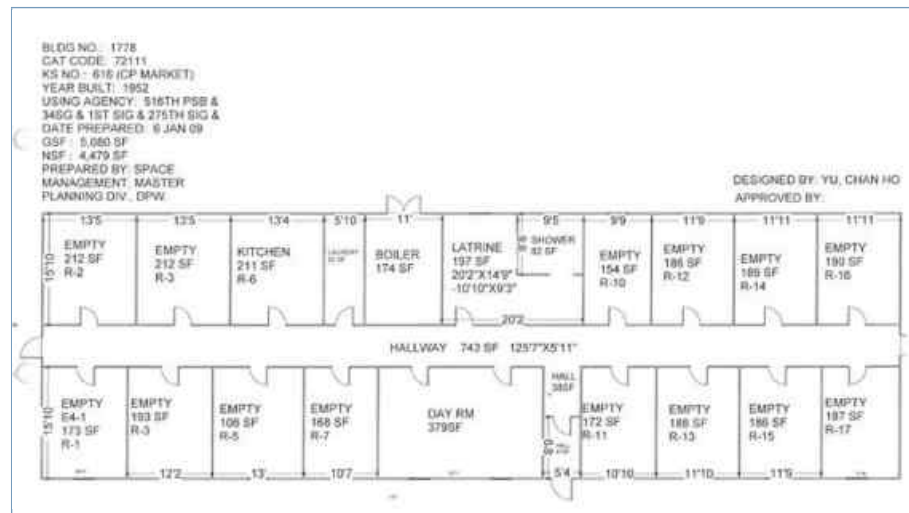
병원 부지 바로 북측에 있는 장방형의 숙소 건물로, 일제강점기 건축된 건물로 추정되나 내부는 여러 번의 증개축을 통해 크게 변하여 원래의 모습을 알기 어렵다. 측면의 환기창 등은 원형일 것으로 판단되며 중복도 형식의 단순한 숙소 건물로, 화장실과 샤워실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그림 82] 1778 건물 전경



[그림 83] 부지 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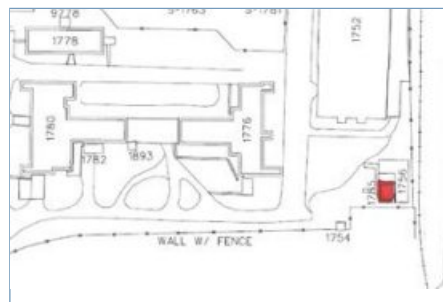
[그림 84] 현황 평면도

[1755] 숙소(사병급 독신자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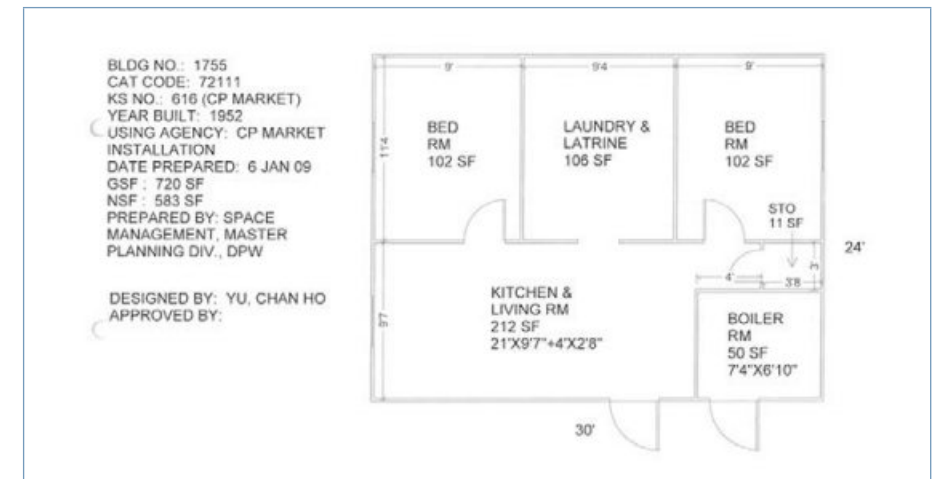
일본육군조병창 시기 병원의 동측 일대에는 숙사들이 집합적으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캠프 마켓 시기 이들은 대부분 멸실되었다. 그러나 현재 B영역의 동남측 끝에 단독주택 양식의 숙소가 하나 남아 있어, 이전에 이 일대에 숙사들이 다수 존재하였던 증거를 보여준다. 내부는 미군이 생활하며 증개축을 반복하여 원형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85] 1755 건물 전경



[그림 86] 부지 내 위치



[그림 87] 현황 평면도

[1544] 다목적 행정시설

1952년 이전 건물로 원형을 알 수 없으나 퀸셋구조와 비슷한 모습을 내부에서 발견할 수 있어 B구역 서측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1948년에 촬영된 사진에서 보면, 1544 건물이 위치한 자리에 퀸셋구조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미군정기 건축한 퀸셋건물일 것이라 추정된다. 미군이 사용하던 시기 본부로 사용되던 건물(1530)의 남서쪽에 위치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까지 1544 건물 남쪽에는 막사 건물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다.

[1536] 세탁실

1958년 건축된 세탁실 건물로, 건축적 가치가 크게 높지는 않으나 1544 건물 등과 함께 B구역 서측 일대의 원래 모습을 알 수 있는 건축물이다.



[그림 88] 1544 건물 (©이연경)



[그림 89] 1536 건물 (©이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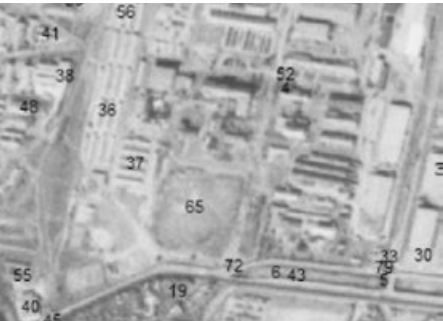




[그림 90] 1544 건물 지붕 (©이연경)



[그림 91] 1544 건물 내부 (©이연경)



[그림 92] 1967년 항공사진



[그림 93] 1979년 배치도



[그림 94] 1948년 norb faye 촬영 사진에서 보이는 1544 건물(서측 권셋건물)  
(출처: <https://flic.kr/s/aHsjnAP1Ba>)

### [1562 및 야구장] 야구장 및 야구장 샤워시설

야구장은 조병창 시기 및 미군정기 당시 이곳은 공터였으나 이후 미군이 사용하면서 야구장, 소프트볼장 등을 건설하였다. 1987년에는 샤워실(1562) 등을 설치하였다. 야구장 및 덕아웃, 관람석 등이 잘 남아 있어 미군 기지에서의 레저 생활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그림 95] 야구장 덕아웃 (©이연경)



[그림 96] 야구장 관람석 (©이연경)



[그림 97] 1947년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야구장 부지 일대



[그림 98] 1960년대 지도에서 보이는 야구장 부지 일대 (출처: 인천에스컴지도(Incheon Ascom Road Map), 부평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99] 1948년 사진에서 보이는 야구장 부지 일대 (출처: <https://flic.kr/s/aHsjnAP1Ba>)





[그림 100] 1967년 항공사진 속 야구장의 모습



[그림 101] 1979년 배치도 속 야구장 및 소프트볼장 모습

[1540 및 수영장]

1986년까지 소프트볼장이 있던 위치에 있는 실외수영장과 수영장 부속 샤워실(1540)로 야구장과 함께 캠프 마켓 내 체육시설군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림 102] 실외수영장 (©이연경)



[그림 103] 1540 샤워실 및 화장실 (©이연경)

참고문헌

1. 382 Station Hospital at ASCOM City, Korea, 1948.01.15.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05\_06\_03V0000\_063, 1948.)
2. Aerial view of real estate adjacent to the 79th Ord Bn, Eighth Army showing landing strips area, looking west, at Ascom city, near Inchon. 30 Aug 1952, 1952.08.30.~1952.08.30.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09\_48\_00V0000\_001)
3. Ascom City, Korea, 1956.05.15. ~ 1957.05.29.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1956.)
4. 「土地買収に関する件」. (<https://www.jacar.archives.go.jp>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관리번호: C01004619300)
5. 부평문화원,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 부평문화원, 2016.
6. 부평역사박물관, 『산곡동 노동자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
7. 부평역사박물관, 『헬로우 애스컴 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 부평역사박물관, 2020.
8. 이상의 면담 해제·국사편찬위원회 편,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역사비평사, 2019.
9. 이상의, 「아시아 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2016.
10. 인천시 지도포털(<http://imap.incheon.go.kr>)
11. 조선총독부관보 제5126호(1939.03.08.)
12. 캠프 마켓 건축도서

인 천 광 역 시 립 박 물 관 조 사 보 고 3 4 집

미 군 기 지 캠프 마 켓 과  
인 천 육 군 조 병 창 유 적

Chapter  
4

조사화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인천육군조병창 조성 이전



1. 부평 실탄사격장의 야포대와 일행



2. 부평에서의 실탄사격 발포광경



3. 부평에서의 실탄사격 후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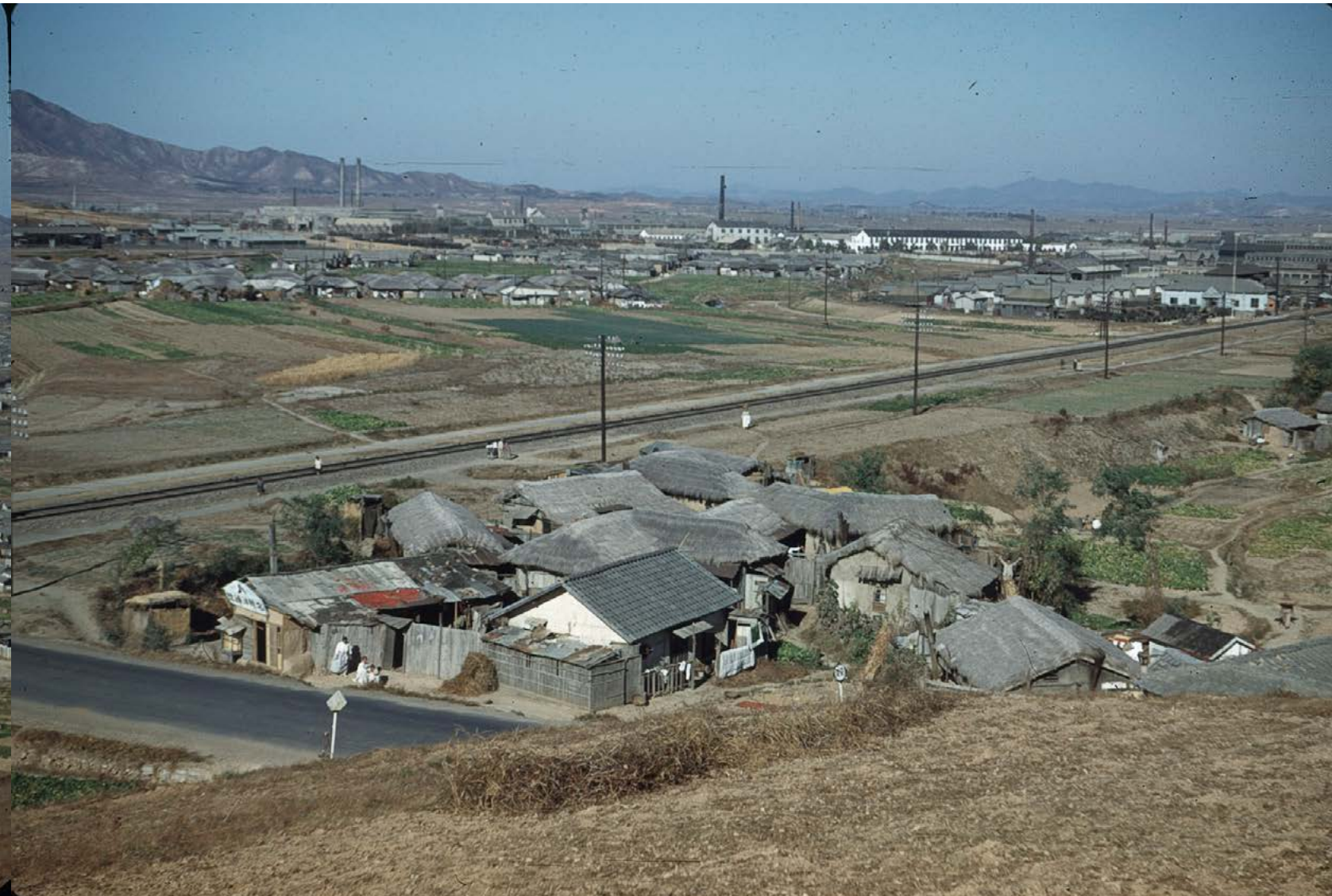


4. 보병 제79연대 제7중대의 1935년 9월 9일 부평에서의 연습 기념사진





5. Norb가 촬영한 애스컴시티 전경  
382위수병원 및 본부 건물, 멀리 공장 지대와 근경의 경인로 및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부영주택과 사택이 한 눈에 보인다.



6. Norb가 촬영한 애스컴시티 전경  
부평역으로 이어지는 경인선 철로가 애스컴시티의 남쪽을 지나가고 있다.



# 인천육군조병창의 흔적, 19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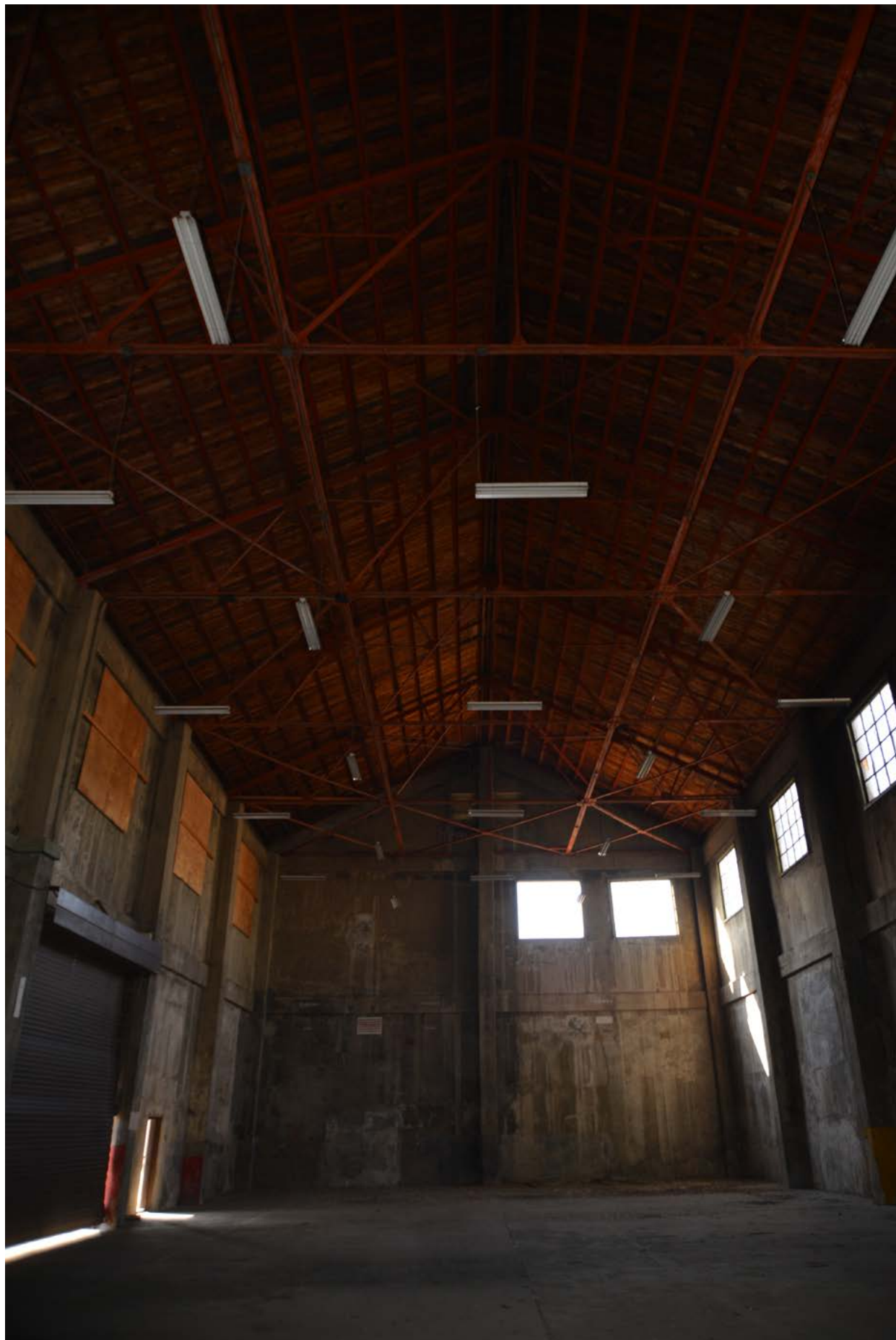
7. 1954년 캠프마켓 항공사진. 목적으로 파괴되었으나 인천육군조병창 공장(추정) 건물군의 원형을 가늠할 수 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처: N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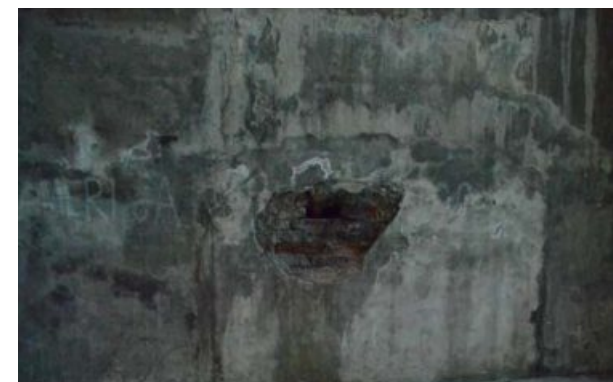


8. A구역 공장 추정 건물 1924호의 외부 전경(2019년, 2020년, 2021년)





9. A구역 공장 추정 건물 1924호의 내부 전경(2020년)



10. 연도(煙道)와 용광로로 추정되는 부분의 내외부(2020년)



## 인천육군조병창의 흔적, 382위수병원



11. 1948년 Norb가 촬영한 382위수병원의 정면



12. 1948년 382위수병원의 중앙부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처: NARA)



13. 1948년 382위수병원의 적십자 도서관, 한국인 학생에 대한 소독법 실습, 병실관리법 수업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처: NARA)



## 인천육군조병창의 흔적, 1780호



14. 1776호, 1780호, 1778호 등의 전경  
한때 382위수병원으로 쓰였던 건물은 한국전쟁 중 중앙부를 포함하여 일부 파괴되었고 미군은 이를 고쳐 1776호와 1780호로 각각 활용하였다.  
(제공: 캠프마켓과,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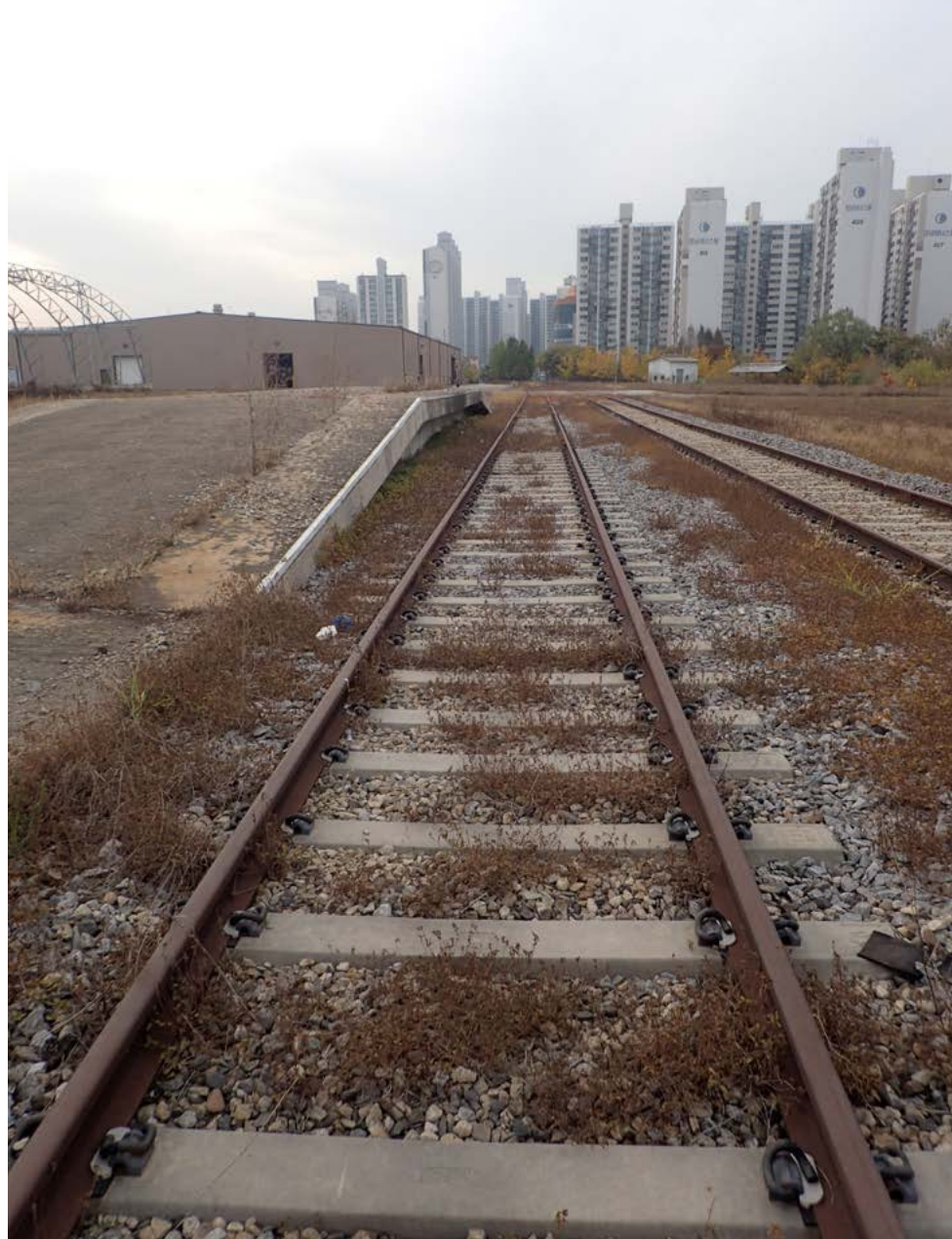
15. 미군의 클럽으로 활용되었던 1780호의 현황(2021년)



16. 건물의 원형이 보이는 지붕 구조와 미군클럽의 흔적으로 남은 주방 가구(2021년)



## 반환 그리고 철거



17. 경인선에서 조병창으로 연결되는 선로. 토양 정화를 위하여 철거 후 현장에 보관되고 있다.(2019년, 2020년)



18. A구역 전경. DRMO였던 A구역은 토양오염 정도가 심하여 많은 건물이 철거되었다.(2020년)



19. 철거를 앞둔 1928호(2020년)



20. 철거 중인 1500호(2020년)



21. 1947호의 철거 전후 모습. DRMO의 행정시설로서 별도의 기록화 사업을 실시하였다.(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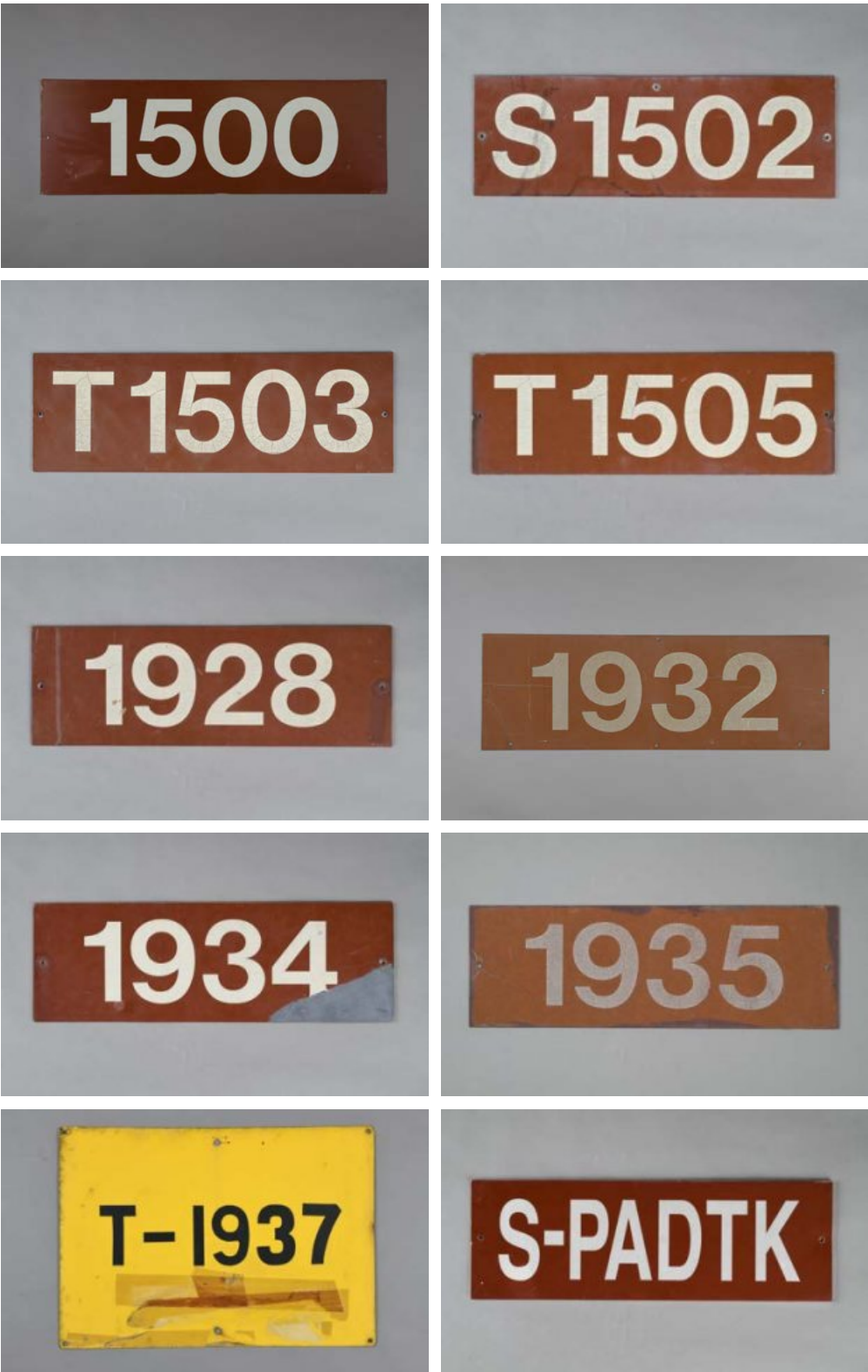




자료 수집



22. A구역 1500호의 수집 현장 사진(2020년)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건물로 추정되며 비교적 큰 규모의 다목적 시설이었다. 그만큼 표지판, 게시판, 사송함, 문짝 등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였다.



23. 철거된 건물에서 수집한 표지판. 많은 건물이 이름표와 몇 장의 사진을 남긴 채 철거되었다. 임시 가설물도 있었고 오래 전에 세워진 건물도 있었다. 미처 조사하지 못한 건물도 있었다.





24. 화재 안전 관련 수집자료



25. 출입 관리 관련 수집자료  
반환된 건물 내부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안내판 류가 대부분이었다.



26. 1500호 건물 근처 노면에서 수습한 막새기와. 일본식 기와의 일종으로 추정되며 용도 등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 캠프 마켓 주요 연표

정리 김현석 생태역사공간연구소 공동대표

\* 날짜는 월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 '00'으로 표시하였다.

### 1916

00. 00

조선총독부, 1916년부터 군용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평지역의 60만 평 토지를 확보.

(‘관유지정리와 용지 매수’, 『동아일보』, 1925. 2. 22)

### 1922

04. 12

일본군, 이날부터 부평, 여의도 등지에서 항공 제6대를 포함한 제부대가 참가하는 연합 연습 실시.

(‘금일 연합 연습’, 『매일신보』, 1922. 4. 12)

### 1923

02. 20

일본 육군성, 조선군경리부(朝鮮軍經理部)가 1월 31일자로 제출한 ‘부평 부근 소연습장 매수’ 신청을 승인함. 조선군 경리부는 조선군 사령관 및 제20사단장의 의견에 기초해 용산에서 하루 행군 거리에 있는 부평 부근의 토지 약 45만 평을 매수하여 군용지에 편입하고, 일부를 용산 주둔 부대의 소연습장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함.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Ref.C03011787500、富平附近小演習場敷地買収の件(防衛省防衛研究所)」)

10. 27

1923년도 육군기동연습이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본군 제20사단을 중심으로 하여 부평평야에서 실시됨. 11월 3일에는 일본군 5,000여 명이 인천에서 1박을 함.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집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민가도 군인들의 숙소로 징발됨. 일본군은 행군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당시 부천군 신천리, 은고리, 안현리를 거쳐 수원으로 연결 되는 3등 도로를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들로 하여금 수선하도록 함.

(‘20사단 기동연습’, 『동아일보』, 1923. 10. 2 / ‘기동연습의 군인, 인천서 숙박, 민가를 치우고’, 『동아일보』, 1923. 10. 30 / ‘인천시화’, 『동아일보』, 1923. 10. 31)

### 1910

08.

경술국치(庚戌國恥)

### 1931

09.

만주사변

### 1925

05. 27

인천에 헌병분주소(憲兵分駐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언론에 발표됨. 그동안 인천에 군함이 도착하거나 부평에서 연습이 있을 때 헌병들을 출장시켜 왔는데, 이에 대한 여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 설치 목적이라고 설명함.

(‘헌병분주소 7개소에 설치’, 『동아일보』, 1925. 5. 27 / ‘헌병분주소—삼포부관담(三浦副官談)’, 『조선일보』, 1925. 5. 27)

### 1933

07. 00

일본군, 7월 말에 부평연습장에서 보병포(歩兵砲)와 산포(山砲) 연습 시행. 산포 사격 중 불발탄 한 개가 인근 지역에 떨어졌으나 발견하지 못함. 인천경찰서에서 표지를 세운 후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견 즉시 ‘연습장 감시인’인 부천군 부내면 산곡리 206번지 후쿠다(福田久二)에게 알리도록 안내함.

(‘부평 원야(原野)에 불발탄 추락’, 『조선일보』, 1933. 8. 24)

### 1936

09. 00

부평연습장 창사(廠舍) 증설 공사 시행.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Ref.C01002128400、演習場廠舍増設工事実施の件(防衛省防衛研究所)」)

09. 30

용산 주둔 78연대, 9월 30일 정오부터 10월 2일 정오까지 ‘부평역 사격장’에서 각종 전구(戰具)를 사용하여 연습 실시. 소형 탱크와 경전차(輕戰車)도 참가.

(‘경인선 부평에서 실탄과 경전차 연습’, 『조선일보』, 1936. 10. 2)

### 1937

03. 00

부천군, 일본 육군 측과 교섭하여 부평역 앞 ‘육군연습지’를 사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 불하 받아 각종 방축(放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중이라고 발표. 육군연습지는 1년에 1회 육군 연습시에 사용되고 있었음.

(‘육군전용연습지 평시는 방목장화(放牧場化)’, 『조선일보』, 1937. 3. 10)

### 1938

05. 14

부평소방조, 5월 14일 오전 11시부터 ‘부평역전 별판’에서 춘계 연습 거행.

(‘부평소방조 춘계연습’, 『조선일보』, 1938. 5. 14)

06. 02

부평연습장에서 오카자키 부대(岡崎部隊) 기병조장 니시야마(西山長太郎) 등 전사자 고별식 거행. 유족, 기병 제28연대장, 재향군인소사분회원 등 참석.

(‘전사자고별식 내(來) 6일에 집행’, 『조선일보』, 1938. 6. 2 / ‘서산조장고별식 부평서 엄숙 거행’, 『조선일보』, 1938. 6. 9)

### 1939

04. 00

4월 중순경 일본군 니시무라 부대(西村部隊)가 부평에서 야외연습을 실시함. 훈련 도중 특별지원병으로 참가한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을 출신 박병렬(21)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지원병의 미담(美談)으로 소개됨.

(‘임무에 충실, 부평 야외연습에서 지원병 박군이 졸도’, 『동아일보』, 1939. 5. 3 / ‘지원병 미담’, 『조선일보』, 1939. 5. 3)

09. 01

일본 육군성, 일본육군조병창이 1939년 8월 9일자로 작성해 제출한 가칭 조선공창(朝鮮公廠) 신설 목적의 토지매수 요청을 승인함. 매입 대상 토지는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산곡리 대정리 소재 부평 연습장 인접지’ 약 43만 평임.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01004619300、土地買収に関する件(防衛省防衛研究所)」)

11. 02

일본 육군성, 부평연습장 내 토지와 건조물을 일본육군조병창 관할로 이관할 것을 결정함. 이관 대상인 제20사단 경리부 관할의 부평연습장 토지는 약 72만 8천여 평임.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Ref.C01007190100、土地建造物管轄換の件(防衛省防衛研究所)」 /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Ref.C01004619300、土地買収に関する件(防衛省防衛研究所)」)

### 1944

00. 00

평양육군병기보급창 부평분창 설치.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Ref.C12122429600、陸軍北方部隊略歴(その5) 朝鮮軍／分割1(防衛省防衛研究所)」)

### 1938

02.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04.

국가총동원법 공포

05. 08

인천중학, 인천상업, 인천공업, 인천고녀, 소화고녀, 경성공업의 6학교 360여 명의 학생들,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입창식 거행. 조선에서 시행된 최초의 학도동원 사례임. 경성공업 학생 44명은 입창식이 끝난 후 곧바로 인천육군조병창 기숙사에 들어가고, 인천중학, 인천상업, 인천공업 학생들은 ‘통년동원(通年動員)’의 형태로 5월 9일부터 출근을 시작함. 인천고녀, 소화고녀 학생 120명은 공장에서 일감을 받은 후 학교에서 작업을 시작함.

(‘반도학도동원 제1회 발동, 인천조병창에 입창’, 『매일신보』, 1944. 5. 10)

05. 22

인천육군조병창, 오가다시(尾形待從) 중무관이 일본고주 파공업회사 공장을 방문하는 날에 맞춰 오후보 대좌를 대리로 보내 회사 계장에게 합금철계(合金鐵係)의 공적을 인정해 표창장 수여.

(‘1년일을 4삭기(朔期)에, 불멸, 공원훈의 정화’, 『매일신보』, 1944. 5. 23)

06. 04

인천육군조병창, 6월 4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을 개인능률공보주간으로 정하고 입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품생산경쟁을 실시함.

(‘태도도 건강도 만점’, 『매일신보』, 1944. 7. 1)

07. 17

이다가끼(板垣) 조선군사령관, 인천육군조병창 시찰.

(‘씩씩한 자태에 감동, 이다가끼(板垣) 군사령관 조병창의 학도들 격려’, 『매일신보』, 1944. 7. 19)

08. 10

소화고등여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 조병창 및 각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과 유기그릇 공출 대금 등을 모아 육군과 해군에 헌금.

(‘헌금보’, 『매일신보』, 1944. 8. 16)

부평 소와정(昭和町) 제2정회, 공출한 유기 대금 565원 90전과 정회로 기탁해 온 현금을 해군무관부에 헌금.

(‘헌금보’, 『매일신보』, 1944. 8. 16)

08. 22

인천육군조병창 무도장에서 입영학도 장행회(壯行會) 개최. 앞서 인천육군조병창에 입소한 학생들 중 일부가 군에 입영하거나 육해군 관련 학교에 입학하게 됨.

(‘솜수 만드 병기 들고, 열적 제1선에 진발, 인천조병창 동원학도들 입영장정화’, 『매일신보』, 1944. 8. 24)

09. 01

경성중학, 용산중학, 인천상업 학생들, 제2차 학도동원 대상으로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입창식 거행. 학생들은 이날부터 작업장에 투입되었으며 1945년 3월까지 ‘통년동원(通年動員)’의 형식으로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었음.

(‘제2차로 3교, 인천조병창에 동원’, 『매일신보』, 1944. 9. 2)

### 1941

12.

일본, 진주만 공격.



## 1944

### 09. 09

인천육군조병창, 동원 학생들의 학부모 131명을 초청해 공장 견학과 간담회 개최.

(‘일견하라 : 자제들의 근로, 인천조병창에서 학도부형초대’, 『매일신보』, 1944. 8. 31)

### 09. 25

조선총독부 아베(阿部) 총독, 인천육군조병창 방문. 제2공장, 제3공장 등을 시찰함.

(‘기름에 저른 “학도공”에, 자애가 넘치는 격려’, 『매일신보』, 1944. 9. 26)

### 11. 24

인천육군조병창, 긴급병기의 정비명령을 기한 내에 완료한 카네후찌조선(鐘淵造船) 주식회사에 대해 표창장 수여.

(‘인천조병창서 카네후찌조선(鐘淵造船) 표창’, 『매일신보』, 1944. 11. 25)

### 유진오의 회고

소나무 숲마져 깎아버리고나니 넓은 캠퍼스는 무슨 빈집같은 황량한 느낌이었다. 학병(學兵)통에 연령미달로 학교에 남았던 학생들마저 부평조병창으로 전원 동원되어 나가고 새로 입학한 1학년 학생만이 학교에 남아 교련에 땀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교수진도 자리를 빈 사람이 많았다. 인촌(仁村)은 병와(病臥)하고 설산(雪山)은 동원학생을 따라 주로 조병창으로 가고 없었을 뿐아니라 조병창에는 일반 교수들도 3, 4인씩 그룹으로 나뉘어 일주일씩 교대로 감독을 나갔으니 말이다. 교련만은 강화되어 배속장교 보조관의 수가 늘고 ‘시미즈(清水)’ 중위라는 젊은 직업군인이 배치되어 날마다 각깍거렸다.

... (중략) ...

부평조병창에는 나도 물론 순번이 오면 가야하였는데 그곳을 가도 마음이 명량해질 일은 하나도 없었다. 학생들이나 동료 교수들이 다함께 겪어야 하는 군대식 생활이 괴로와 서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교수들은 일제의 독려와 학생들의 사보타즈의 사이에 끼어서 언제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괴로운 입장이 되기 때문이었다.

... (중략) ...

불박이로 있는 장덕수 씨와 조병창 측의 채소좌(정부수립 후 초대 육군참모총장이 된 사람)가 통하는 것이 있어서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조병창 당번으로 가 있는 동안에 통쾌한 일이 꼭 한가지 있었다. 배급 밥의 분량이 규정보다 적고 백미와 잡곡의 비율이 틀리는 데다가 부식도 규정보다 형편없이 나빠서 학생들의 불평이 대단했는데 마침 함께 동원되어 와 있던 관립학교의 일인교수들과 말이 맞아서 그들과 함께 조병창장에게 항의를 갔더니 창장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주계장교를 불러 장부를 내보이고 법석을 떤 끝에 그러면

그날은 밥쌀 내어줄 때에 학교선생들더러 입회를 하라 해서 입회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는 잡곡이 약간밖에 안 섞인 하얀 쌀밥이 분량도 평소보다 배나 되었고 부식도 여느 때보다 비교가 안 되게 좋고 풍부하였던 것이다. 일본군대도 부패한 것을 내가 알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일인교수들 말에는 조병창으로 나오는 백미를 장교들이 뒷구멍으로 팔아먹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용서할 수 없는 악질부정은 부식재료로 나오는 생선을 조리하기가 귀찮아 일부만 쓰고 내버려두었다가 썩으면 그대로 내다버린다는 이야기였다. 그때 민간 특히 조선 사람은 한겨울이 다 가도 동태 한 마리 구경 못하는 처지였으니 정말로 분통이 터지는 이야기였다.

... (하략) ...

(‘편편야화(52) 해방전야’, 『동아일보』, 1974. 5. 1)

## 1945

### 09. 16

인천육군조병창에 설치된 기지를 애스컴 시티(ASCOM City)로 명명.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62, p.43)

## 1946

### 04. 27

미 제382 위수병원(382d Station Hospital), 일본 오키나와와 부산을 거쳐 애스컴 시티로 이동. 400병상을 갖춘. 이에 따라 미 제227 위수병원(227th Station Hospital)이 애스컴 시티에서 이동함. 이 병원은 1949년까지 위치함. 이후 이곳에 미 제55 병참창 장교 클럽(55th Quartermaster Depot Officers Club)과 장교 숙소(Bachelor Officer quarters)가 들어섬.

(Department of Defense, 1956–1957, Ascom City, Korea,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원문 P.4)

### 05. 16

미군정당국, 부평 헌병대 본부에서 조선경찰과 엠피(MP) 간 상호협조책 결정.

(‘경찰과 MP 제휴’, 『조선일보』, 1946. 5. 20)

## 1947

### 01. 03

미군이 사용중이던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군 6명이 사망함.

(‘부평 조병창서 미군 6명 소사(燒死)’, 『대중일보』, 1947. 1. 4)

### 03. 22

부평 조병창 공장 철도 관계 기관에서 파업. 이날 전국 각지에서 운수교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과 학생들의 맹휴 사건이 발생함.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생활확보’, ‘전평(全評) 관계자 즉시 석방’ 등을 요구하고, 학생들은 ‘국대안(國大案) 반대’, ‘민주학원 건설’, ‘학원의 경찰 간섭 반대’ 등을 내걸고 맹휴에 돌입함.

(‘운수출로기관(運輸出勞機關)등서 파업’, 『경향신문』, 1947. 3. 23 / ‘서울·대구 등지 작효(昨曉) 부분적으로 파업’, 『조선일보』, 1947. 3. 23 / ‘경우부에 들어온 보고’, 『중외경제신문』, 1947. 3. 24)

## 1948

### 01. 00

중앙관재처, 부평에 있는 일본육군창고에서 회수한 대량의 동화(銅貨)를 이미 불하 또는 처분했다고 발표. (‘적산 이관은 가급 추진’, 『조선일보』, 1948. 1. 21)

### 04. 01

부평 소재 미 육군병원, 4월 1일경부터 서울 시내 적십자 병원 및 종합병원 등의 한국인 간호원들을 모집, 제1기, 제2기로 강습을 시작함. 그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이유로 강제 검진을 시행해 조선간호협회 등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항의함.

(‘조선교유양식 무시코 간호부를 무리(無理)로 검진’, 『조선일보』, 1948. 7. 8)

### 05. 20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사용되던 선철(銑鐵) 5천톤이 발견 됐다고 보도됨. 당시 남한의 선철 수요량은 10만톤으로 추산되고 있었음. (‘일본 부평조병창에서 선철(銑鐵) 5천톤 발견’, 『공업신문』, 1948. 5. 20)

### 12. 00

애스컴 시티에 미 제61 병기단 본부(Headquarters 61th Ordnance Group), 미 제87 병기대대 보급소(87th Ordnance Battalion Supply Point) 등이 주둔해 있었음. (RG 554: AG 503 Projection Booth (61st Ordnance Group Theatre) 1947,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47–1948)

## 1947

### 01. 미 극동군사령부(FECOM : Far East Command) 창설.

### 01. 01

미 당국이 일제강점기에 운영되던 인천육군조병창, 조선유지화학, 유항상공 등의 시설을 접수해 ‘국군조병창’을 창건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됨.

(‘군기(軍器) 지급자족을 목표, 국군조병창을 창건’, 『국제신문』, 1948. 12. 28)

## 1949

### 00. 00

캠프 애스컴 베이커리(CAMP ASCOM Bakery) 운영. (RG 554: AG 600.12 Project Estimate (Pointing of Ascom Bakery) 1949 /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49 –)

### 01. 05

1월 5일부터 2주일간 남한 각 종합병원 원장들이 부평에 있는 육군병원에서 군의훈련을 받음. (‘종합병원장들 군의훈련 시작’, 『동아일보』, 1949. 12. 27)

### 02. 24

국련(國聯) 한국위원단, 부평 미 군사시설, 육군병원, 공장 등을 순시. (‘외군철퇴여부’, 『조선일보』, 1949. 2. 26)

### 06. 00

미 제382 위수병원(382nd Station Hospital)이 해산된 뒤, 같은 건물에 대한민국 육군제1병원이 들어와 한국전쟁 이 전까지 위치함. 육군제1병원은 이 해 5월 1일에 창설됨. (Department of Defense, 1956–1957, Ascom City, Korea,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원문 P.9)

### 06. 29

미군 철수 완료. 500여 명의 주한미군 군사고문단(KMAG: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만 잔류. 애스컴에는 군인 가족 등을 포함해 모두 60여 명이 잔류함.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47~50쪽 /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62, p.51)

## 1949

### 07. 01

이기봉 서울시장, 부평 육군병원의 부상병을 위문 방문.

(‘이 시장 상이병 위문’, 『조선일보』, 1949. 7. 3)

### 08. 01

지구 사령부로서는 최초로 부평지구 위수사령부 설치.

(『한국전쟁지원사』(인사·군수·민사지원), 국방군사연구소, 1997, 83~84쪽)

### 10. 05

부평육군군 의학교 제1기 위생간호장교후보생 졸업식이 동교에서 개최됨.

(‘군의학교 1회 졸업’, 『동아일보』, 1949. 10. 6 / ‘군의학교졸업식’, 『조선일보』, 1949. 10. 7)

### 10. 26

국회의장, 부의장과 사무총장 등 간부들이 부평 육군병원을 방문해 일선에서 전투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위문함. (‘국의원(國議員) 육군 병원을 방문’, 『동아일보』, 1949. 10. 27)

### 10. 31

이승만 대통령과 김효석 내무부장관, 부평 제1육군병원에 방문하여 부상 장병 위문.

(‘친 아들 대하시듯’, 『경향신문』, 1949. 11. 2 / ‘김 내무장관 상이장병 위문’, 『동아일보』, 1949. 11. 1 / ‘친아버지같은 자애, 이대통령 상병장병(傷病將兵)을 위문’, 『동아일보』, 1949. 11. 2 / ‘이대통령 등 상이병(傷痍兵) 위문’, 『조선일보』, 1949. 11. 2)

## 1950

### 01. 02

서울시의사회 간부들, 1월 2일부터 부평에 있는 육군군의 학교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음.

(‘종합병원장들 군의훈련을 시작’, 『동아일보』, 1949. 12. 27 / ‘서울의사회 간부들 육군의학교서 훈련’, 『조선일보』, 1950. 1. 9)

### 01. 23

부평군의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각 종합병원 원장들의 졸업식이 동교에서 거행됨. 군사훈련을 마친 원장들은 예비역 장교에 편입될 예정이었음.

(‘국의원(國議員) 육군 병원을 방문’, 『동아일보』, 1949. 10. 27)

### 03. 09

부평동국민학교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됨. 학생들은 임시로 인천박문여중과 부평서국민학교 등에 분산되어 학업을 진행했으나, 향후 산곡동에 있는 전 육군조병창 공원양성소 2층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됨. (‘교사 잃은 동국민학교 후문’, 『조선일보』, 1950. 3. 18)

### 04. 02

사회부 사회국, 부평에 있는 육군병원을 방문해 상이장병 위문.

(‘사회부서 전상병(戰傷兵) 위문’, 『동아일보』, 1950. 4. 6)

### 05. 06

부평 제1육군병원, 창설 2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동 병원에서 기념식 개최.

(‘제일육군병원 2주년 기념’, 『경향신문』, 1950. 5. 3)

### 06. 08

외무부 차관 및 각 부처 차관, 차장 등, 부평 제1육군병원을 방문해 병사들 위로.

(‘상이장병 위문’, 『경향신문』, 1950. 6. 10 / ‘각부처 차관차장 상이장병을 위문’, 『조선일보』, 1950. 6. 10 / ‘각부처차관 등 상이장병 위문’, 『동아일보』, 1950. 6. 11)

### 06. 26

애크엄에 집결했던 미군과 가족들이 공군의 보호를 받으며 매뉴얼에 따라 인천항을 출항. 새벽 1시 경 미국인 부인과 어린이 700여 명을 태운 첫 버스가 서울을 출발, 부평에 집결했다가 인천항에서 노르웨이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철수함. 이후 인천상륙작전으로 애크엄 시티가 다시 수복되는 1950년 9월 중순까지 북한군의 수중에 놓임.

(Department of Defense, 1956~1957, Ascom City, Korea,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원문 P.9 /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62, pp.110~112, 123 / ‘25년만에 공개된 최고기밀문서 -블레어하우스 긴급회의’, 『동아일보』, 1975. 6. 24)

### 09. 17

부평전투 발생. 이 날 새벽, 미 해병 제5연대 2대대 D중대가 원통이 고개에서 북한군과 교전을 벌임. 전투 이후 미 제5연대 2대대 E중대가 애크엄 시티에서 시가전을 전개함. 3대대 G중대는 애크엄 시티 주변 기관총 기지를 파괴함.

(‘Transcript of an Oral History Interview with LEROY E. SCHUFF’, Wisconsin Veterans Museum, 2005 / ‘2d Battalion, 5th Marines land at INCHON’, 2d Battalion, 5th Marines, 1993)

### 09. 18

미 제3군수사령부(3d logistical command), 인천에 상륙해 애크엄 시티에 주둔. 제3군수사령부는 미 제10군단(X Corps)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됐으나 1950년 10월, 미 제10군단이 동부전선으로 이동한 후에는 부평에 남아 미 제8군에 대한 지원 책임을 맡음.

(Terrence J. Gough,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 A research Approach』, U.S. Army, 1987, pp.7~8, 11, 62~63)

### 10. 00

중공군 참전으로 미군 철수 시작. 이 과정에서 미 제8군의 보급 시스템이 재편성 되어 애크엄은 영등포와 천안 보급소(supply point)를 담당하게 됨. 이에 따라 애크엄에서 불출된 제1종 보급품(Class Ⅰ)과 제3종 보급품(Class Ⅲ)이 제10보급소인 영등포와 제11보급소인 천안으로 이송됨.

(Leroy Zimmerman, ‘Korean war Logistics: Eighth U.S. Army 19 September ~31 December 50’, US Army War College, 1986, pp.9~10)

## 1951

### 01. 00

애크엄 시티(ASCOM City), 북한군에 점령됨. 미 제3군 수사령부 부평에서 부산으로 철수. 이 해 봄에 미군이 다시 애크엄 시티를 점령하여 육군 지원사령부 기지(Army Support Command Complex)로 바꿈.

(Department of Defense, 1956~1957, Ascom City, Korea,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원문 P.4 / Terrence J. Gough,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 A research Approach』, U.S. Army, 1987, pp.7~8, 11, 62~63)

### 07. 29

미 제195 병기중대(195th ordnance company), 애크엄 시티에 배속됨.

(195th Ordnance Comapny, 1954, Unit History~195th Ordnance Company,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2830, 원문 P.10)

## 1952

### 08. 28

미 제74 병기대대(74th Ordnance Battalion), 1952년 8월 28일까지 서울에 주둔. 이후 애크엄 시티로 이동함. 이때 미 제8군 병기 주보급창(Ordnancce Main Army Deopt, OMAD)이 미 제195 병기창 중대(195th Ordnance Depot Company), 미 제330 병기창 중대(330th Ordnance Depot Company)와 함께 설치됨. 미 제74 병기대대에 배속된 부대는 미 제34, 44, 195, 330 병기중대(Ordnance Company)가 있었음.

(74th Ordnance Battalion, 1956~1964, Unit History~74th Ordnance Battalion,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2324, 원문 P.3)

## 1953

### 03. 00

미 제44 공병대대(44th Engineer Battalion), 애크엄 지역에 배치됨.

(44th Engineer Battalion, 1965~1967, Unit History~44th Engineer Battalion,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2282, 원문 P.31)

### 06. 14

부평포로수용소 포로 800여 명,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태극기와 유엔기를 들고 통일없는 휴전반대, 반공포로 즉시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수용소 내에서 시위를 벌임. 유엔 경비원들이 최루탄을 사용하여 진압함. (‘부평반공포로 즉시 석방 시위’, 『조선일보』, 1953. 6. 18)

### 06. 18

이승만 대통령, 이 날 자정을 기해 반공포로 석방 명령 하달.

### 송효순 육군 헌병 사령관의 회고

그러나 송효순 총장은 무엇보다 명령전달이 늦어져 많은 희생자를 낸 영천과 부평수용소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메인다고 했다.

“일을 끝내지 못한 두곳엔 즉시 미군이 대량집결됐어요. 한 국군이 말았던 수용소 감시 제1선을 미군이 말고 나서며 우리 경비병들과 포로들의 연락을 일일이 감시했습니다. 이미 옆질러진 물이라 우리도 드러내놓고 움직였어요. 포로들과의 연락은 글을 쓴 형값을 돌에 싸서 팔매질로 주고받았죠. 영천에선 포로로 변장시킨 헌병들을 미리 수용소에 잠입시켜 길을 안내하는 헌병을 선두로 미군들의 얼굴에 고춧가루 세례를 퍼부으며 뛰어나왔어요.”

부평에서도 2m 간격으로 늘어선 미 감시병과 4중 철조망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한 탈출을 감행했다. 무차별 사격 앞에 많은 포로들이 쓰러져 갔다. 거적을 몸에 감고 간신히 철조망 탈출에 성공한 포로들은 날이 밝자 거리에 쏟아져 나온 데모대에 끼여 들어 미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반공포로 석방은 민족의 요구”’, 『조선일보』, 1972. 6. 18)

### 10. 16

인천 조병창에 화약공장을 설치하기로 상공부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됨. 향후 국방부에서 정식 이관이 있으면 공사가 착수될 것이라고 알려짐.

(‘인천에 화약 공장을 설치’, 『경향신문』, 1953. 10. 16)

## 1951

### 07.

한국전쟁 정전 협상

시작.

## 1953

### 07. 27.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 1954

### 01. 15

애스컴 시티 내에 중국 반공포로 임시 수용소로 사용할 천막 16동 설치. 중국 반공포로, 문산에서 애스컴으로 이송되어 14개 텐트에 분산 수용됨.

(‘반공포로의 영입태세는 만전, 전차 등이 예행연습’, 『조선일보』, 1954. 1. 19·23；‘70th transportation battalion’, 미 육군 수송대 홈페이지(http://www.transportation.army.mil))

### 01. 17

중국 반공포로 14,321명, 부평에서 DDT 소독과 군복, 제반 증명서를 받은 후 인천항으로 이동. (‘자유중국 만세!’, 『경향신문』, 1954. 1. 22)

### 01. 20

중국 반공포로를 문산에서 부평으로 이송하기 위한 예행연습 완료. 보병 부대와 탱크 부대 등이 참가. (‘반공포로의 영입태세는 만전, 전차 등이 예행연습’, 『조선일보』, 1954. 1. 19)

### 01. 21

애스컴 시티 임시 수용소에 있던 중국 반공포로, 인천항을 통해 전원 대만으로 이송. (‘반공포로의 영입태세는 만전, 전차 등이 예행연습’, 『조선일보』, 1954. 1. 19·23；‘70th transportation battalion’, 미 육군 수송대 홈페이지(http://www.transportation.army.mil))

### 02. 28

‘스레재크’ 미 육군차관, 미 대사 등과 함께 부평 미군병기창 시찰. (‘스차관(次官) 이경(離京)’, 『조선일보』, 1954. 3. 2)

### 07. 01

미 제512 병기중대(512th Ordnance Company), 애스컴 시티로 이동. 이 부대는 1954년 9월 18일에 미 제30 병기대대(30th Ordnance Battalion)에서 미 제74 병기대대(74th Ordnance Battalion)로 재배치됨. 미 제74 병기대대는 미 제59 병기단(59th Ordnance Group) 소속임. (HQ US Army Forces Far East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외, 1954, Unit History-30th Ordnance Battalion,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2264, 원문 P.7)

## 1955

### 02. 00

미 제70 수송대대(70th Transportation Battalion) 본부 및 본부중대, 서울에서 애스컴 시티로 이동. 이 해 3월에 항공정비대인 미 제8178 부대(8178th Army Unit)가 미 제70 수송대대에 배속됨.

(70th Transportaion Battalion, 1945-1970, Unit History-70th Transportaion Battalion,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2320, 원문 P.30 / ‘70th transportation battalion’, 미 육군 수송대 홈페이지(http://www.transportation.army.mil))

### 03. 00

미 제565 공병대대(565th Engineer Battalion), 부산에 위치한 미 제503 공병단(503 Engineer Group)에서 미 제45 공병단(45th Engineer Group)으로 이전되며 애스컴 시티 공병창(Engineer Depot)으로 이동함. 미 제565 공병대대에는 미 제97, 54(영등포), 39(의정부), 538(동두천) 공병중대(Engineer Company)가 배속되어 있었음. 그 중 미 제97 공병중대(97th Engineer Company)가 애스컴 시티에 위치함. 미 제54 공병중대(54th Engineer Company)는 1955년 6월에 영등포에서 애스컴 시티로 이동함. 이후 1955년 10월에 미 제146 공병 분견대(146th Engineer Detachment)도 영등포에서 애스컴 시티 공병창으로 이동함.

(565th Engineer Battalion, 1956, Unit History-565th Engineer Battalion,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2459, 원문 P.4-5)

### 04. 00

미 제443 병참기지창(443d quartermaster Base Depot), 애스컴 시티로 이동 시작. 이곳은 같은 해 6월에 미 제55 병참창(55th Quartermaster Depot)으로 바뀜.

(Department of Defense, 1956-1957, Ascom City, Korea,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원문 P.5)

### 05. 00

애스컴 시티 지역 사령부(ASCOM City Area Command) 설립.

(Department of Defense, 1956-1957, Ascom City, Korea,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원문 P.6)

미 제8216 부대화학창(8216th AU Chemical Depot), 애스컴 시티로 이동. 애스컴 시티 예하 사령부(ASCOM City Sub-Area Command)의 지휘를 받음.

(Department of Defense, 1956-1957, Ascom City, Korea,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원문 P.5)

### 06. 00

이 해 봄부터 미 제181 통신중대(181th Signal Company) 건설 시작. 6월과 7월에 걸쳐 애스컴 시티로 이동을 완료함. (Department of Defense, 1956-1957, Ascom City, Korea,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원문 P.5)

### 07. 13

미 제46 수송중대(46th Transportaion Company), 인천에서 애스컴 시티로 이동. (70th Transportaion Battalion, 1945-1970, Unit History-70th Transportaion Battalion,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2320, 원문 P.30)

### 07. 20

미 제74 수송중대(46th Transportaion Company), 서울에서 애스컴 시티로 이동. (70th Transportaion Battalion, 1945-1970, Unit History-70th Transportaion Battalion,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2320, 원문 P.30, 40)

### 10. 11

10월 11일에는 애스컴 지구 사령부(ASCOM City Sub-Area Command)가 설립됨. 이때 다음의 부대들이 지구 내에서 지휘 통제를 받음.
1 재무출납부(1st Finance Disbursing Section)
55 병참창(55th Quartermaster Depot)
70 수송대대(70th Transportaion Battalion)
74 병기대대(74th Ordnance Battalion)
121 후송병원(121st Evacuation Hospital)
181 통신중대(181st Signal Company(Depot)
185 공병대대(185th Engineer Battalion)
304 통신대대(304th Signal Battalion)
565 공병대대(565th Engineer Battalion)
630 공병중대(630th Engineer Company)
8057부대(8057th AU)
인천 보충대(Inchon Replacement Depot)
(Department of Defense, 1956-1957, Ascom City, Korea,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원문 P.6)

### 10. 15

728 헌병대 D중대(Company D, 728th Military Police Battalion), 애스컴 시티 지구사령부(ASCOM City Sub-Area Command)의 지휘를 받기 시작. 이 해 12월 애스컴 시티 지구사령부 내 K-14 구역 인근으로 이동. (Department of Defense, 1956-1957, Ascom City, Korea,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원문 P.6)

## 1956

### 00. 00

'미 극동육군/제8군 회람 10-1(AFFE/8A) Circular 10-1)'을 통해 애스컴 시티 예하 사령부(ASCOM City Sub-Area Command) 지역에 대한 기본 지침이 마련됨. (Department of Defense, 1956-1957, Ascom City, Korea,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456, 원문 P.6)

### 04. 26

미 육군 차관보, 부평, 인천 등지의 미 군사시설 시찰. (‘미 육군 차관보 인천 등지 시찰’, 『경향신문』, 1956. 4. 28)

### 05. 29

부평 근교에 위치한 보병 제33사단, 부대 연병장에서 제3차 병무소집에 응소한 예비역 장병의 입소식 거행. (‘응소율 100% 33사단에서 3차 입소식’, 『조선일보』, 1956. 5. 31)

### 12. 02

이승만 대통령, 부평에 있는 육군 제33예비사단을 방문, 숙소, 취사장, 식당 등을 시찰. (‘이대통령, 33사단을 시찰’, 『조선일보』, 1956. 12. 4)

## 1957

### 02. 19

김정렬 인천시장, 미 제55부대 인사관 ‘후랭크’에게 표창장 수여. ‘후랭크’는 사비를 들여 한국인 청년을 미국에 유학시키고, 다리가 절단된 청년의 치료비를 제공함. (‘‘후랭크’ 씨를 표창, 사재로 미거(美舉)’, 『조선일보』, 1957. 2. 28)

### 11. 23

보건사회부, 유엔군사령관 데커 장군으로부터 부평, 의정부, 대전 등 3개소에 병원을 신설했다는 공한을 접수했다고 발표. 미군부대에 종사하는 한국인 종업원들을 위해 신설한 병원으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힘. (‘3개병원신설’, 『조선일보』, 1957. 11. 24)

## 1957 — 07. 주한미군 각 구성군사령부 창설.

## 1958

### 01. 21

백선엽 육군참모총장, 1956년 11월부터 1958년 1월 18일 까지 부평지구 미군참운용단장으로 근무한 미 ‘테네드 W 달톤’ 대령에게 은성을지무공훈장 수여.

(‘상훈’, 『동아일보』, 1958. 1. 23)

### 04. 11

미 제8군사령부, 미고등군법회의에서 ‘소년밀장사건(김춘 일 사건)’을 일으킨 ‘캠프’ 대위에 대해 6개월간의 지휘권 정지 및 매월 200달러의 벌금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 ‘캠프’ 대위는 18세의 한국인 김춘일을 상자 속에 밀장한 후 부평에서 헬리콥터에 태워 의정부까지 실어다 버리게 하였음.

(‘견책, 벌금 등으로 낙착’, 『조선일보』, 1958. 4. 12)

## 1960

### 05. 07

미8군, 5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군대학 야구 리그 및 한미친선야구 리그 개최. 부평사령부팀 등이 부평 부대구장 등에서 대회 거행.

(‘한미친선야구전’, 『조선일보』, 1960. 6. 11)

### 12. 06

육군, 부평 미군기지에서 신형 ‘디젤 4분지3(스리코타)’ 인수식 거행.

(‘어제 군서 인수 도입한 신형 디젤 스리코타 수백대’, 『동아일보』, 1960. 12. 7)

## 1961

### 07. 29

유엔군사령부,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대학생 하계 군사 야영훈련이 7월 29일부터 4주간 전국 7개 예비사단에서 실시된다고 발표. 서울지구 대학생 입소식은 7월 29일 부평 제33 예비사단에서 개최됨.

(‘33예비사단에 입소, 대학생 야영훈련’, 『경향신문』, 1961. 7. 29)

### 08. 02

미 제121 후송병원 외과과장 토마스 H. 휴렛 대령, 한국 육군의 심장외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성을지무공훈장 받음.

(‘토막소식’, 『조선일보』, 1961. 8. 5)

### 08. 26

6개 대학 학도군사훈련단(ROTC) 제1차 수료식이 부평 제

33 사단연병장에서 거행됨.

(‘조국의 간성 되기를 다시 한 번 다짐, 각 대학 군훈단 26일 수료식’, 『경향신문』, 1961. 8. 27 / ‘개척자 되길 다짐’, 『조선일보』, 1961. 8. 27)

## 1963

### 00. 00

애스컴 시티의 7개 구역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함. 캠프 마켓(Camp Market), 캠프 하이예스(Camp Hayes), 캠프 그란트(Camp Grant), 캠프 타일러(Camp Tyler), 캠프 아담스(Camp Adams), 캠프 해리스(Camp Harrison), 캠프 테일러(Camp Taylor)

(‘Camp Market’(부평사편찬위원회 수집자료))

### 06. 15

부평 미 제55 병참대대에서 랄프 스미스 일등상사 전역식 개최. 스미스 상사는 1917년 육군에 입대함. 1955년 당시 9세의 한국 고아를 양자로 입양.

(‘77세의 미 노병 명예제대’, 『동아일보』, 1963. 6. 15)

## 1964

### 09. 11

한국 최초의 육군철교가설 시범교육이 부평에 있는 육군 218공병대대 연병장에서 개최됨.

(‘철교가설시범교육 육군에서 처음으로’, 『경향신문』, 1964. 9. 11)

### 11. 00

미 제330 병기중대(330th Ordnance Company), 미 육군 사령부 보급창(USA ASCOM Depot) 내에서 위치 이전. 본부 중대에서 과거 미 제4 통신중대(4th signal Company)가 있던 남서쪽 경계로 이동함.

(330th Ordnance Company, 1965, Unit History~330th Ordnance Company,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코드 AUS251\_09\_00C2913, 원문 P.2)

## 1965

### 08. 18

부평 주둔 미 제330 공병대대 소속 카투스 60여 명, 오후 4시부터 인권유린과 급식 차별 대우 등에 항의하며 2개 조항의 요구 사항을 내걸고 단식투쟁에 돌입.

(‘60여 카투스 단식, 차별대우에 항의’, 『조선일보』, 1965. 8. 20)

### 12. 22

인천POL(Petroleum, Oil, and Lubricants, 미군유류저장소) 부평경비분회 노조원, 파업 돌입.

(‘경비노조분규 더욱 확대’, 『경향신문』, 1966. 1. 10)

## 1966

### 01. 01

미 육군 애스컴 지구 제20 일반지원단, 애스컴 구역사령부(the US Army ASCOM District Command) 자산을 활용해 편성됨. 미 육군 제8군 사령부 일반명령 제159호(1965. 9. 27), 일반명령 제160호(1965. 9. 29)에 의한 코스타 2(COSTA II) 계획에 따라 진행됨.

(Department of Defense, 1967~03~31~1971~03~30, Unit History ~20th General Support Group,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855, 원문 P.1)

### 01. 07

인천POL 부평경비분회 노조원 70여 명, 1965년 12월 22일부터 파업을 벌여 오던 중, 서울경화기업 측이 신규 채용된 경비원으로 인력을 교체하자, 이에 반발해 미 제4 통신대대 정문 앞으로 물려가 항의하며 미 헌병들과 충돌.

(‘경비노조분규 더욱 확대’, 『경향신문』, 1966. 1. 10)

## 1967

### 05. 12

미 제20 일반지원단(the 20th General Support Group)에 배속된 다음의 부대들이 임무해제됨. 377th Medical Company(Air Ambulance) 6th Medical Depot 121st Evacuation Hospital 119th Medical Detachment 160th Medical Detachment

(Department of Defense, 1967~03~31~1971~03~30, Unit History ~20th General Support Group,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855, 원문 P.14)

## 1968

### 00. 00

미 제20 일반지원단(the 20th General Support Group), 미8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종업원들을 위해 선인재단과 협력해 ‘영어 훈련 강좌(English training classes)’를 개설함.

(Department of Defense, 1967~03~31~1971~03~30, Unit History ~20th General Support Group,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855, 원문 P.4)

### 01. 25

‘부평지구 미 육군 애스컴사령부’, 푸에블로 호 납북사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산하 미군장병들의 영외 외출을 금지, 비상사태에 돌입함.

(‘미군 외출금지령’, 『동아일보』, 1968. 1. 25)

### 04. 00

미 제20 일반지원단(the 20th General Support Group), 23회 식목일을 맞아해 애스컴 지역(ASCOM area) 전체에 14,000 그루 이상의 나무를 기부함. 도나휴 대령(Col. F.J. Donoghue)과 김해두 인천시장은 한국군과 미군 사이 우호의 상징으로 몇 그루의 나무를 심음.

(Department of Defense, 1967~03~31~1971~03~30, Unit History ~20th General Support Group,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855, 원문 P.4)

### 06. 03

미 제335 정비대대(335th Maintenance Battalion), 애스컴 지구에서 활동 시작. 미 제516 경장비중대(516th Equipment Maintenance Company), 미 제512 중장비중대(512th Heavy Equipment Maintenance Company), 미 제37 정비중대(37th Maintenance Company), 미 제335 정비대대 A 중대(Company A)로 구성됨.

(Department of Defense, 1967~03~31~1971~03~30, Unit History ~20th General Support Group,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855, 원문 P.5)

### 08. 27

‘애스컴 교류의 날(Ascom’s Community Day)’ 개최. 오픈 하우스 등 행사 진행.

(Department of Defense, 1967~03~31~1971~03~30, Unit History ~20th General Support Group,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코드 AUS251\_09\_00C1855, 원문 P.5)

## 1969

### 01. 05

삼일농장 권동진, 해방 후 부평에 있는 군용지 6만 평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 황무지를 개간하였으나, 수복 후 육군 모사단의 사격장 용지로 물려주고 대토로 받은 인천시 일신동 대지에 삼일농장을 경영하였다고 인터뷰 함.

(‘살아있는 ‘삼일운동’, 2. 오늘의 만세가족’, 『조선일보』, 1969. 1. 5)



## 1969

**01. 18**  
주한미군, 용산 미군병원 자리에 310개 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 1971년 3월 준공하여 부평 미 제121 후송병원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 미국동지구 공병부대와 한국개발회사 및 현대건설이 공사 계약을 체결함.  
(『용산에 맘모스 병원』, 『동아일보』, 1969. 1. 18)

**02. 18**  
미8군 주최 69년도 미육군 태평양지구 배구 선수권 대회가 부평보급기지창 쉬필드하우스에서 3일간 개최됨.  
(『18일부터 부평서』, 『조선일보』, 1969. 2. 13)

**09. 22**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소속 발전, 건물, 난방 등 3개 관리분회 조합원 406명, 미군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2,000여 명의 한국인 종업원을 감원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여 성토대회 개최. 이날, 서울, 의정부, 문산, 평택, 동두천 등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성토대회가 열림.  
(『외기노조원 곳곳서 감원 성토, 미측서 강행하면 총파업 기세』, 『동아일보』, 1969. 9. 23)

## 1971

**03. 16**  
한진상사, 부평 병기부대 광장에서 예비군전력화를 위한 덤프트럭 58대 기증식 개최.  
(『덤프트럭 58대 기증, 한진상사서 국방부에』, 『동아일보』, 1971. 3. 16)

**06. 14**  
121후송병원 용산기지로 305병상 규모 신축 이전.  
(『Chronology Eighth United States Army(1 January~30 June 1971)』, 1971)

## 1973

**04. 19**  
부평동 45번지 밭에서 청나라 말기에 사용하던 광서원보(光緒元寶), 대청(大清) 동패 등 6종의 동전 1만여 개가 발견됨. 그동안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부평동 일대에 쇠붙이 등을 묻고 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음.  
(『청나라 동전 찾아 땅파기 한창』, 『경향신문』, 1973. 4. 21)

**06. 30**  
미 제20 일반지원단(the 20th General Support Group), 애스컴 시티에서의 활동을 끝내고 해체됨. 이 날 이후 미

## 1969

**07.**  
닉슨(Richard M. Nixon) 미 대통령, 괌(Guam)에서 ‘닉슨독트린’ 발표.

## 1972

**12.**  
한미정부간 전시지원협정(WHNS : Wartime Host Nation Support) 발효.

## 1971

**03.**  
미 제7사단 2만 병력 철수.

## 1978

**11.**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창설.

육군은 애스컴 시티에서 수행해 온 대부분의 보급 및 운영 작전을 중단하고, 자산처리단(Property Disposal Agency), 교도소, 베이커리 등 일부 업무만 유지함.  
(『Press Release on Phaseout of ASCOM』, WILLIAM W. WOODSIDE(Public Affairs Officer), 1973. 4. 13)

## 1984

**05. 08**  
홍성유 작가, 조선일보에 부평 조병창을 소설의 일부 배경으로 다룬 ‘인생극장’ 연재 시작.  
(『중진작가 홍성유가 펼치는 서울의 인간야사, 새 연재소설 인생극장』, 『조선일보』, 1984. 4. 26)

## 1992

**12. 24**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부평동 299번지 88정비대 자리 10만 6,347㎡를 공원지역으로 시설 결정.  
(『부평 군부대자리 공원화』, 『한겨레신문』, 1992. 12. 25)

## 1995

**07. 01**  
인천시, 88정비대 부지의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육군본부 측과 군부대 부지 3만 1,515평의 매매협약체결 완료.  
(『부평 88정비대 근린공원 조성』, 『매일경제신문』, 1995. 8. 9)

## 1996

**05. 17**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인천연합), 부평역 앞에서 ‘5.18광주민중항쟁 16주기 기념식’ 개최. 이 행사에서 인천연합이 ‘우리 땅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선언을 선포함.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제75차 노동위원회 회의자료』, 1996. 5. 2)

**05. 24**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인천시민모임(가칭)(시민모임), 제1차 대표자 회의 개최.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5기 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1996. 5. 29)

## 1999

**03. 30**  
산곡동 군부대 자리에서 일제시대 군수품 수송로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직사각형 형태의 대형 지하터널 발견. 너비 5m, 높이 2.5m의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조성되었고, 채광시설, 전기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육군 88정비부대 터에서 발견된 지하터널과 직선거리로 1.5km 가량 떨어져 있음. 일제강점기에 노무자로 일했던 삼릉 마을 주민은 “지하터널에 군용 화물차량이 수없이 드나들었으며, 지하터널은 20여km 떨어진 인천항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함.  
(『일본군 옛주둔지서 대형터널 발견』, 『한겨레』, 1999. 3. 31)

## 2002

**10. 31**  
주한미군기지의 대대적인 통폐합에 관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협정이 10월 30일에 국회 동의를 받아 양국이 상호 서면 통보함으로써 발효됨.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land partnership plan)’임. 이 협정에 의해 캠프마켓은 평택으로 이전이 확정됨.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발효』, 『외교부 보도자료』, 2002. 10. 31 / 우정범·권남연·오승익, 『미군기지가전사업 관련 한미 간 쟁점, 해소 과정,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129, 한국국방연구원, 2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08

**10. 00**  
주한미군 공여구역(캠프마켓) 주변지역 1단계 환경기초조사 착수. 조사 결과, 유류(TPH), 중금속(구리, 납, 비소, 아연) 및 불소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가지역)을 초과. 지하수는 TCE, 대장균, 일반세균의 오염이 확인, 지표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안티몬의 오염이 확인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캠프마켓) 주변지역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 2009, 환경부)

## 2006

**07.**  
주한미군기지가전사업단(MURO : MND USFK base Relocation Office) 창설.

## 2009

**12. 00**  
환경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캠프마켓) 주변지역 2단계 환경기초조사 착수. 1단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캠프마켓 주변지역을 A, B, C, D, E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 수행. 그 중 A, B, C구역에서 지목별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발견.  
(『주한미군 공여구역(캠프마켓) 주변지역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 2009, 환경부)

## 2011

**07. 30**  
DRMO(Defenc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미군수품재활용사무소) 폐쇄 및 경북 김천 이전. 김천 아포 DRMO는 앞서 4월 1일에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산9-1번지 일원에 개소.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보고서』, 녹색연합·인천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 2018 / ‘아포 DRMO(미 군수품 재활용 처리장) 진실은’, 『김천신문』, 2013. 6. 16)

## 2013

**07. 31**  
인천시, 국방부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캠프마켓) 관리·처분 협약’ 체결. 이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토지매입금 4,915억 원(시비 33.3%, 국비 66.7%)를 2022년까지 10년에 걸쳐 국방부에 분납하기로 함.  
(『인천시-국방부 ‘캠프마켓 관리·처분’ 협약 체결』, 『경인일보』, 2013. 8. 1)

## 2017

**10. 27**  
환경부, 한미간 합의에 따라 캠프마켓 부지 환경조사 결과 공개. 부지를 반환받게 되는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SOFA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른 환경현장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음. 1차 조사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차 조사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됨. 조사 결과, 토양에서는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의 오염이 발견되었고, 지하수에서는 석유계혼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었음.  
(『환경부, 반환 예정 미군기지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보 공개』, 『환경부 보도자료』, 2017. 10. 27)

2018

**05. 00**  
환경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기초  
조사 착수. 조사결과, 토양 170지점 954개 시료 중 51지점  
128개 시료에서 TPH, 비소, 납, 볼소, 카드뮴, 아연, 니켈,  
구리 등 8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함.  
(『201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 2019, 환경부)

2019

**08. 30**  
SOFA합동위원회, 캠프마켓 C구역(오수정화조 부지) 조기  
반환 합의.  
(『캠프마켓 오수정화조 기록화사업』, 2021, 인천광역시 부평구)

**12. 11**  
SOFA합동위원회, 캠프마켓 1단계(A, B구역) 반환 결정.  
(『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반환 및 용산기지 반환 본  
격 개시』, 『국방부 보도자료』, 2019. 12. 11 / 『우정 200, 한·미 소  
파 합동위원회,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다 -제200차 소파(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2019. 12. 11 /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인천 캠프마켓”- 90여년의  
긴 장벽을 깨고 캠프마켓 반환결정 -』, 『인천시 보도자료』, 2019.  
12. 11)

2020

**10. 06**  
캠프마켓 정문 담장 철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021

**05. 03**  
캠프마켓 B구역 내 운동장 부지 개방.  
(현장 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옥련동)  
T 032.440.6750  
F 032.440.8871  
<https://www.incheon.go.kr/museum>

디자인 다인아트

비매품  
ISBN 979-11-87008-31-6  
979-11-87008-30-9(세트)  
발간등록번호 54-6280254-000078-01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1

이 책에 실린 논고는 각 연구자의 연구결과로, 박물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록된 모든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 복제 또는  
사진 및 기타 정보기기에 의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